

扶餘 陵山里 東古墳群

THE NEUNGSAN-RI DONG(EAST) ANCIENT TOMBS, BUYEO

扶餘 陵山里 東古墳群

THE NEUNGSAN-RI DONG(EAST) ANCIENT TOMBS, BUYEO

일러두기

- 1. 본 보고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1938년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未治) 등이 조사한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발굴조사의 출토품을 정리·분석·공개하는 보고서이다.
- 2. 보고서에 수록된 글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각 장의 처음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 3.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에 참여한 인물의 표기는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조선총독부박물관 고적조사 인명 목록을 참고하였다.
- 4. 보고서 대상품은 총번을 따랐으며, 소장품 등록 번호를 병기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접합된 유물은 소장품 번호를 모두 기재하였다.
- 5. 유구의 제원은 당시 작성된 보고서 및 조사 일지를 참고하였으며, 보고서 대상 유물은 실제 측정한 크기를 기입하였다. 조사 일지와 출토품 기록카드에 척, 촌, 분, 리釐로 작성된 것은 센티미터cm로 환산하였다.

척	30.3cm
촌	3.03cm
분	0.3cm
리	0.03cm

- 6. 도면은 목관재의 경우 1/3로 축소하고 관정 및 기타 금속품은 원본 크기로 수록하였다.
- 7. 실측도면의 축적은 유물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다.
- 8. 속성표 내의 ()는 유물의 잔존 수치이다.
- 9. 번역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분적으로 의역하고 한국고고학에서 통용하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 1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사진과 문서, 지도, 도면 등은 관리번호를 기재하였다. 소장 자료 외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관련 자료를 일본 <東洋文庫 梅原考古写真資料庫>에서 수집하였으며, 수록한 자료는 별도 표기하였다.

목 차

발간사	05
I. 머리말	08
II. 부여 능산리의 환경	12
1. 자연지리적 환경	
2. 고고학적 환경	
III.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조사 내용	20
1. 일제강점기 부여 능산리 일대 왕릉 조사와 능산리 동고분군	
2.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의 입지와 고분의 분포	
3. 조사 내용	
1) 1호분	
2) 2호분	
3) 3호분	
4) 4호분	
5) 5호분	
IV. 맺음말	111
■ 부 록	116
일제강점기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조사일지와 출토품 기록카드	

발간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한반도 침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우리 민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전역에서 고적 조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백제의 수도百濟였던 부여는 일찍이 일본학자들의 주 연구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며, 여러 차례 고적 조사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과 성과는 제대로 보고되지 못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일본 학자들이 조사했던 부여지역 백제 유적의 발굴보고서 재발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여 군수리 사지』(2012)를 시작으로 『부여 동남리 사지』(2014), 『부여 정립사지』(2015), 『부여 구아리 사지』(2016), 『부여 부소산 사지』(2017) 보고서를 간행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백제 사비시기 왕릉원이자 일제강점기 부여지역 최초의 고적조사인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발굴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부여 능산리 1호(東下塚)』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백제 왕릉 출토 유물에 대해 다양한 자연과학분석을 실시하고, 능산리 1호 동하총 석실 내부를 3D 스캔하여 석실의 정확한 구조와 규모를 밝혔습니다. 또한 백제 왕실에서 사용한 목관의 원형을 복원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2019년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四神이 호위하사, 백제 능산리 1호 東下塚〉 개최로 이어져,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중요성과 의미를 재조명하고 대중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국립부여박물관은 부여 능산리 고분군 동쪽에 위치하며, 1938년에 발굴조사된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의 정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은 무덤의 규모와 구조, 출토품의 수준 등이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 버금가는 백제 사비시기 최고위층의 무덤군으로, 백제 사비시기 왕족의 무덤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능산리 동고분군에 대한 대중과 학계의 관심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작년에 이어 백제 사비시기 왕릉급 고분 연구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세상의 관심 밖이었던 능산리 동고분군 출토품 및 당시의 사진과 문서자료를 다시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 하였습니다. 산산조각난 유물을 복원하고 도면·사진을 작성하였으며 새로이 원고를 집필하여 정식 발굴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조사단이 작성한 조사 일지 등을 분석하여 조사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등과 함께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재발굴조사를 계획 중이며, 이를 토대로 백제 사비시기 고분문화 연구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서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백제 사비시기 고분문화 연구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립부여박물관은 마한·백제문화 연구의 허브박물관으로, 새로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국립부여박물관장 윤 형 원





I. 머리말

II. 부여 능산리의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2. 고고학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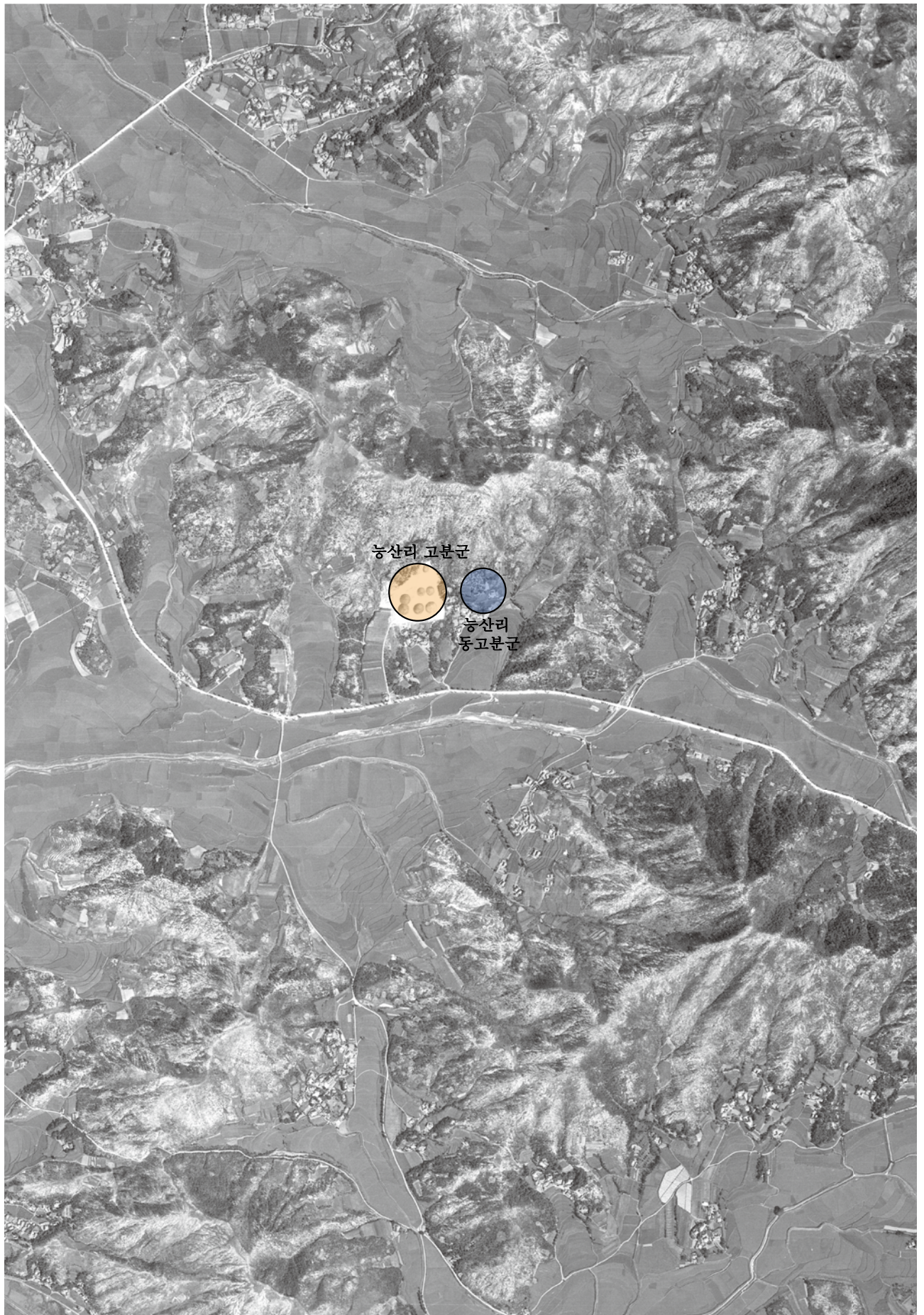
I. 머리말

20세기 초 일본은 한반도 내 고적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전역과 만주 등지에 소재하는 각종 문화재 및 민속자료, 자연환경 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선 민중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고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과 변형이 자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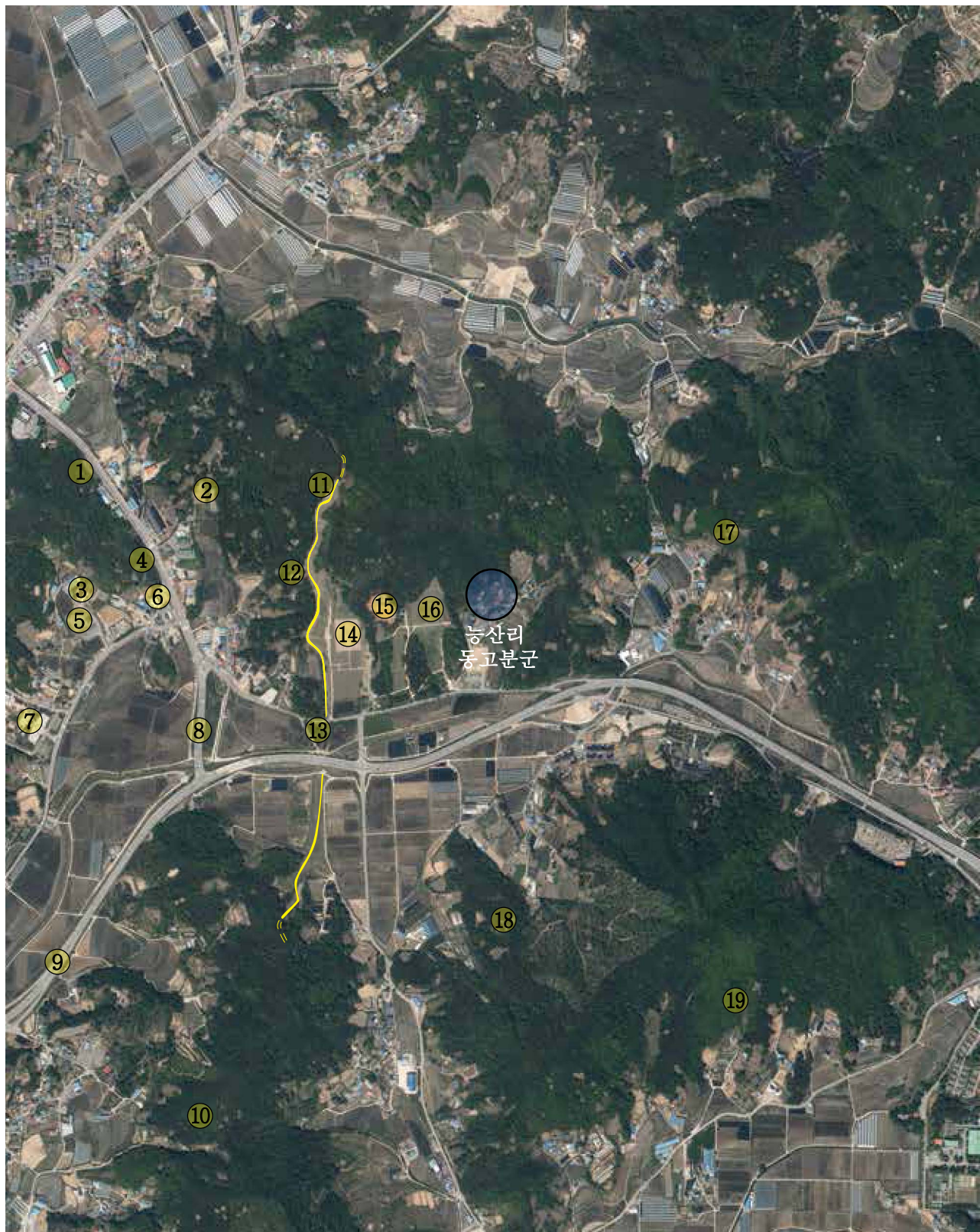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소장하였던 한반도 고적조사사업 관련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인계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를 보관·정리 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미공개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조사는 재발굴조사와 보고서 작성 작업을 실시하고,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생산·보관하였던 당시의 공문서, 도면, 유리건판사진, 지도 등은 재정리 후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부여박물관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조사하였으나 그 내용과 성과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부여지역 백제 유적에 대한 보고서 발간 사업을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백제 불교사찰 유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2년 『부여 군수리 사지』를 시작으로 2014년 『부여 동남리 사지』, 2015년 『부여 정림사지』, 2016년 『부여 구아리 사지』, 2017년 『부여 부소산 사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8년에는 백제 사비시기 왕릉원이자, 일제강점기 부여지역 최초의 고적조사인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부여 능산리 1호(東下塚)』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출토품에 대한 다양한 자연과학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문화재청의 협조를 얻어 능산리 1호 동하총 석실 내부를 3D 스캔하고 석실의 정확한 구조와 규모를 밝혔다. 또한 석실 내부에서 발견한 목관 편과 금속 장식, 석실의 구조 등을 분석하여 백제 왕실에서 사용한 목관의 원형을 복원하고 재현품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성과를 2019년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四神이 호위하사, 백제 능산리 1호 東下塚〉(2019. 9. 10. ~ 2020. 1. 27.) 개최로 이어졌다.

올해 국립부여박물관은 2018년에 이어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일대에 분포하는 백제 사비시기 왕릉급 고분 연구를 실시하였다. 1938년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등이 조사한 백제 사비시기 왕족의 무덤군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정식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보고서와 당시 촬영된 조사 사진 및 도면 등을 참고하였다. 특히 조사단이 현장 조사 중에 작성한 조사 일지와 출토품 기록카드를 정리 및 번역, 분석하여 발굴조사 진행 과정과 출토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제대로 정리·보고되지 않았던 능산리 동고분군 출토품을 재정리하고 이를 보존처리하여 도면, 사진 등과 함께 보고하였다.

최근 부여지역에서는 백제 사비시기 고분문화 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조사한 능산리 서고분군이 재발굴되었으며, 백제 사비시기 귀족의 무덤인 능산리 능안골 고분군이 추가 조사 중이다. 또한 국립부여박물관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백제 사비시기 왕릉급 고분 조사 자료를 수집·정리·분석하여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특별전시로 발전시켜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중요성과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특히 국립부여박물관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등과 함께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재발굴조사를 계획 중이며, 이를 토대로 백제 사비시기 고분문화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번 『扶餘陵山里 東古墳群』 보고서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백제 사비시기 왕실 고분문화 연구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판 1]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의 위치(1966년 항공 사진)



- | | | |
|-----------------------------|-----------------------------------|------------------|
| 1. 쌍북리 두서럭골 유적(Ⅱ 지점) | 8. 부여-논산간 국도 4호선 도로확장구간 내 유적 | 15. 능산리 서고분군 |
| 2. 관음사지 | 9. 부여-논산간 도로공사구간 내(군수, 왕포, 가탑) 유적 | 16. 능산리 고분군 |
| 3. 가탑리 210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 10. 염창리 군돌골 고분군 | 17. 능산리 체마소 고분군 |
| 4. 쌍북리 두서럭골 유적(Ⅰ 지점) | 11. 나성(동나성 2문지) | 18. 능산리 오살미 고분군 |
| 5. 충청, 호남권 주배관 건설공사 내 유적 | 12. 나성 동나성(능산리 사지 구간) | 19. 염창리 상염마을 고분군 |
| 6. 가탑리 189-4 외 내 유적 | 13. 나성(부여나성 동문지 발굴조사) | |
| 7.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 14. 능산리 사지 | |

[도판 2] 부여 능산리 일대 백제 유적 분포도



[도판 3] 부여 능산리 일대 백제 고분군 항공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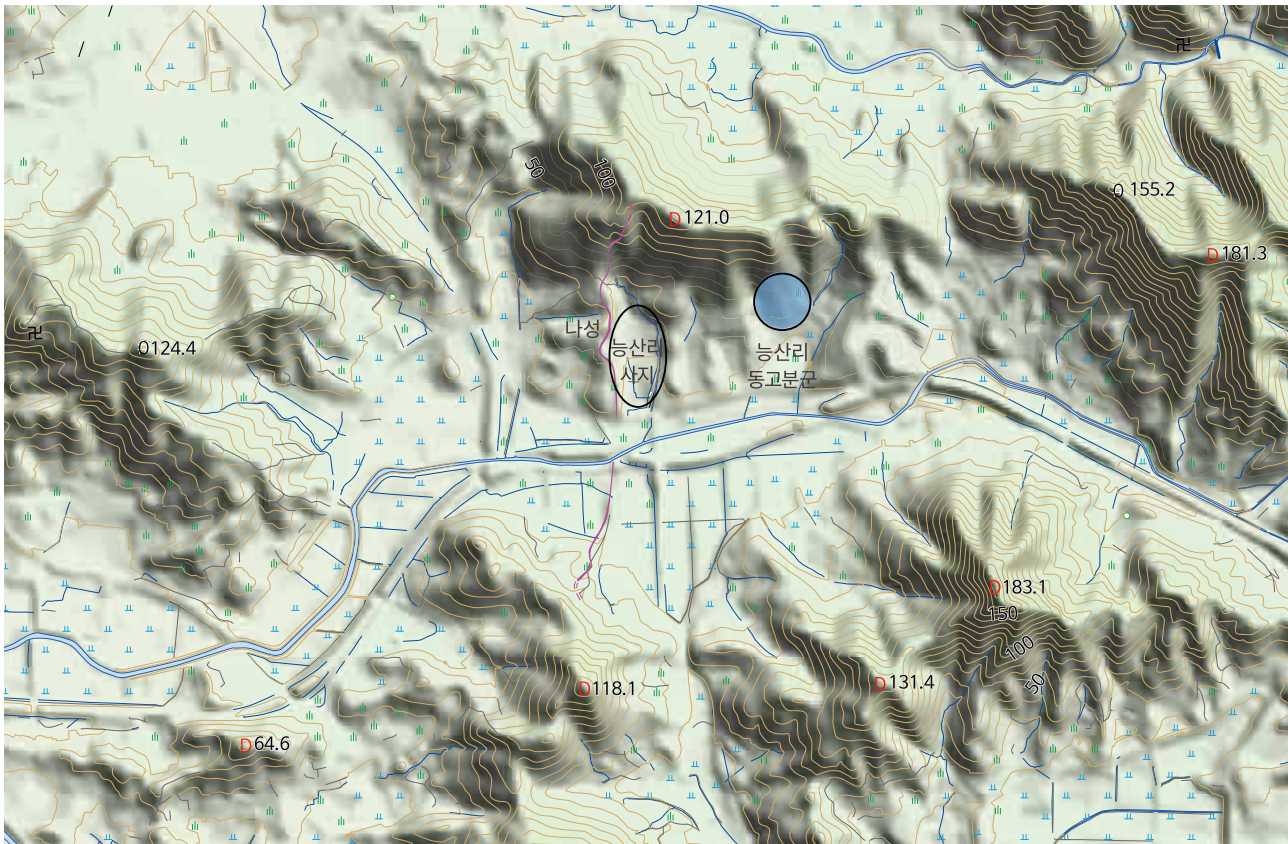
[도판 4]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일대 항공 사진

II. 부여 능산리의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¹⁾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은 행정구역상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5-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능산리 일대는 부여군의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리적 위치는 북위 36°27'82.64"~36°27'88.00", 동경 126°94'57.55"~126°94'65.44"에 해당한다. 능산리 북쪽에는 부여읍 용정리, 남쪽에는 부여읍 염창리·현북리, 동쪽에는 초촌면 신암리와 석성면 정각리, 서쪽에는 부여읍 쌍북리가탑리 등이 면하고 있다. 교통로를 따라 북쪽으로는 체마소 고개를 넘어 용정리로, 남쪽으로는 뜰뱅이 고개를 넘어 염창리로, 서쪽으로는 부여읍과 연결된다. 동쪽으로는 논산 지역과 연결되고 있어 일찍이 능산리 일대는 부여와 논산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인정되었다.

능산리의 북쪽에는 청마산성과 인접한 봉우리(해발 232.5m)를 시작으로 체마소 마을 뒤쪽 능선(해발 181.3m)과 능산리산을 거쳐 금성산까지 산세가 이어진다. 남쪽에는 오석산과 필서봉이 자리하고 있어 능산리 지역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으며, 이에 따라 능산리 일대는 마치 분지와 같은 지형을 보이고 있다. 능산리 중앙의 평지에는 부여-논산을 잇는 지경고개 부근에서 발원하여 능산리, 가탑리, 왕포리를 경유하고 중정리에서 금강으로 합류하는 왕포천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다. 부여군 일대는 해발고도 120~130m 내외의 구릉지에서 발원하여 금강으로 유입하는 소하천들이 곡저 평야를 다수 형성하였으며, 능산리 일대 역시 왕포천이 형성한 곡저 평야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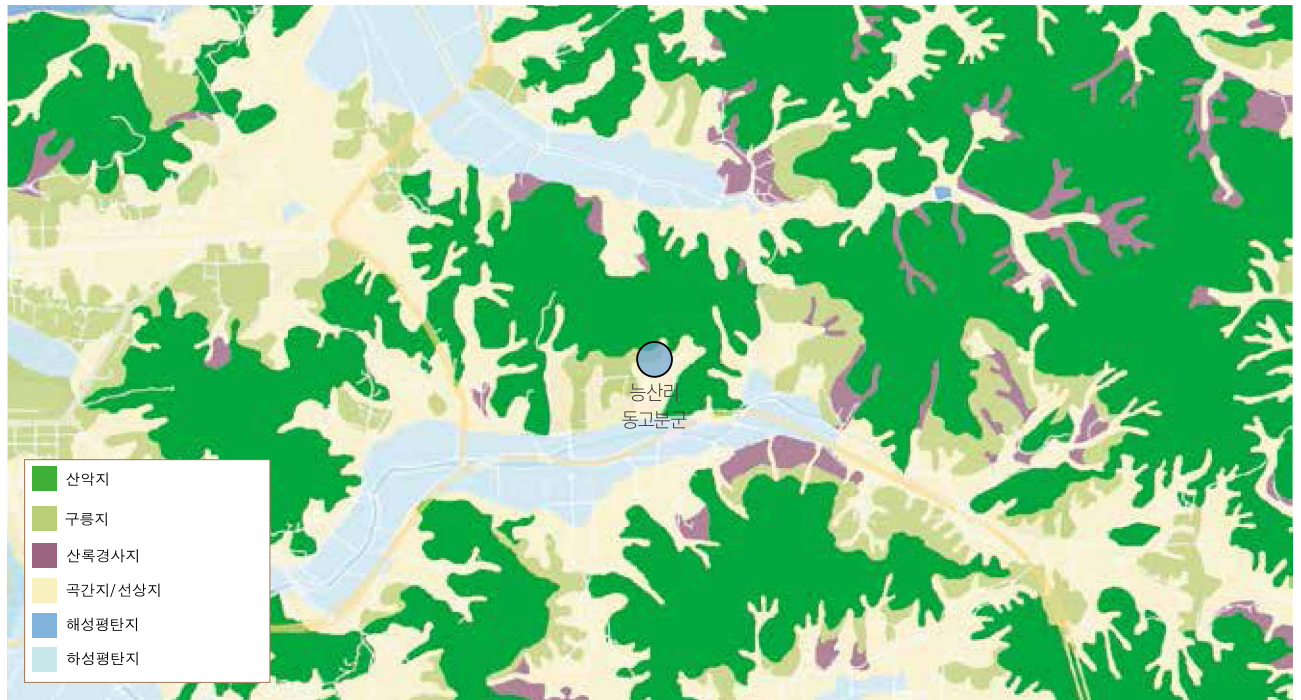


[도판 5] 부여 능산리 일대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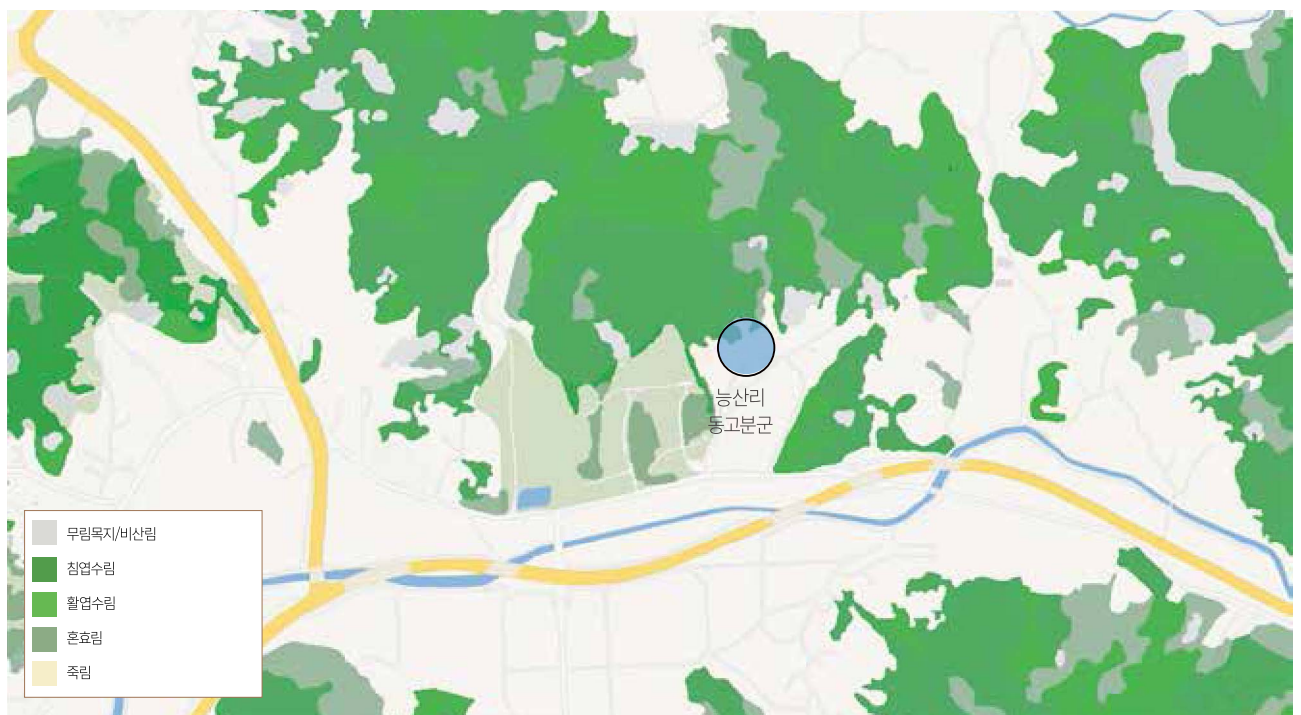
1. 국립부여박물관, 2000, 『陵寺』.
국립부여박물관, 2018, 『부여 능산리 1호(東下塚)』,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29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13, 『陵山里寺址 木橋址』.
백제고도문화재단, 2015, 『부여나성 동나성 I』.
윤순옥·김애선·황성일, 2016, 「충남 부여 능산리 총적평야의 홀로세 후기 고환경 변화」, 『한국지형학회지』 제23권 제3호, 한국지형학회.
부여군, 2017, 『부여 능산리고분군 조사 기록화사업 I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조사와 기록』.

능산리 일대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각섬석 화강암이 오석산을 중심으로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좁고 길게 분포한다. 능산리 일대는 분포 지형에 따라 산악지, 산록경사지, 구릉지, 곡간선상지, 해안평탄지, 내륙평탄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토의 토성은 산악지, 산록경사지, 구릉지, 곡간 선상지는 사양토, 내륙평탄지와 해안평탄지 일부는 양질사토와 양토로 이루어졌다. 심토는 산악지, 구릉지, 곡간선상지를 중심으로 석양질을 띠며, 산록경사지에서는 역질이 확인된다. 토양의 모재는 대부분 산성암이다.

능산리 고분군 주변에는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혼효림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며[도판 6], 고분군 뒤편으로 주로 리기다소나무가 넓게 분포한다[도판 7].



[도판 6] 부여 능산리 일대 지형 분포



[도판 7] 부여 능산리 일대 산림 지도

2. 고고학적 환경

1) 부여 능산리 사지

부여 능산리 사지는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 15-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사적 제434호로 지정되었다. 유적은 능산리산 남사면의 계곡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능산리 고분군, 서쪽으로는 동나성이 있다[도판8-①]. 1992년부터 2011년까지 국립부여박물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고고학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등에 의해 총 12차례의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²⁾. 발굴조사 결과, 부여 능산리 사지는 전형적인 백제 사찰 가람 양식인 일탑일금당식 구조로 밝혀졌다. 중문-탑-금당-강당이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되었으며 탑과 금당 주위에 회랑이 둘러져 있다. 금당과 강당 좌우에는 각각 두 동의 건물이 더 있으며, 이 가운데 서편의 건물은 사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이를 수리하였던 공방이었다. 강당 북쪽에도 몇 기의 건물 터가 발견되었으며, 승방과 같은 기타 부속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여 능산리 사찰은 탑과 금당이 먼저 축조되는 일반적인 고대 불교 사원과 달리 강당과 공방 등이 먼저 건립되었다. 초기 건물지군은 의례적인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이는 사찰 동편에 위치한 부여 능산리 고분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목탑과 금당, 중문, 회랑 등이 추가되면서 본격적인 불교 사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1995년 목탑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부여 능산리 사지 석조사리감(국보 제288호)이 발견되었다[도판 8-②]. 사리감에 새겨진 명문으로 이 사찰이 백제 왕실에서 발원한 왕실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사찰에서 능산리 고분군에 모신 백제 왕의 명복을 비는 의례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3년 능산리 사지 2차 발굴조사 중 공방지Ⅱ의 목곽 수조 안에서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가 발견되었다. 능산리 사지와 능산리 고분군의 공간적 분포, 능산리 사지 초기 건물지의 성격, 그리고 백제금동대향로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기술적 완성도, 그 안에 담겨있는 종교적 상징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백제금동대향로는 능산리 고분군에 모신 선왕先王을 위한 백제 왕실 제사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능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사찰의 관계는 고구려의 동명왕릉-정릉사와 비교되기도 한다. 능산리 사찰은 백제 멸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사되었다. 능산리 사찰의 기능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도판 8] ① 능산리 사지와 능산리 고분군, ② 능산리 사지 석조사리감(국보 제288호)

2) 국립부여박물관, 2000, 『능사-부여 능산리사지발굴조사 전진보고서』.
2007, 『능사-부여 능산리사지 6-8차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부여 능산리사지 10차 발굴조사보고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10, 『부여 능산리사지 9차 발굴조사보고서』.
2011, 『부여 능산리사지 11차 발굴조사보고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13, 『陵山里寺址 木橋址』.

2) 부여 동나성

부여 동나성은 백제 관방시설의 일부로 부여 능산리 고분군 및 능산리 사지의 서쪽에 위치한다. 백제는 사비도성 내 부소산성과 도성 외곽을 둘러싼 나성으로 구성된 이중의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나성은 사비도성의 외곽을 방어하는 동시에 도성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 짓는 경계의 기능을 하였으며, 그 길이는 6.6km 정도이다³. 나성은 사적 제58호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에 부여 능산리 고분군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나성의 동쪽 구간인 동나성은 부여 청산성 1문지에서 염창리 하염마을까지로, 그 일부가 능산리를 북-남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동나성은 1991년 이후 국립부여박물관,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충청문화재연구원, 백제고도문화재단 등에 의해 발굴조사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동나성 성벽 조사 등이 계속되고 있다⁴. 발굴조사로 동나성의 규모와 범위, 축성 방법 등을 확인하였으며, 성벽과 문지, 장대지 등이 조사되었다. 성벽은 지형과 장소에 따라 축조방법을 달리하였다. 동나성 능산리 구간의 경우 밀도가 치밀한 순수 점토를 외면에 쌓는 방식으로 토축하였다. 이후 토축부의 외면을 정리하고 그 외부에 석축을 하여 성벽을 견고히 하였다.

동나성에서는 문지門址가 조사되었다. 동문지 밖에 바로 능산리 사지와 능산리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도판 9] 부여 동나성 ① 항공 사진, ② 성벽, ③ 치雉 조사모습

3. 지표조사 혹은 발굴조사로 성벽의 실체가 확인된 북나성과 동나성의 길이이다.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3, 『부여나성 북나성 II』.
4. 국립부여박물관, 2003, 『부여나성』.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2000, 『백제사비나성 II』.
2002, 『백제사비나성 III』.
2003, 『사비나성』.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부여 능산리 동나성 내외부 백제유적』.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부여 능산리사지 10차 발굴조사보고서』.
충청문화재연구원, 2009, 『부여 석목리 나성유적』.
백제고도문화재단, 2015, 『부여나성 동나성 I』.
2015, 『부여나성 동나성 II』.
2017, 『부여나성(동나성) 4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3) 능산리 일대의 백제 고분

능산리 일대에서 다양한 백제 유적이 조사되었으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고분 유적이다. 능산리산 남사면 자락에는 1915년⁵과 1917년⁶ 일본인이 조사한 능산리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다. 능산리 고분군은 현재 7기가 분포하며, 1966년 긴급조사되었으나 복원이 되지 않은 능산리 1호 동하총^{東下塚}과 2호 중하총^{中下塚} 사이의 고분(8호)까지 포함하면 총 8기가 있었다. 능산리 고분군은 인근에 분포하는 다른 백제 고분에 비해 밀집도가 낮고 배치 양상도 비교적 일정한 편이다. 고분은 모두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위치하고, 횡구식석실로 추정되는 8호를 제외하면 모두 횡혈식석실분이다. 석실은 모두 정연하게 치석된 판석과 장대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석실의 단면 형태는 터널형, 방형, 육각형 등이 확인되나, 단면 육각형의 비율이 가장 높다. 현실은 장방형이며, 현문은 문틀식 구조이다. 현실 앞으로는 비교적 긴 연도가 연결되었다. 또한 일부 고분에서는 호석시설이 발견되었다. 능산리 고분군은 고분의 입지와 규모, 축조 방법, 출토 유물, 장식 기법 등을 고려할 때 백제 사비시기 왕릉군이 분명해 보인다.

부여 능산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능산리 동·서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다. 1938년 5기가 발굴조사된 능산리 동고분군⁷과 1917년에 2기가 발굴된 이래 최근 추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능산리 서고분군⁸은 고분의 구조와 규모, 축조방법 등이 능산리 고분군과 유사하다. 또한 석실 내부에서 출토된 목관 편이 수종 분석 결과, 금송으로 밝혀졌다. 금송으로 제작된 목관은 공주 무령왕릉, 부여 능산리 고분군, 익산 쌍릉 대왕릉 등에서 확인되어 웅진~사비시기 백제 왕실에서 사용한 것이다. 혈연적으로 백제 왕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백제 최고위층의 무덤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봉분의 규모와 석실의 구조, 석재의 선택 등에 있어 능산리 고분군에 비해 격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백제 사비시기 왕족의 무덤군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외에 체마리 대총⁹과 능산리 147-8번지 유적¹⁰ 등이 발굴조사되었으며, 능산리 고분군에서 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도 대규모 백제 고분군인 부여 능안골 고분군(사적 제420호)¹¹이 조사되었다. 지표조사에서 발견한 체마리 고분군, 청마산성 고분군, 깨방죽골 고분군, 오살미 고분군, 산막골 고분군¹² 등과 일제강점기에는 확인되었으나 현재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고분까지 포함하면 능산리 내 거의 모든 지역에 백제 고분이 산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여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백제 고분군 가운데 하나인 염창리 고분군이 능산리 인근에 위치한다¹³. 이처럼 동나성 밖 능산리 일대에는 백제 왕릉군을 비롯한 대규모 백제 고분군이 밀집 분포하며, 부여 외곽 지역의 백제 고분에 비해 규모와 구조, 축조 방법 등에 우위를 보여 위계가 높은 이들의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사비도성 경계에 해당하는 나성의 바깥 지역에 다수의 백제 고분군이 분포하는 데 반해, 나성 내부에서는 대규모 고분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비도성 내에는 산지가 적어 묘역을 조성할 만한 곳이 없기도 하지만 치밀한 계획 하에 사비 천도를 단행한 백제는 처음부터 나성을 기준으로 도성 내부와 외부의 성격을 다르게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도성 내는 행정·주거와 같은 생활 공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백제 왕릉군을 포함한 묘역 시설은 의도적으로 나성 밖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5.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Ⅲ』.

6.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7. 朝鮮古蹟研究會, 1938, 『昭和十二年古蹟調査報告』.

8.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16, 「부여 능산리 고분군(서고분군) 4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7, 「부여 능산리 고분군(서고분군) 5·6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8, 「부여 능산리 고분군(서고분군) 7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서현주 외, 2019, 『부여 능산리고분군 I | 서고분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부여군.

9.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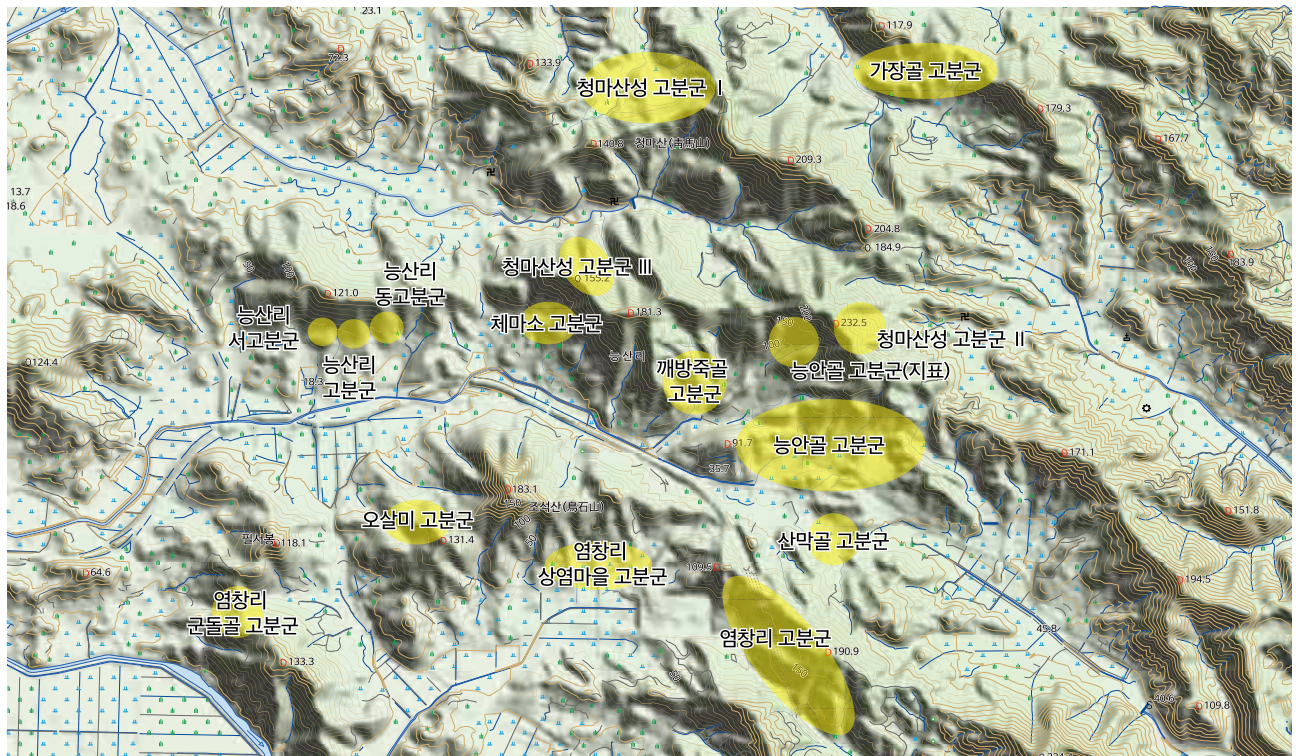
10. 공주대학교박물관, 2004, 『正覺里·陵山里古墳群』.

1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陵山里』.

백제고도문화재단, 2017, 「부여 능안골고분군 3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1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4, 『부여 백제고분 지표조사 I』.

13. 공주대학교박물관, 2003, 『염창리고분군』.



[도판 10] 부여 능산리 일대 백제 고분 분포도



[도판 11] 부여 능산리 일대 백제 고분

① 능산리 고분군, ② 능안골 고분군, ③ 능산리 동고분군(1938년, 건판 13503), ④ 능산리 일원 노출 석실(1915년, 건판 04169)





Ⅲ.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조사 내용

1. 일제강점기 부여 능산리 일대
왕릉 조사와 능산리 동고분군
2.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의 입지와
고분의 분포
3. 조사 내용
 - 1) 1호분
 - 2) 2호분
 - 3) 3호분
 - 4) 4호분
 - 5) 5호분

Ⅳ. 맺음말

III.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조사 내용

1. 일제강점기 부여 능산리 일대 왕릉 조사와 능산리 동고분군

20세기 초 한반도를 침략한 일본은 정치·경제·군사적 탄압과 동시에 조선 민중에 대한 정신적 지배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으로 조선의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고적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백제의 고도^{고도}였던 부여 역시 일찍이 일본인들의 주요 조사 대상지였다. 이들은 일본 고대 문화의 원류를 백제에 두었으며, 백제 문화에서 일본 고대 문화의 흔적을 찾고자 부여지역의 백제 유적을 조사하였다. 백제 왕실의 고분 역시 이들의 조사 목표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¹⁴.

백제 사비시기 왕릉급 고분의 최초 조사는 1915년 7월에 실시된 부여 능산리 고분군 조사이다. 도쿄제국대학의 명을 받아 1914년부터 한반도 남부지역을 조사 중이던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¹⁵는 1915년 7월 9일부터 부여 능산리 일대에 분포하는 대형 고분을 조사하였다¹⁶. 그리고 7월 15일 별도의 조사단을 이끌고 뒤늦게 부여에 도착한 세키노 다다시^{関野貞} 역시 능산리의 고분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사비도성의 동쪽에 위치한 능산리산 남사면 하단부에서 6기의 왕릉급 고분을 확인하였으며, 각각 동하총^{東下塚}, 중하총^{中下塚}, 서하총^{西下塚}, 서상총^{西上塚}, 중상총^{中上塚}, 동상총^{東上塚}으로 명명하였다[도판 13]. 이 가운데 구로이타 가쓰미가 중하총과 서하총을, 세키노 다다시가 중상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모두 봉분 지름 20~30m 정도의 대형 고분으로 지하에는 매장주체부 시설로 횡혈식 석실을 1기씩 두었다. 고분은 이미 모두 도굴되어 목관 편과 목관 등을 장식한 금속품 일부만 남았으며, 피장자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분의 규모와 구조, 분포 양상, 출토품의 수준 등을 토대로 이 고분군을 백제 사비시기 왕릉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전 왕릉 傳 王陵’ 등으로 명명하였다. 이 외에도 이들은 능산리 일대에 분포하는 전상총^{塋床塚}, 할석총^{割石塚}, 횡혈묘^{橫穴墓} 등을 공동조사 하였다[도판 14]. 당시 촬영된 사진과 실측도면 등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朝鮮古蹟圖譜 三』(1916년 발간)에 수록하였으나[도판 12], 정식보고서는 발간하지 않았다.

백제 사비시기 왕릉급 고분에 대한 두 번째 조사는 1917년에 이루어졌다. 1915년에 발견한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고분 6기 가운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하총, 서상총, 동상총을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등이 조사하였다. 1917년 능산리 고분군 조사는 1915년 조사와 달리, 조선총독부가 조직한 고적조사위원회에서 진행하였다. 1916년 7월 조선총독부는 기존 조사된 한반도 내 고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 등을 마련하였다¹⁷. 당시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반도 내 고적 조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조선 통치와 조선 민중 통제에 문화적 지배까지 염두에 두고 내린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1916년 4월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고적조사를 위해 총독부 산하에 고적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191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고적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고적조사위원회에 조사비를 지급하여 유적·유물의 조사와 수집, 보존, 등록, 출판 등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4. 국립부여박물관, 2015, 『夫餘 定林寺址』,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15집, 14쪽.

국립부여박물관, 2018, 『부여 능산리 1호(東下塚)』,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29집, 24쪽.

15.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에 참여한 인명의 표기법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의 조선총독부박물관 고적조사 인명 목록을 참고하였다.

16.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발견과 1915년 구로이타 가쓰미·세키노 다다시의 능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경과는 아래의 자료 및 연구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谷井濟一, 1914, 『彙報 朝鮮扶餘に於ける百濟の墳墓』, 『考古學雜誌』第4卷 第3號.

関野貞, 1915, 『百濟の遺蹟』, 『考古學雜誌』第6卷 第3號.

1915, 『新羅及び扶餘の古墳』, 『雜誌 朝鮮及滿洲』.

梅原未治, 1947, 『百濟の古墳制』, 『朝鮮古代の墓制』, 座右實刊行會.

1972, 『朝鮮古代の文化』, 國書刊行會.

黑板勝美, 1974, 『朝鮮事蹟遺物調査復命書』, 『黑板勝美先生文集』, 吉川弘文館.

有光敏一, 1979, 『扶余陵山里伝百濟王陵「益山双陵」』, 『檀原考古研究所論集』4, 奈良県立檀原考古研究所.

高橋潔, 2001, 『関野貞を中心として朝鮮古墳 調査旅程:1909~1915』, 『考古學史研究』9.

内田好昭, 2001, 『日本統治下の朝鮮半島における考古學的發掘調査』, 『考古學史研究』9.

이병호, 2009, 『일제강점기 부여 지역의 고적 조사』, 『일제강점기의 사비 인식』,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関野貞, 2009, 『関野貞日記』, 中央公論美術出版.

정상기, 2009, 『일제강점기 자료로 본 송산리와 능산리 고분군』, 『東垣學術文集』第10輯, 한국고고미술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백제의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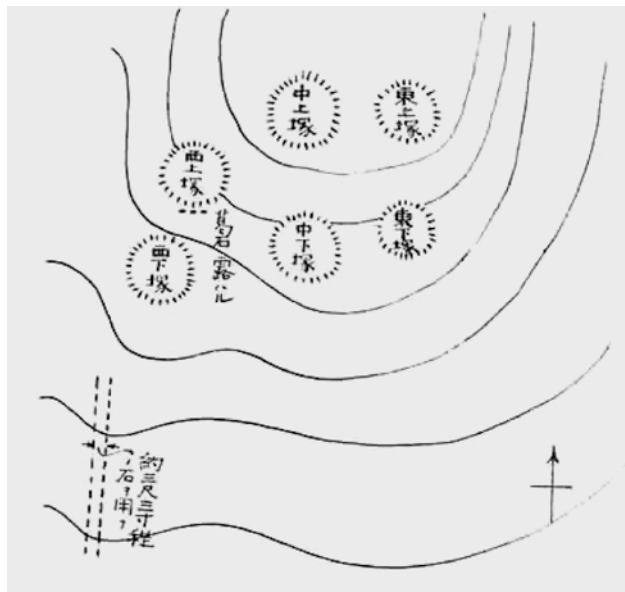
김규운·양숙자, 2016, 『부여 능산리고분군 성격에 대한 재고』, 『문화재』, 49-2호.

부여군, 2017, 『부여 능산리고분군 조사 기록화사업 I - 부여 능산리고분군의 조사와 기록』.

17. 1916년 7월 4일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관보』에 부령 제52호 「보존규칙」, 훈령 제29호 「고적조사위원회규정」, 훈령 제30호 「고적 및 유물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다.



[도판 12] 『朝鮮古蹟圖譜 三』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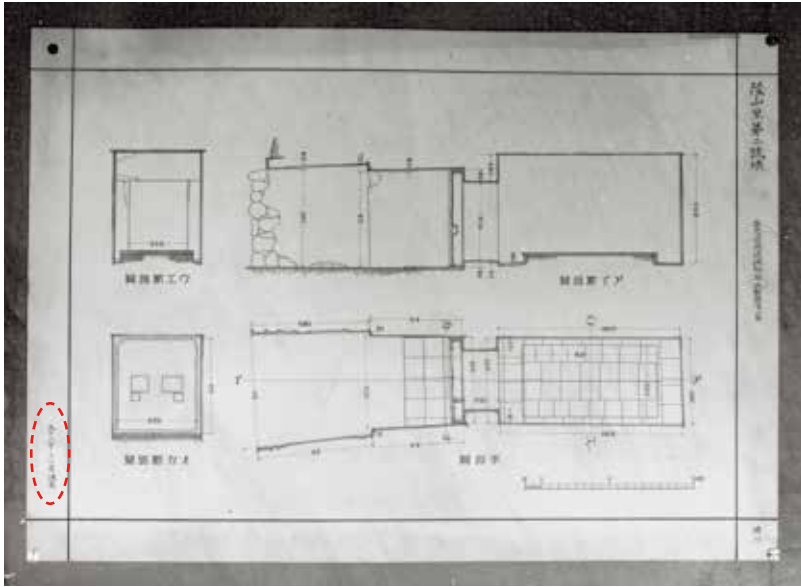
[도판 13]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분포도(『朝鮮古蹟圖譜 三』)



[도판 14] 1915년 부여 능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① 2호 중하층 연도 폐쇄(건판 27024), ② 3호 서하층 현실(건판 27225), ③ 능산리 일대 석실 노출(건판 04169), ④ 5호 중상층 현실(건판 27224)

그러나 1917년 고적조사위원회가 실시한 능산리 고분군 조사 역시 그 내용과 성과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조사 일정과 내용 등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1917년 부여 능산리 고분군 조사 시기에 대해서 1917년 4월설¹⁸, 9~10월 사이설¹⁹, 11월설²⁰ 등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몇 가지 자료를 토대로 대략적인 조사 시점을 추적할 있다. 조사 당시 제도된 능산리 1호 동하총²¹의 석실 실측 도면에 ‘大正六年十一月調査’라고 주기되어 있으며[도판 15], 노모리 겐野守健이 작성한「야쓰이 위원 조사 수집품 목록」(문서 F137-003-006-001)에는 능산리 4호 서상총과 9·10호(이상 능산리 서고분군)가 大正 6년 11월에 조사하였다고 기록되었다. 또한 1920년 10월 조선총독부가 능산리 1호 동하총 석실 내에 세운 ‘忠淸南道扶餘郡扶餘面陵山里第二號墳’ 표석에도 능산리 1호 동하총이 大正 6년 11월에 조사되었음을 밝히고 있다[도판 16]. 따라서 동하총을 포함한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조사는 1917년 11월에 완료된 것이 분명하다.



[도판 15] 능산리 1호 동하총 석실 실측도면 사진(건판 21163)



[도판 16] 1920년 설치 능산리 1호 동하총 표석(건판 05787)

그러나 1917년 부여 능산리 고분군 조사 시기와 관련한 또 다른 일제강점기 자료들이 주목된다. 야쓰이 세이이치가 1917년 고적조사를 완료하고 1918년 1월에 제출한 복명서에는 능산리 1호 동하총 석실 내에서 벽화를 발견하였으며, 조사 기간 중 이에 대한 모사 작업을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 모사작업은 당시 능산리 1호 동하총 조사에 참여하였던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가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복명서에 기록된 그의 조사 참여 시점이 주목된다. 야쓰이 세이이치를 비롯한 다른 조사단원은 1917년 9월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조사를 시작한 데 반해, 오바 쓰네키치는 10월 27일에 이르러서야 조사단에 합류하였다[표 1]. 이는 능산리 1호 동하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실 내부에서 벽화를 발견하였고, 이를 모사하기 위해 당시 모사 전문가 오바 쓰네키치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917년 가을 오바 쓰네키치는 고구려 천왕지신총 벽화를 모사하기 위해 평안남도 순천시 북창리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능산리 1호 동하총 조사는 10월 중·하순에 시작되어 11월에 완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8. 서현주 외, 2019, 『부여 능산리고분군 I | 서고분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부여군, 29쪽.

19. 국립중앙박물관,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백제의 고분』.

20. 부여군, 2017, 『부여 능산리고분군 조사 기록화사업 I - 부여 능산리고분군의 조사와 기록』, 62쪽.

21.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능산리 고분군 6기는 각각 세부 번호가 지정되었으나, 여러 차례 변경되어 주의를 요한다. 본 보고서는 문화재청의 안을 따라, 동하총을 1호, 중하총을 2호, 서하총을 3호, 서상총을 4호, 중상총을 5호, 동상총을 6호로 하였다.

22. 1917년 야쓰이 세이이치는 동하총을 동상총에 이어 2호로 지정하였다.

[표 1] 1918년 제출 야쓰이 세이이치 복명서 내 조사단 구성(문서 F001-018-00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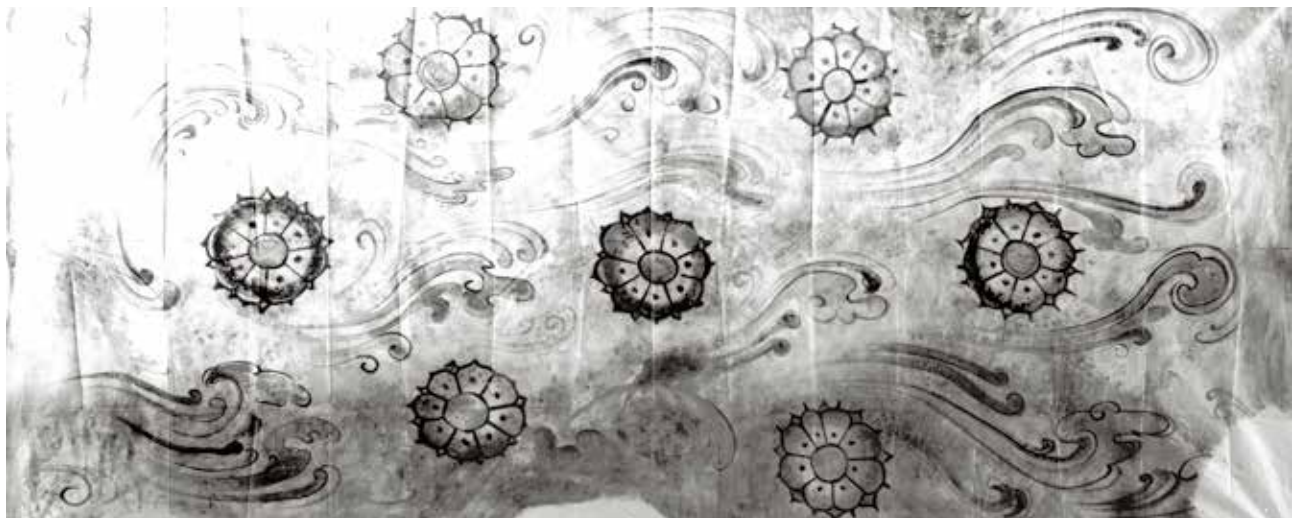
성명	출발일시	귀임일시	지방
야쓰이 세이이치	1917.9.21.	1917.12.27.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오바 쓰네키치	1917.10.27.	1917.12.27.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오가와 게이키치	1917.9.27.	1917.12.27.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노모리 겐	1917.9.21.	1917.11.22.	경기도, 충청남도

오바 쓰네키치가 모사한 능산리 1호 동하층 천장의 연화운문 벽화는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진열되었으며[도판 17], 이를 설명하는 원고가 작성되었다. 1921년 작성 『진열품 설명자료』의 ‘벽화’ 원고에는 ‘大正 6년 10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원이 이것을 발굴해보니...’라는 내용이 있다[표 2]. 따라서 1917년 능산리 고분군 조사는 10월 중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으로 11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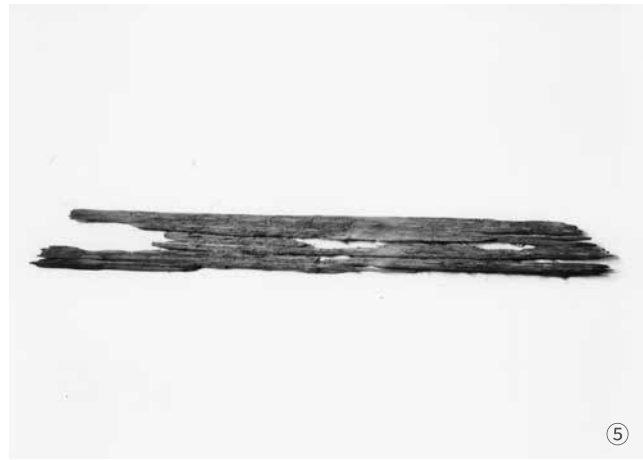
[표 2] 1921년 작성 『진열품 설명자료』의 ‘벽화’(문서 D022-004-007-002)



「충남 부여군 부여면 능산리 제2호분²²의 천장에 그려진 그림을 모사한 것으로 구름과 연꽃을 그린 후 채색하였다. 부여는 백제의 옛 땅으로 성왕이 웅천에서 옮겨와 위덕왕, 혜왕, 법왕, 무왕의 다섯 대를 거쳐 의자왕에 이르기까지 123년 동안 도성이었다. 이 분묘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백제 왕릉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대정 6년 10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원이 이것을 발굴해보니, 구전된 전설에 의심이 없는 것이 밝혀졌다. 봉토는 대부분 유실되어 남아 있지 않았으나, 폭 5척, 길이 10척8촌, 높이 6척4촌의 석실과 폭 6척2촌, 길이 12척, 높이 6척9촌의 연도가 설치되었으며, 천장은 한 장의 화강암을 사용해 덮는데 가로(빈칸)척, 세로(빈칸)척이다. 그림은 석재 표면에 직접 착색하여 그렸다. 네 벽에 사신四神을 그린 백제 회화가 발견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도판 17] 능산리 1호 동하층 천장 연화운문 벽화 모사도(오바 쓰네키치 모사 추정, 건판 15824)



[도판 18] 1917년 부여 능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① 1호 동하층 현실 폐쇄(건판 23229), ② 4호 서상층 현실, ③ 6호 동상층 현실(이상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④ 10호 출토 두개골(건판 05086), ⑤ 10호 출토 목관 편(건판 27753), ⑥ 1호 동하층 출토 목관의 조선총독부박물관 진열 모습(건판 24808), ⑦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표지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조사 결과, 3기 모두 전형적인 백제 후기 황혈식석실분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능산리 1호 동하층에서는 백제지역에서 처음으로 고분벽화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오바 쓰네키치가 벽화의 모사작업을 실시하였으며[도판 17], 천장의 연화 운문 벽화 모사도를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전시하였다[표 2]. 또한 석실 내부에서 전면에 옷칠이 칠해지고 마구리 부분은 화려한 금동 판 장식이 있는 목관의 일부가 발견되어 익산 쌍릉 대왕릉 출토 목관과 함께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진열되었다. 1917년 조사에서 고분군의 서쪽 구릉에서 고분 4기를 추가로 발견하였으며, 능산리 고분군 6기에 이어 7~10호라는 세부 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9호와 10호를 조사하였으며²³, 10호에서 목관 판과 두개골 등을 발견하였다[도판 18-④⑤]. 그러나 고분군의 위상과 학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917년 야쓰이 세이이치의 부여 능산리 고분군 조사 역시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²⁴. 1920년에 발간된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에 부여 능산리 고분군 조사 내용을 일부 보고하였으나[도판 18-㉔], 그 내용이 매우 소략하여 조사의 경과, 내용, 성과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야쓰이 세이이치는 능산리 1호 동하층에서 발견된 고분벽화가 백제의 높은 문화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천하일품의 작품이고 일본 회화의 원류를 찾는 이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평가하면서 보고서 말미에 추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부여 능산리 고분군을 비롯한 백제 왕릉 조사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는 없었다²⁵.

1917년 능산리 고분군 조사 이후, 백제 사비시기 왕릉 조사를 비롯하여 부여지역의 고적조사는 한동안 부진하였다. 1920년대 초 조선총독부 내에 한반도 고적조사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를 통합하기도 하였으나, 1924년 이후 재정 긴축 등의 이유로 관련 부서가 폐지되면서 고적조사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존 조사 및 보고된 고적에 대해서는 시찰, 관리, 보존 정비사업 등이 지속되었다. 부여지역은 정림사지오층석탑과 함께 능산리 고분군이 주요 관리 대상이었다. 특히 백제지역에서 처음 고분벽화가 발견된 능산리 1호 동하층은 1920년에 대대적인 정비와 보호시설 설치작업이 이루어졌다[도판 19-①]. 이때 고분벽화의 관리 및 연구를 목적으로 출입문과 전실 공간을 설치하여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21년 오하라 도시다케大原利武가 능산리 고분군을 시찰하였으며, 능산리 1호 동하층 석실 내부의 습도가 높고 결로 현상이 심한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제시하였다[도판 19-②]. 1917년 능산리 고분군 조사에 참여하였던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역시 1921년에 논산 개태사지와 부여 무량사 등을 조사하면서 능산리 1호 동하층을 시찰하고 고분의 상태 등을 사진 촬영한 후 이를 보고하였다. 1922년에는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등이 부여지역을 방문하여 정림사지오층석탑과 능산리 고분군 등을 시찰하였다. 능산리 1호 동하층의 보존 설비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1924년 발간)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1923년 가을에는 1915년 능산리 고분군 중상층을 조사하였던 세키노 다다시가 능산리 고분군을 재방문하여 능산리 1호 동하층 석실의 구조와 관대 설치 방법, 문비석 형태 등을 조사하였다.

1927년에는 능산리 1호 동하층에 대한 재정비 작업을 실시하였다. 백제 왕릉을 관람하기 위해 능산리 고분군을 찾는 이들이 많았으며 일부는 무단으로 내부에 들어가는 일도 발생하여 보호시설이 파손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부여군과 충청남도 1927년 1월에 출입문 및 보호시설 수리에 필요한 예산을 조선총독부에 요청한 후 수리를 완료하였다.

1930년에는 가야모토 가메지로樫本龜次郎 등이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여와 경주지역에 분포하는 고적의 보존 상황을 시찰하였다. 이들은 당시 정림사지오층석탑의 보호시설이 파괴된 것을 확인하였고, 능산리 1호 동하층 석실 내부의 습도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가야모토는 여전히 능산리 1호 동하층 석실 내부의 결로 현상이 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벽화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신속한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1932년 가야모토 가메지로와 간다 소조神田惣藏은 고적의 보존 상태를 시찰하기 위해 부여를 방문하였으며, 능산리 1호 동하층 현실 내부의 관대 전방부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였는데도[도판 19-③].

한반도 고적조사사업은 1931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1931년 구로이타 가쓰미는 각계의 후원을 얻어 조선고적연구회를 설립하였으며, 기존 고적조사위원회를 대신하여 한반도 내 고적 조사와 보고서 출판 등의 고적조사사업을 주도하였다. 조선고적연구회는 경주와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고적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에 경주연구소, 평양부립박물관에는

23. 능산리 고분군 서편 구릉에서 발견한 4기의 고분을 일반적으로 능산리 서고분군이라 부른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2016~2018년에 재발굴하였으며, 이때 1917년에 지정된 능산리 서고분군의 세부 번호를 7호→4호, 8호→1호, 9호→3호, 10호→2호로 재지정하였다.

24. 이에 2018년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일제강점기 부여 능산리 1호 동하층 조사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출토품을 재정리 및 자연과학 분석하여 정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립부여박물관, 2018, 『부여 능산리 1호(東下塚)』,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29집.

25. 1921년 고향 와카야마에 계신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돌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정인성, 2015, 『야쓰이 세이이치와 고적 촬영』,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의 재조명』 학술대회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도판 19] 1920~30년대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보존·관리 ① 1호 동하층 정비 완료 모습(1920년, 건판 05786), ② 오하라 도시다케 능산리 고분군 시찰 보고서(1921년, 문서 F003-011-001-001) ③ 가야모토 가메지로·간다 소조 시찰 북영서 수록 사진(1932년, 건판 38089)

평양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35년에는 고적조사의 범위를 백제 고지²⁶까지 확대하여 부여고적보존회가 운영하던 부여진열관 내에 백제연구소를 두고, 부여, 공주, 익산 일대의 백제 유적을 조사하였다. 기부금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선고적연구회는 1933년부터 일본 학술진흥회의 보조금과 궁내성의 하사금을 확보하였고, 1934년부터는 이왕가의 하사금도 받으면서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했다²⁶.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적조사 범위도 기존 경주와 평양 중심에서 부여를 포함한 백제지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 고적연구회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전임 연구원을 두는 대신, 수시로 박물관 및 대학의 연구 인력을 조사원으로 위촉하여 고적조사를 진행하였다²⁷.

1935년 부여진열관 내에 백제연구소가 설치되면서 부여지역 고적조사사업도 다시 활기를 띠었다. 1930년대 부여지역 고적조사는 대부분 백제 사찰유적 중심이었다. 이에 따라 1935년과 1936년에 군수리 사지가, 1937년에는 외리 사지가 조사되었다. 이후에도 동남리 사지와 가탑리 사지(이상 1939년), 부소산 사지, 정림사지(이상 1942년), 구아리 사지(1942~1943년), 구교리 사지(1943년) 등이 조사되었다[표 3]. 이처럼 백제 사찰유적 중심으로 부여지역 고적조사가 진행되던 중, 1938년에 백제 사비시기 왕릉원인 능산리 고분군의 동쪽에서 능산리 동고분군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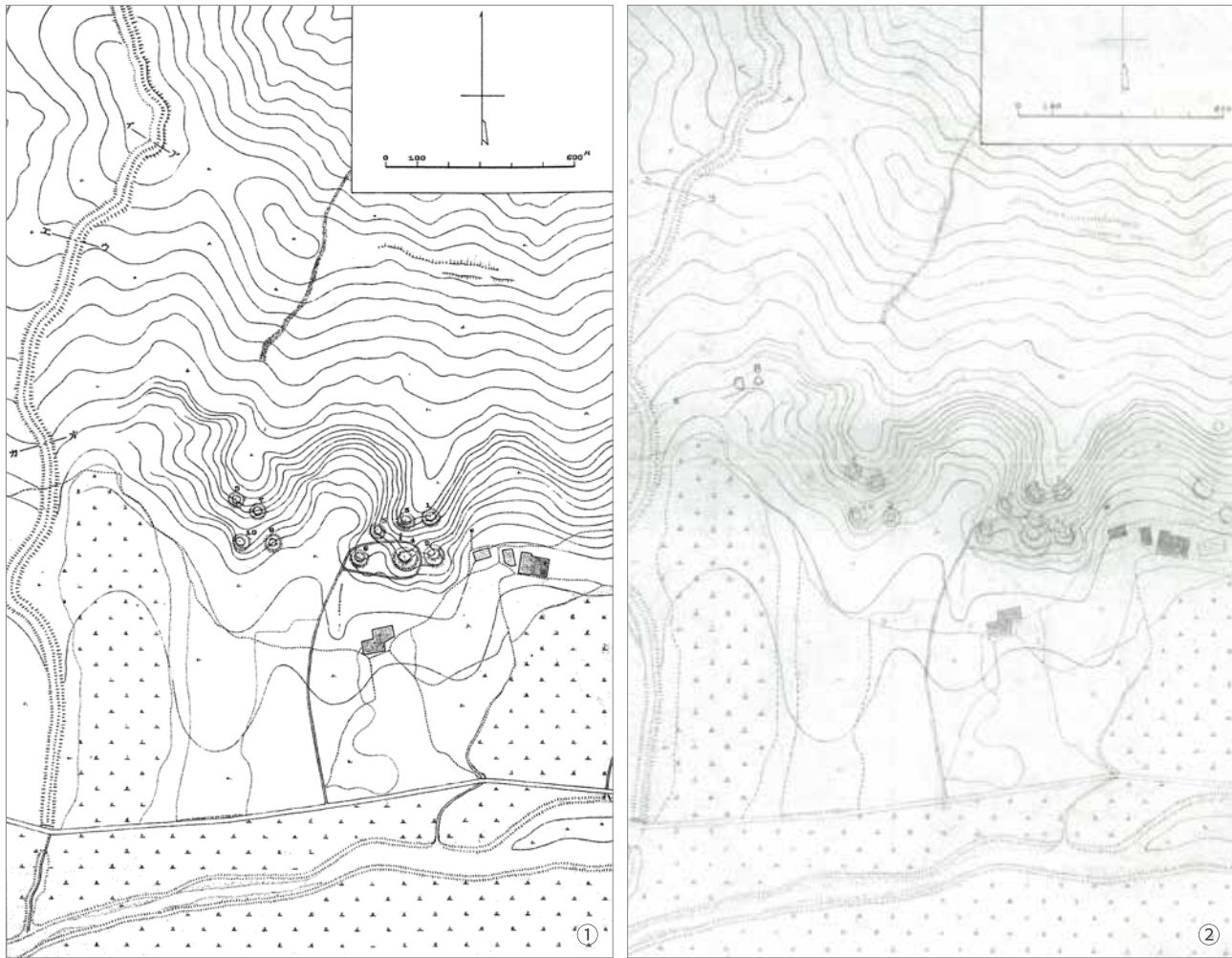
[표 3] 일제강점기 부여지역 주요 고적조사

연도	유적	조사자	재조사
1915~17년	능산리 고분군	구로이타 가쓰미, 세키노 다다시, 야쓰이 세이이치	
1935~36년	군수리 사지	이시다 모사쿠石田茂作	2005~2011년
1937년	외리 사지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 요네다 미요지米田美代治	
1938년	능산리 동고분군	우메하라 스에지	
1939년	동남리 사지	이시다 모사쿠	1994년
1939년	가탑리 사지	이시다 모사쿠	
1942년	부소산 사지	후지사와 가즈오藤澤一夫, 요네다 미요지	1980년
1942년	구아리사지(심초석)	후지사와 가즈오	1992~1993년
1942년	정림사지	후지사와 가즈오	1979년~/10차
1943년	구교리 사지	후지사와 가즈오	
1943년	금성산 사지	후지사와 가즈오	1989년
1943년	구아리 사지(부여경찰서)	후지사와 가즈오	1992~1993년

능산리 동고분군의 최초 발견 시점은 불분명하다. 1917년 능산리 고분군 조사 때 고분군 서쪽에서 4기의 백제 고분을 추가로 확인하였으나(능산리 서고분군) 동쪽에서 백제 고분을 발견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1923년 4월에 제작된 ‘부여 능산리 고분군 배치도’에도 능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서고분군은 표시되었으나, 능산리 동고분군이 위치한 지점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도판 20-①]. 따라서 1923년 4월까지 능산리 동고분군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기존 능산리 고분군과 서고분군이 표시된 분포도에 능산리 동고분군이 추가된 도면이 확인되었다[도판 20-②]. 조사가 완료된 능산리 고분군 등은 표시가 명확하고 고분의 세부 번호도 표기된 데 반해, 능산리 동고분군의 표시는 희미하고 고분의 위치도 실제와 차이를 보여 능산리 동고분군 조사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23~38년 사이에 능산리 동고분군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1935년 조선고적연구회가 부여진열관 내에 백제연구소를 설립하면서 1915년과 1917년에 이어 다시 한번 백제 왕릉급 고분군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6. 오영찬, 2011,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韓國文化』55, 239~241쪽.

27. 이병호, 2015, 「부여 지역 폐사지 조사와 식민지 고고학자」,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의 재조명』학술대회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68~69쪽.



[도판 20] 부여 능산리 일대 고분군 분포도 ① 1923년 4월 작성(도면 S006-006-007-1), ② 1920~30년대 작성 추정(도면 S006-006-006-1)

능산리 동고분군은 1938년 4월 3일부터 15일까지 우메하라 스에지 등이 조사하였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능산리 동고분군이 1937년에 조사된 것으로 소개되었다. 이는 능산리 동고분군의 조사 보고가 1938년 간행된 『昭和十二年古蹟調査報告(소화12년도고적조사보고)』에 수록되어 자연스럽게 능산리 동고분군 조사도 ‘昭和十二年’인 1937년에 실시된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그러나 『昭和十二年古蹟調査報告』의 능산리 고분군 조사 내용, 조사 당시 작성된 조사 일지와 출토품 기록카드, 출토품에 표기된 문서 내용 등을 토대로 1938년에 조사된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단은 우메하라 스에지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박물관 촉탁인 사와 순이치(澤俊一)와 규슈제국대학 법문학부 강사인 카가미야마 타케시(鏡山猛)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교토제국대학 사학과 학생이었던 오카자키 유이치(岡崎卯一)도 참여하였다. 우메하라 스에지가 전체적인 조사 진행과 행정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서 고분 측량과 석실 실측 등 도면 작성 작업을 전담하였다. 우메하라 스에지는 대학에 입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토제국대학 열품실 정리원으로 근무하다가 교수까지 된 인물이다. 일찍이 유적답사와 고고자료 연구 등에 관심이 컸던 우메하라 스에지는 우연한 기회에 세키노 다다시, 다카하시 겐지(高橋健自), 야쓰이 세이이치 등과 교류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는 향후 한반도 고적조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세키노 다다시, 야쓰이 세이이치,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등이 실시한 고적조사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특히 유구·유물의 실측 및 탁본 실력이 매우 탁월하였다²⁸. 대학을 나오지 않은 그가 다수의 한반도 내 고적 조사와 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고,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도 실측 기술을 포함한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추었기에 가능했다. 능산리 동고분군 석실 실측도면의 대부분은 그가 작성한 것이며, 고분 분포도

28. 장인성, 2015년, 「100년 전의 나주 반남면 고분과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제 3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168~169쪽.

와 봉분 실측도 역시 그의 주도 아래 작성되었다. 유일하게 2호분 석실만 카카미야마 타케시가 실측하였다. 현장에서의 사진 촬영은 사와 순이^{澤俊一}가 전담하였다. 한반도 고적조사 초기부터 활동한 사진 촬영 전문가로, 『朝鮮古蹟圖譜^{조선고적도보}』와 『古蹟調査報告^{고적조사보고}』 수록 사진의 상당수가 그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 조사는 4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나, 실제 조사는 11일간 이루어졌다. 조사 첫날인 4월 3일은 오전에 내린 비로 조사 전 유적 상황을 점검하기만 하였으며, 4월 14일 역시 우천으로 오전에 복토작업만 일부 진행되고, 현장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²⁹. 조사는 오전 9시 전후에 시작하여 오후 5~6시에 종료되었으나,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찍 마무리되기도 하였다. 인부는 작업량에 따라 적게는 3명, 많게는 12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단은 매일 인부 수와 작업 내용, 그에 따른 임금 등을 일지에 기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인부는 연인원 134인이 투입되었으며, 이 가운데 12인은 야간 근무이다. 야간 근무는 유적 및 출토품 보호를 위한 야간 경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안전한 현장 조사와 성공적인 조사 성과를 기원하며 조사 초반인 4월 7일 위령제를 실시하였다[도판 21]. 당시 부여군수와 부여경찰서장 등도 참여한 것으로 보아 능산리 동고분군 조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도판 21] 1938년 4월 7일 실시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위령제(건판 13504)

전체적으로 각 고분의 조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봉분의 외형을 실측 및 사진 촬영 한 후, 제토 작업과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 제토 중 묘광 선이나 매장주체부의 일부를 확인하면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먼저 묘도와 석실의 연도 전방부를 노출시켰다. 묘도 구조와 석실 폐쇄방법 등을 조사하고 실측 및 사진 촬영 후 연도를 통해 석실 내부로 진입하여 현실 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3호분의 경우 석실 천장이 드러나고 그 사이를 현실 내부가 노출된 상태였으며, 출토품의 절도 미수 사건도 벌어져서 먼저 현실 내부 조

29. 우메하라 스에지 역시 보고서의 조사 개요 말미에 11일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사를 실시한 후 연도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사와 순이치 사진 촬영을 하고, 우메하라 스에지가 봉분과 석실을 실측하였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카가미야마 타케시가 실측 및 측량작업을 지원하였다³⁰.

현장 조사는 여러 기의 고분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복수의 고분 내부 조사와 실측, 사진 촬영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후반에는 복토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인부도 유기적으로 분배하였는데, 이를 사와 순이치가 담당하였다. 조사단은 매일 조사일지와 출토품 기록카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³¹. 사전에 준비한 양식에 맞춰 조사 날짜, 날씨, 인부의 수·내용·임금, 참여 조사원, 조사 내용, 수습 유물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였다. 조사 내용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날에 실시하였더라도 고분마다 개별 일지를 작성하였다. 조사 일지는 기본적으로 조사책임자인 우메하라 스에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5일은 우메하라 스에지가 충남도청 출장으로 현장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조사 일지도 다른 조사원이 작성하였다. 출토품 기록카드에는 수습 날짜, 유물 연번과 유물명, 출토 위치, 처리방법, 출토상태, 제원, 특징, 보존 처리방법 등을 기록하였다. 대부분 출토품의 간단한 약실측과 함께 특징 등을 메모하였다. 당시 현장 조사를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현장 상황과 조사 내용 등을 자세히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능산리 동고분군 조사는 1915년과 1917년의 능산리 고분군 조사와 달리 조사 내용과 성과 등이 사진, 도면 등과 함께 비교적 상세히 보고되었다. 바로 이러한 생생한 현장의 기록들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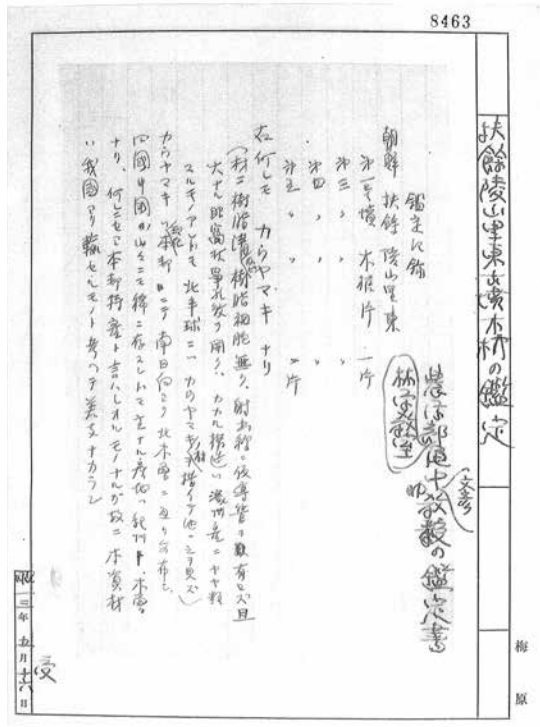
비록 고분은 모두 도굴되었지만, 석실 내부와 도굴갱 등에서 다양한 잔존품을 수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호분에서는 정교하게 제작된 금제품과 옥제품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많은 유물이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출토품 기록카드와 우메하라 스에지가 현장 조사 완료 다음날인 4월 16일에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에게 보낸 편지 등에 분석이나 복원 등을 이유로 능산리 동고분군 출토품을 반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메하라 스에지는 능산리 동고분군 발굴조사 이후 석실 내부에서 수습한 목관 편에 대한 수종분석을 교토제국대학 농학부 조교 수 오나가 후미오(尾中文彦)에게 의뢰하였다³². 분석 결과, 목관 시료는 모두 금송으로 밝혀졌다[도판 22-①]. 백제 왕실이 사용한 목관이 금송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기존 조사된 능산리 고분군 동하층, 서상층, 10호분(서고분군 2호)과 익산 쌍릉 대왕릉 출토 목관 편 등에 대해서도 수종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금송으로 판명되었다[도판 22-②].

30.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에 수록되지 않은 도면과 사진 등을 <東洋文庫 梅原考古写真資料庫 동양문고 우메하라고고사진자료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 이들 분량의 조사 내용이 한꺼번에 작성한 예도 보인다. 이는 복수의 고분을 동시에 조사하고 각 고분의 일지도 개별로 작성함에 따라 일부 누락한 부분을 다음날 일지에 함께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32. 감정서에는 2호분 출토 목관 편이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는 2호분 출토 목관 편 역시 금송이라고 기록되었다. 또한 2호분 출토품 기록카드에는 목관 편 가운데 일부 ‘목질 검사를 위해 우메하라가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있어 별도로 수종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농학부 입학교실 오나카 후미오 교수의 감정서

조선 부여 능산리 동

제 1호분 목관 편 1편

제 3호분 목관 편 1편

제 4호분 목관 편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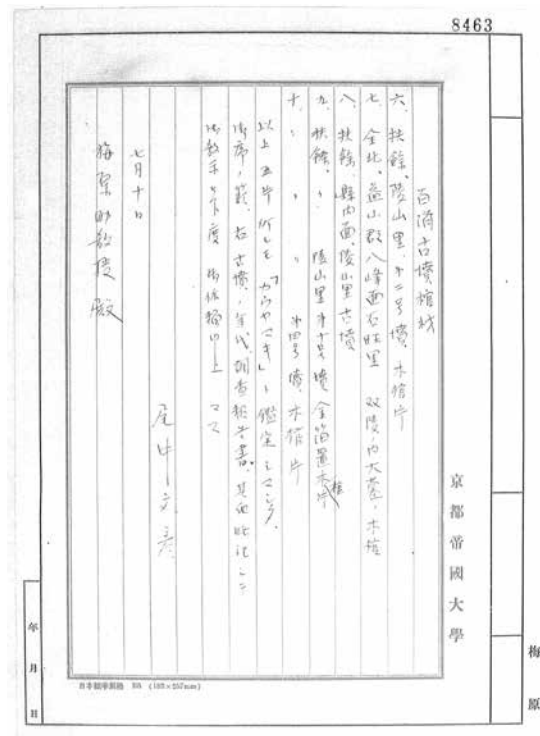
제 5호분 목관 편 2편

위의 모두 금송이다.

-증략-

금송은 현재 일본에서 미나미큐가南向에서 기타기소北木曾까지 분포하며, 시코쿠四国과 추고쿠中国의 산에서도 드물게 분포하지만, 주로는 기슈紀州나 기소木曾가 산지이다. 어쨌든 일본이 특산지이기 때문에 이 목재는 일본에서 운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①



백제 고분 관재

6. 부여 능산리 제 2호분 목관 편³³

7. 전북 익산군 팔봉면 석왕리 쌍릉 내 대표의 목관

8. 부여 현내면 능산리 고분

9. 부여 현내면 능산리 제 10호분 금박이 붙어있는 목관 편³⁴

10. 부여 현내면 능산리 제 4호분 목관 편³⁵

이상 5편 모두 「금송」으로 감정되었습니다.

-후략-

②

[도판 22] 백제 사비시기 왕릉급 고분 출토 목관 편 수종 분석 결과 ①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출토 목재, ② 백제 고분 출토 목재(이상 梅原考古写真資料庫)

33. 능산리 1호 동하층 출토 목관 편으로 추정된다.

34. 능산리 서고분군 2호분 출토 목관 편으로 추정된다.

35. 능산리 4호 서상층 출토 목관 편으로 추정된다.

2.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의 입지와 고분의 분포

부여 능산리산(해발고도 121m) 남사면 자락에 백제 사비시기 고분이 3개의 군집을 이루고 있다. 백제 왕릉원인 부여 능산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고분 4기는 능산리 서고분군, 동쪽에 위치한 고분 5기는 능산리 동고분군으로 각각 명명되고 있다. 능산리 고분군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과 1917년에 조사된 이후 이미 일본인이 봉분을 복원하고 유적을 정비하였으며[도판 23], 광복 이후에도 1965~1966년과 1971년에 대대적으로 고분군 정비 공사가 이루어졌다[도판 24]. 이에 따라 주변 지형과 봉분의 규모 및 형태가 일부 변형되긴 하였으나, 유적이 지속적으로 보존·관리되어 고분군의 범위와 각 고분의 분포 위치 등이 명확하다. 능산리 서고분군은 1917년 능산리 고분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당시 4기의 고분 가운데 9호분(한국전통문화대학교 3호)과 10호분(한국전통문화대학교 2호)이 조사되었다. 이 일대는 가파른 구릉에 해당하여 마을이 형성되기에 공간이 협소하고 주변에는 민묘 등이 분포하여 상대적으로 유적의 훼손이 덜하였다. 또한 인근에 능산리 고분군(사적 제14호), 능산리 사지(사적 제434호), 나성(사적 제58호) 등 백제의 주요 유적이 밀집 분포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능산리 서고분군 일대도 자연스레 주요 유적의 일부로 보호되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의 지형과 고분도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결국 2016~2018년에 재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능산리 동고분군 일대는 1938년 조사 당시에도 이미 고분군의 남서쪽에 마을이 형성된 상태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이후 마을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고분군의 범위를 침범하였다. 또한 민가 주변에 경작지가 개간되고 부속 시설물 등이 추가되면서 원지형이 훼손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분의 원형을 찾기 어려우며, 정확한 위치와 범위 등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도판 25].



[도판 23] 일제강점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정비 모습(건판 37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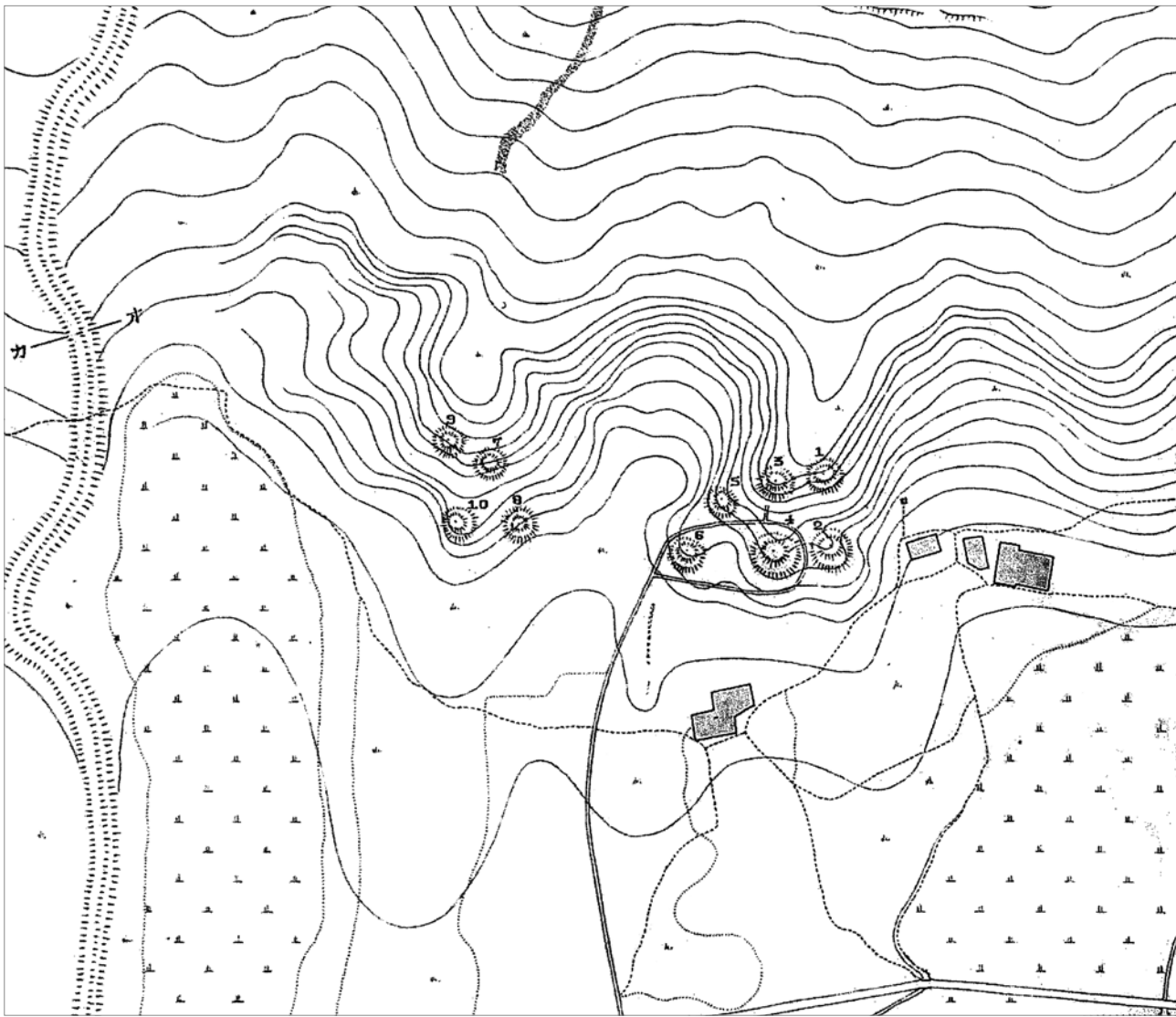


[도판 24] 1966년 부여 능산리 고분군 정비 모습



[도판 25]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일대 항공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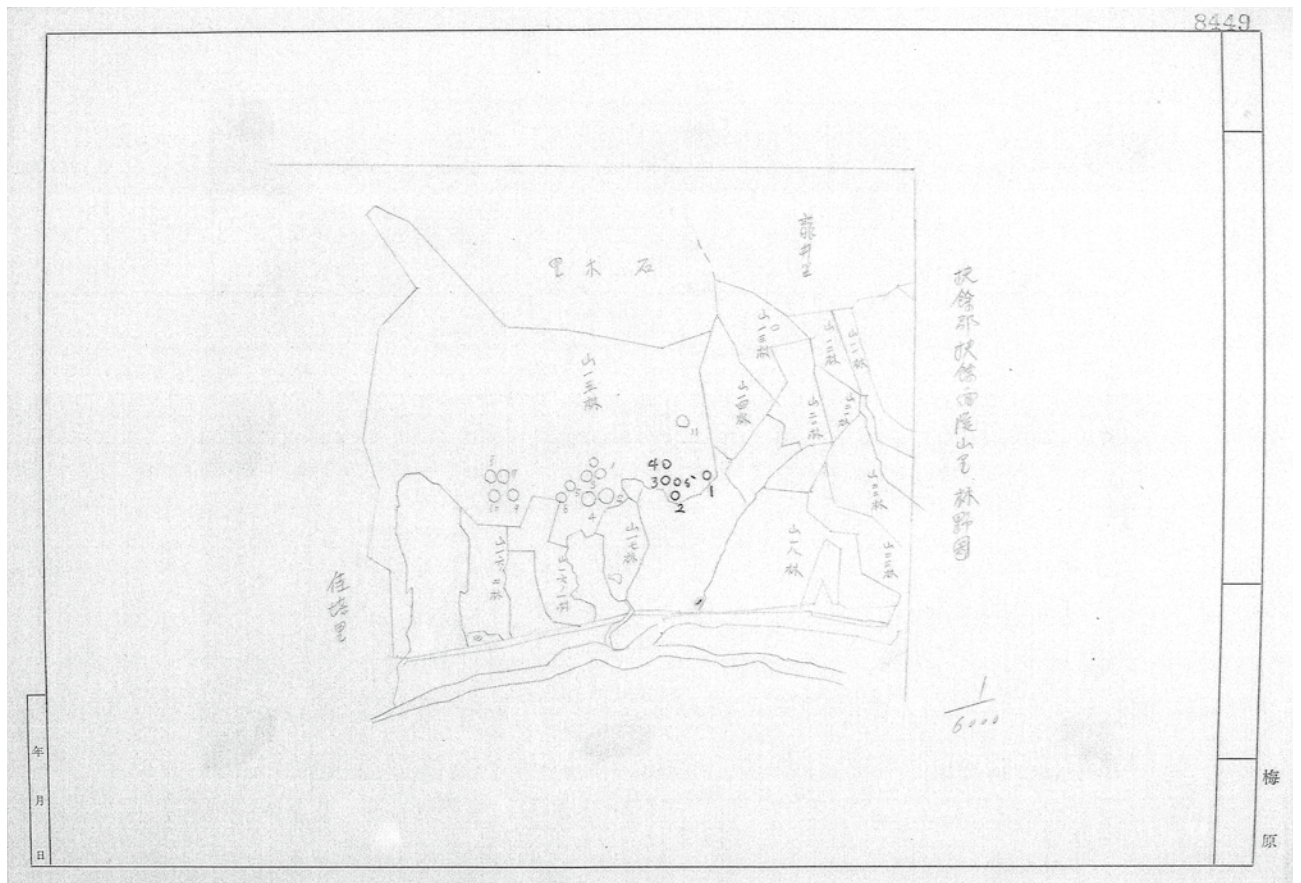
현재 능산리 고분군은 능산리산 정사면 하단부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편평한 대지 위에 고분 7기가 비교적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1960~70년대 실시된 유적 정비공사에 따른 것이며, 이 일대의 원지형과 고분의 분포 양상은 현재 모습과 차이를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도를 살펴보면 능산리 고분군 양쪽으로 골짜기가 형성되어 독립적인 묘역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는 여러 갈래의 작은 능선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각 세부 능선에 고분이 상하로 열을 지어 배치된 양상이었다[도판 26]. 그래서 크게 1호 동하총과 6호 동상총이 분포한 구릉, 2호 중하총과 5호 중상총, 7호가 분포한 구릉, 3호 서하총과 4호 서상총이 분포한 구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2호 중하총이 위치한 구릉이 능산리 고분군의 중심 구릉으로 보기도 한다³⁶. 2호 중하총은 고분군의 중앙에 위치하고 봉분의 규모가 가장 크며, 매장주체부인 석실 역시 고분군 내에서 가장 이른 형식인 터널형 횡혈식 석실인 점 등에서 고분군 핵심 고분으로 평가된다. 본래 각 고분간 간격 역시 현재와 같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구릉 하단부로 갈수록 간격도 더 벌어졌다. 이러한 양상은 최근 재발굴조사된 능산리 서고분군에서도 확인된다. 능산리 서고분군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동쪽의 능산리 고분군과 분리된 별도의 군집을 이루며, 4기의 고분이 두 갈래의 능선에 각 2기씩 상하로 배치된 양상이다. 조사자는 이 가운데 2호분과 3호분이 위치한 능선이 서고분군의 중심 능선으로 보았다³⁷.



[도판 26] 부여 능산리 일대 고분군 배치도(1923년 작성, 도면 S006-006-007-1)

36. 서현주, 2019, 『부여 능산리고분군과 사비기 능묘』, 『사비백제 고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사비백제 고분 학술대회, 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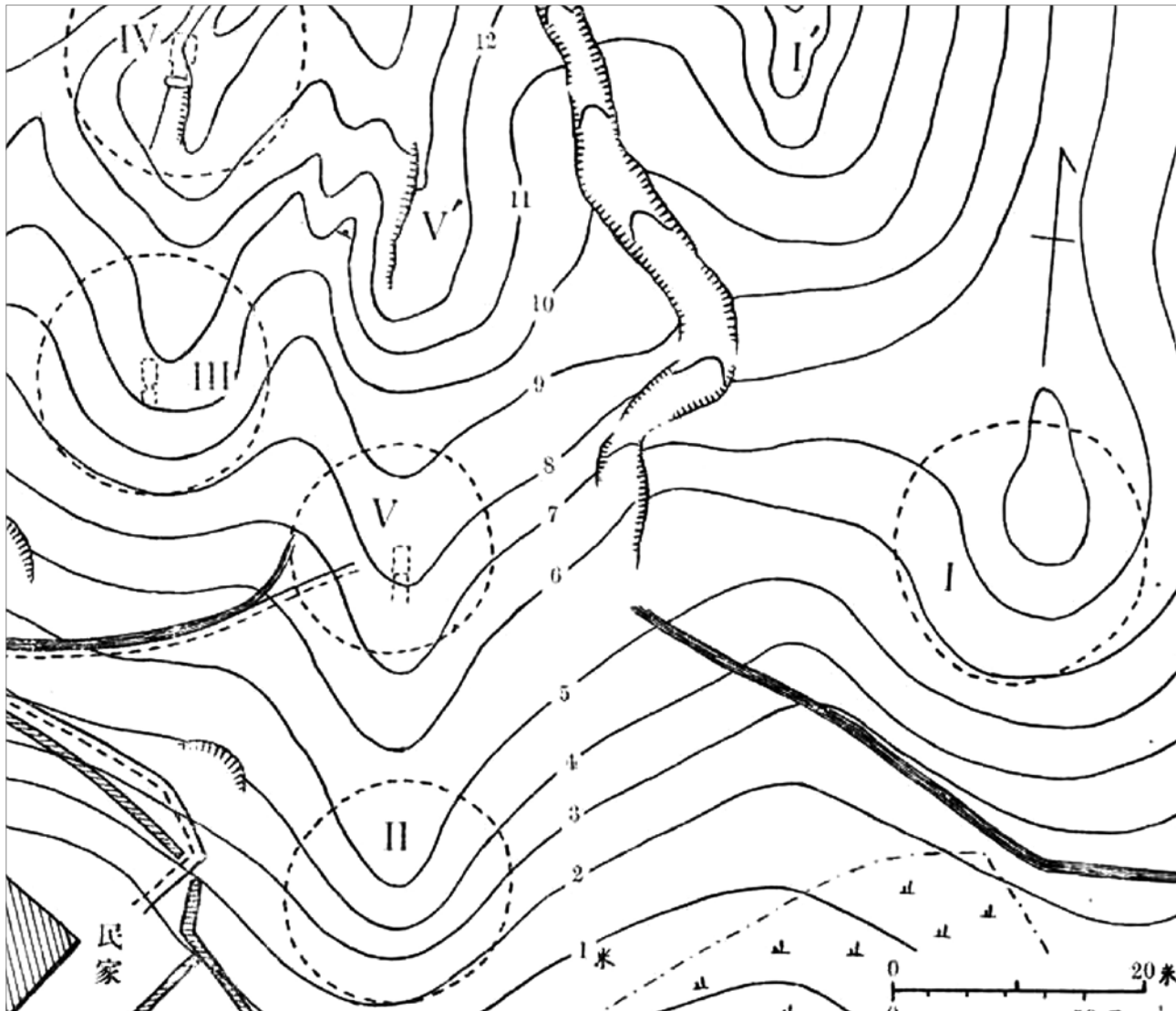
37. 서현주 외, 2019, 『부여 능산리고분군 I | 서고분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부여군, 191쪽.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역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쪽의 능산리 고분군과 분리되어 별도의 군집을 이루고 있다.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에 수록된 능산리 동고분군 분포도를 살펴보면, 5기의 고분이 3개의 세부 능선에 분포하고 있으며, 고분군 내 동쪽 능선만 1호분이 단독으로 위치하고 중앙 능선과 서쪽 능선은 능산리 고분군 및 서고분군과 마찬가지로 동일 능선 상에 남-북으로 고분 2기가 배치된 양상이다[도판 29].

따라서 백제는 사비 천도를 기획하면서 이미 도성의 경계인 나성을 기준으로 백제인의 생활 구역과 사후 공간을 분리하였으며, 피장자의 위계와 성격에 따라 도성 인근에서 주변 지역으로 묘역을 구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왕실의 능역 역시 능선과 계곡에 따라 3개의 구역으로 구획하고, 각 고분군은 다시 세부 능선에 2~3기의 고분을 상하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백제가 왕실의 능역도 치밀한 계획 하에 조성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백제 사비시기 능묘의 공간적 분포 양상은 도성 인근에 능묘를 밀집하여 배치한 근린밀집 분포 양상임을 보여준다³⁸.

능산리 동고분군에는 5기의 백제 사비시기 황혈식석실분이 분포하며, 1938년 조사 당시 각 고분의 세부 번호가 부여되었다. 고분의 분포 양상과 고분간 거리가 일정치 않으나, 조사자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는 능산리 고분군 및 서고분군과 같이 능산리 동고분군을 상단과 하단의 2열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고분군의 동쪽 아래에 위치한 고분을 시작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며 1~3호분으로 지정하고, 상단에서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며 4호분과 5호분으로 명명하였다.



[도판 29]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분포도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38. 박순발, 2017, 「백제 도성 묘역의 비교 고찰」, 『百濟研究』6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36~38쪽.

1) 1938년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일대 모습



[도판 30]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전경(남동→북서, 건판 13498)

1938년 능산리 동고분군 조사 당시 사와 숲이치가 촬영한 고분군의 모습이다. 고분군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을 바라보고 촬영한 것이다. 능산리 동고분군은 능산리 고분군 1호 동하총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100~200m 정도 떨어진 범위에 분포한다. 흰 텐트는 조사단이 설치한 것으로(파란 원), 텐트 바로 앞이 동고분군 1호분이다. 동고분군 서쪽에서 정비된 능산리 1호 동하총의 모습이 보인다(빨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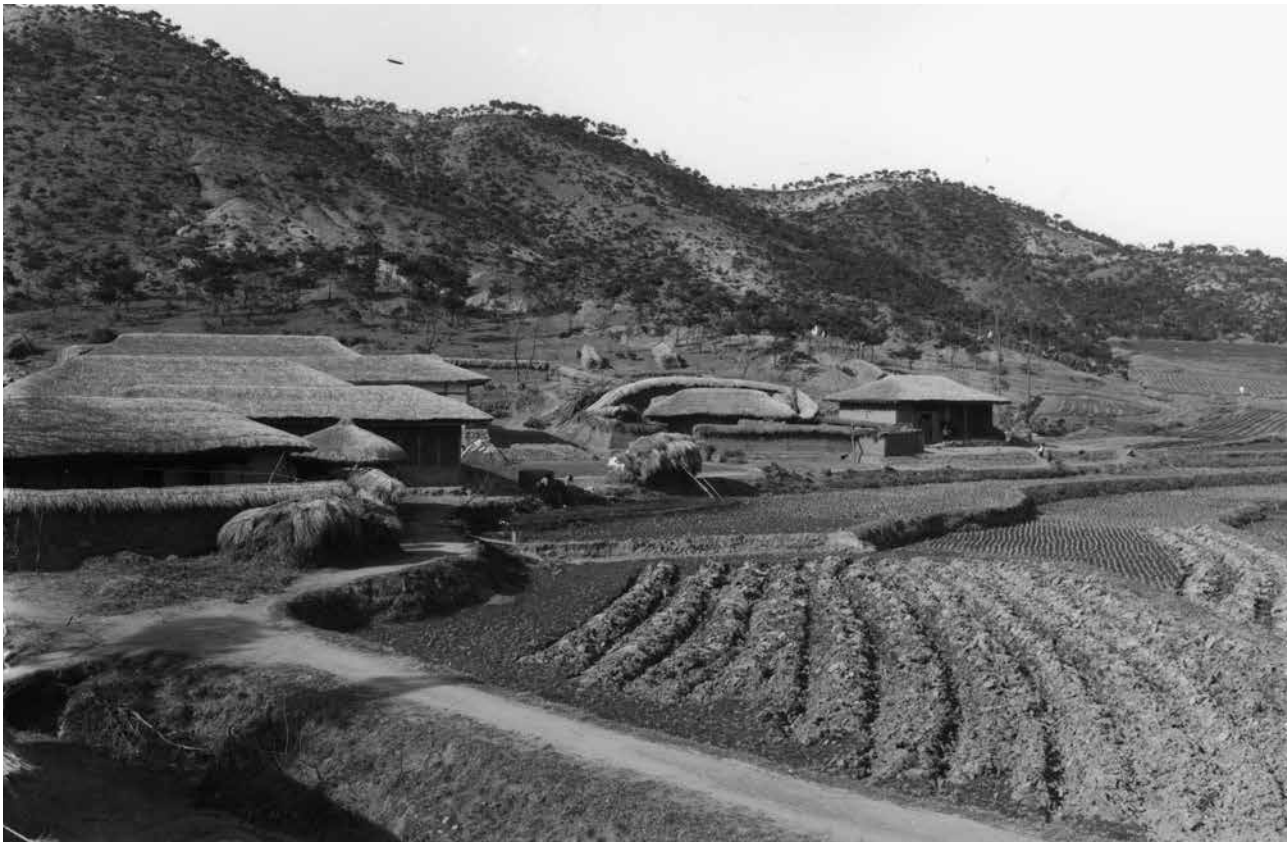
[도판 31]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전경(남동→북서, 건판 13499)

고분군 남동쪽에서 사와 숲이치가 촬영한 고분군의 모습이다. 고분군의 남서쪽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신방골마을로 불리고 있다.



[도판 32]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전경(남→북, 건판 13500)

남쪽에서 바라본 고분군 모습이다. 해발고도 121m 능산리산 남사면 하단부에 5기의 고분이 3개의 작은 구릉 위에 분포한다.



[도판 33]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전경(남서→북동, 건판 13501)

남서쪽에서 바라본 고분군의 모습이다. 마을 동쪽과 북쪽으로 5기의 고분이 분포한다. 사진 속 가옥의 분포와 이를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판 34]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전경(북→남, 건판 13502)

고분군 북쪽의 구릉 상단부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촬영한 사진이다. 이 사진은 1938년에 발간된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에 수록되었다.



[도판 35]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전경(북→남, 건판 13503)

고분군 북쪽의 구릉 상단부에서 2~5호분을 촬영한 사진이다. 고분군 내 동쪽에 단독으로 자리한 1호분은 사진 밖 서쪽에 위치한다. 발굴조사 중인 2호분 모습 등이 보인다.

2) 2019년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일대 모습



[도판 36]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일대 모습



[도판 37]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일대 모습

3. 조사 내용³⁹

1) 1호분

(1) 조사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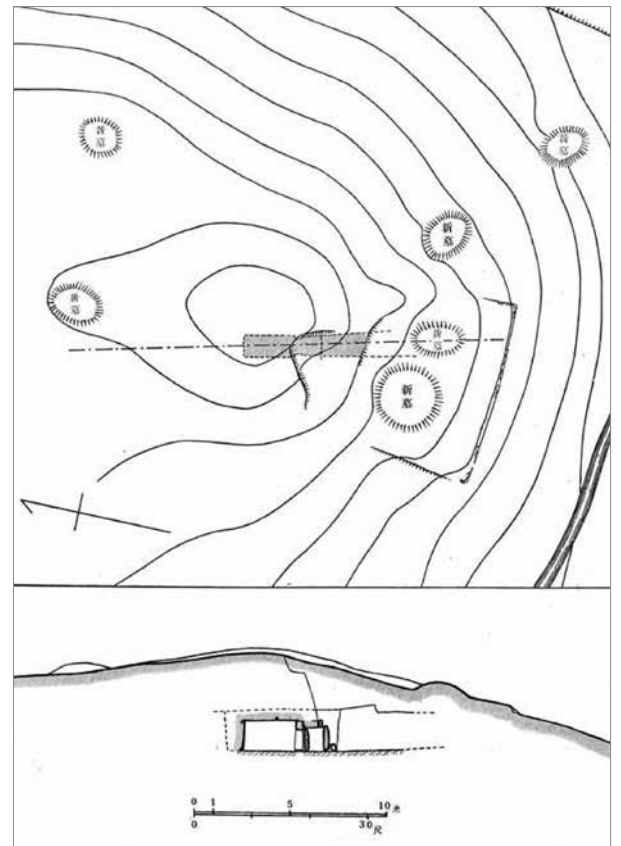
[표 4] 1호분 조사 경과

조사일	조사내용	비고
4.3.	봉분 확인	
4.4.	봉분 측량 및 사진 촬영	
4.5.	연도 천장부 확인	
4.6.	연문 문비석 확인	야간 경비 시작
4.7.	묘도, 연도 전방부 정리 완료 및 실측(우메하라)	위령제 실시
4.8.	연도 전방부 사진 촬영(사와), 연문 문비석 제거 및 연도부 정리, 현문 문비석 제거	
4.9.	봉분 측량도에 석실 위치 등 표기, 현실 내부 조사 및 정리	
4.10.	석실 내부 실측(우메하라) 및 사진 촬영(사와)	
4.11.	석실 내부 사진 촬영(사와) 및 조사 완료, 문비석 폐쇄 및 복토	야간 경비 종료
4.12.	복토, 고분군 원경 사진 촬영(사와)	
4.13.	복토 완료	

(2) 석실

1호분은 고분군 내 세 개의 능선 가운데 가장 동쪽에 위치한 능선에 단독으로 분포한다. 봉분은 평면 원형으로, 지름은 13.4m 정도이고 잔존 높이는 1.5m이다. 봉분 지하에는 매장 주체부 시설로 횡혈식 석실 1기가 안치되었다. 석실은 북-남방향으로 등고선과 직교하며, 석실의 입구는 구릉 하단부인 남쪽에 위치한다[도판 38].

봉분 위에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 주변에 수 기의 고려~조선시대 무덤이 분포하고 있었으며[도판 39~41], 제토 중에 고려시대의 청동제 그릇과 수저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1호분과 연접한 후대의 무덤 등으로 인해 조사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제토와 발굴조사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도판 41~43].



[도판 38] 1호분 석실 배치도(『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39. 능산리 등고분군 조사 내용에 수록된 도면은 1938년 발간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에서 발췌하고 <東洋文庫 梅原考古写真資料庫>에서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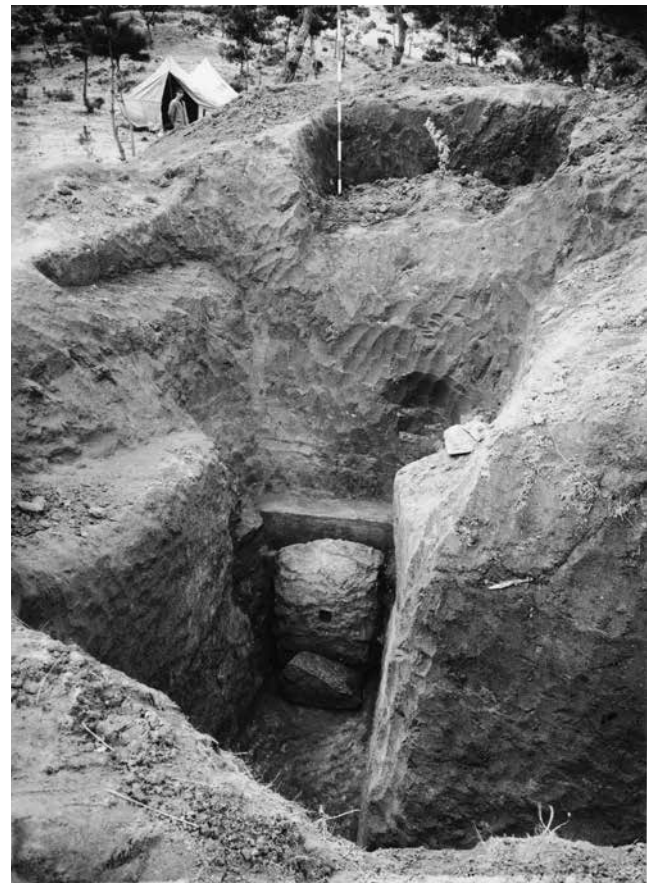
[도판 39] 1호분 봉분(남동→북서, 건판 13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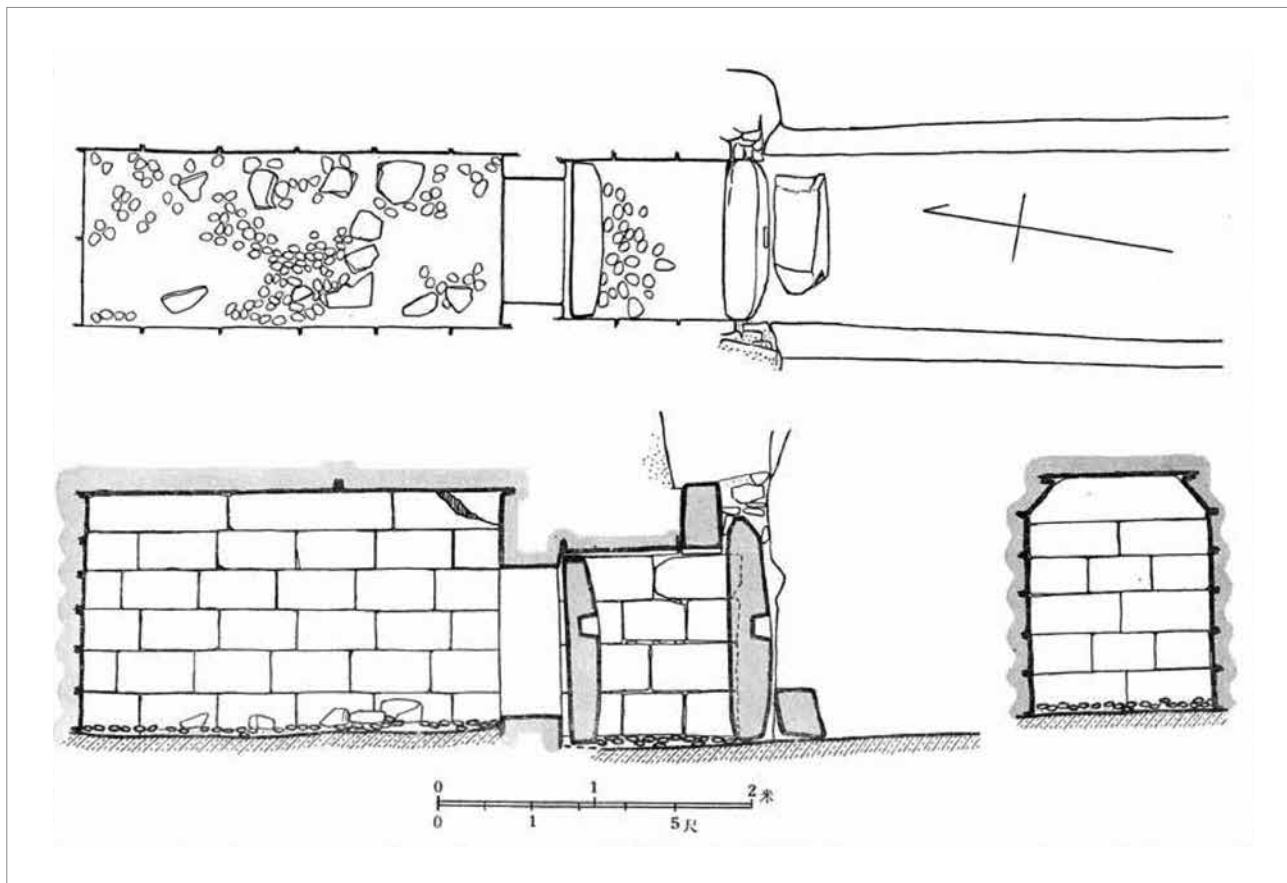
[도판 40] 1호분 봉분(북서→남동, 건판 13449)



[도판 41] 1호분 봉분과 고려~조선시대 민묘(남→북, 건판 13450)



[도판 42] 1호분 조사 모습(건판 13452·13455)



[도판 43] 1호분 석실(『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1호분의 매장주체부는 현실의 천장이 평사천장 구조이며 단면이 육각형인 횡혈식 석실이다[도판 43·44]. 능산리 일대 왕릉급 고분군에서 이러한 구조의 횡혈식 석실은 능산리 고분군 3호 서하층, 4호 서상층, 5호 중상층, 6호 동상층, 7호분과 서고분군의 3호분과 4호분, 그리고 동고분군 1~5호분에서 확인되었다. 현실은 여러 매의 화강암제 장대석을 쌓아 축조하였다. 양 장벽은 세 장방형이나 장방형의 장대석을 한 단에 6매씩 5단으로 쌓았고, 복단벽 역시 한 단에 2~3매의 장대석을 5단으로 쌓아 축조하였다[도판 43~45]. 앞서 열거한 능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서고분군의 평사천장 횡혈식석실분은 모두 대형 판석을 석실의 부재로 사용하였으나, 동고분군 1호분과 2호분은 장대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것이 특징이다. 양 장벽 위에는 장대석을 3매씩 비스듬히 쌓아 천장과 연결하였다. 천장석은 대형 판석 2매가 사용되었다. 바닥에는 전체적으로 소형의 천석을 깔았으며, 부분적으로 이보다 큰 할석을 배치하였다[도판 44]. 우메하라 스에지는 이러한 할석의 배치를 관대 대용으로 추정하였다⁴⁰. 현실 규모는 길이 268cm, 너비 110cm 정도로 세장방형 구조이며, 높이는 145cm 정도이다⁴¹. 현실의 규모와 구조 등을 보았을 때, 내부에 목관 1기를 안치한 단장⁴²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문은 4매의 석재를 이용하여 문틀식 구조로 만들었으며, 너비 79cm, 높이 94cm 정도이다. 현문 앞은 대형 판석 1매를 문비석으로 이용하여 폐쇄하였다. 판석 중앙에는 방형의 홈이 있으며, 이러한 홈은 능산리 일대 고분군의 현문 및 연문 문비석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다⁴². 이 홈은 주로 문비석의 개폐 작업의 편의를 위한 것 혹은 문비석으로 입구를 폐쇄한 후 이를 받침목으로 받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고분군 1호분 현문 문비석의 방형 홈에는 회반죽이 가득 채워져 있으며[도판 46], 능산리 일대 다른 고분에서는 동일한 예가 확인되지 않았다. 현문을 막은 문비석과 연도 사이의 간극에는 철제 췌기 2개를 박아 문비석을 고정하였다.

40. 할석의 배치와 구조가 목관을 안정적으로 받치는 데 효과적일지 의문이 들지만, 고분 도굴시 석실 내부가 교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조사자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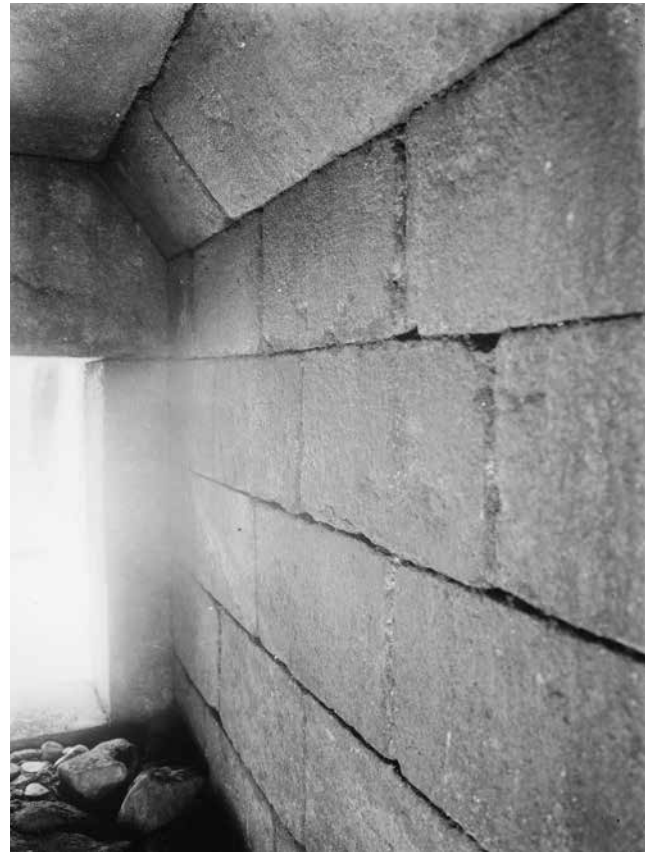
41. 석실의 제원은 당시 작성된 보고서 및 일지, 도면 등을 참고하였다.

42. 대부분 대형 판석 중앙에 1개의 방형 홈이 있는 데 반해, 능산리 고분군 1호 동하층에는 유일하게 2개의 홈이 있다.

연도는 길이 113cm 정도의 매우 짧은 형태이다. 현실과 마찬가지로 장대석을 쌓아 측벽을 세우고 바닥에는 천석을 깔았다[도판 46]. 연문 입구도 대형 석재를 세워 막았는데, 현문 문비석에 비해 거칠게 가공되었다. 문비석 중앙에는 방형 홈이 1개 있다. 연문 밖에서 문비석으로 덮는 구조이며, 그 사이에는 회반죽을 채워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비석의 바깥쪽 바닥에 문비석이 쓰러지지 않도록 석재를 받쳐 보강하였다[도판 47].



[도판 44] 1호분 현실(건판 13463)



[도판 45] 1호분 현실 저장벽(건판 13464)



[도판 46] 1호분 연도와 현문 문비석(건판 13460)



[도판 47] 1호분 연도 문비석(건판 13459)

(3) 출토 유물⁴³

석실은 이미 도굴되어 출토품이 거의 없으며, 피장자를 알 수 있는 단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당시 내부에서 목관 편과 관정, 썰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관정은 크게 철제 관정 두부에 금판과 은판을 입혀 장식한 철지금·은장(鐵地金銀裝) 관정과 철제 관정으로 구분된다. 철지금장 관정은 두부(頭部) 형태가 평면 원형, 단면 반원형이며, 두부의 크기에 따라 다시 대형과 지름 0.7~0.9cm 정도의 소형으로 분류된다. 수습된 철지금장 관정은 소형이 대부분이며(연번 1~8), 대형은 철제 소지에서 탈락한 금판 1점(연번 9)과 철제 소지만 남았으나 두부의 크기가 대형으로 분류되는 1점이 있다(연번 10). 이 외에 두부는 결실되었으나 신부(身部)에 금박이 붙은 것이 1점 발견되었으나(연번 11), 다른 철지금장 관정 가운데 신부에 금박이 입혀진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목관이 부식되고 오랜 시간 금속 장식품 등이 엉겨있으면서 다른 금제품이나 금박이 관정 신부에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철지은장 관정 역시 두부의 크기에 따라 두부 지름 2.1cm 내외의 대형(연번 12·13)과 지름 0.5cm 정도의 소형(연번 14)으로 구분된다. 일부 신부만 남아있는 소형 관정 편이 있는데(연번 15~16), 신부의 크기와 두께, 형태 등을 보았을 때 두부가 결실된 철지은장 관정의 신부 편일 가능성이 높다. 소형 철지은장 관정은 두부의 크기와 신부의 두께 등을 보아 목관의 직접적인 장식보다는 목관 장식품의 부착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철제 관정 가운데 두부가 잔존하는 것은 두부 형태가 모두 평면 방형이다. 두부의 유무와 상관없이 1호분에서 수습된 관정의 신부 단면은 모두 방형만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1호분 목관에는 기본적으로 방형 두부에 신부의 단면이 방형인 철제 관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철제 관정 두부의 크기는 대부분 가로·세로 1.5cm 내외이다. 1호분 출토품 가운데 1점이 다른 것에 비해 두부의 크기가 조금 작다(연번 28). 관정의 신부는 전체적으로 단면 형태가 방형이긴하나, 단조품의 특성상 정방형과 장방형 등 단면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일부 신부 끝이 뾰족하지 않고 약간 뭉툭하며 단면이 세장방형인 관정도 확인된다(연번 60·61).

전체적으로 목관 조립과 장식 시 사용 위치 및 방법에 따라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못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부의 크기, 신부의 두께와 길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철제 관정은 목관의 조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철지금·은장 관정은 주로 목관을 장식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호분에서 총 2점의 썰기가 수습되었다. 썰기는 현문을 막은 문비석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문비석과 연도 천장 사이, 문비석과 연도 서벽 사이에 각각 1개씩 박았다. 썰기는 2점의 크기와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1호분에서 출토된 목관 편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당시 촬영된 유리건판사진이나 도면에도 소개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조사자인 우메하라 스에지는 관정에 잔존한 목질흔 등을 토대로 목관재의 두께를 추정하였으며, 두께 2.5cm 판재와 두께 1.8cm 판재가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사용 위치와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두께의 판재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능산리 1호 동하층에서 발견된 목관재의 두께가 대부분 5cm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능산리 동고분군의 목관은 이보다 얇은 목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석실 내부에서 금박 편이 발견되었으며, 우메하라는 이 금박이 1.8cm 두께의 판재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외에도 5점의 불명 철기가 확인되었다. 관정의 신부보다 납작하고 폭이 넓은 형태이다. 이 가운데 3점에서는 목질흔이 확인되어 목관 또는 목제품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판 48] 1호분 출토품(건판 13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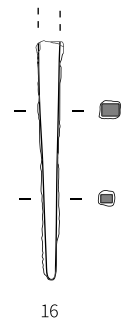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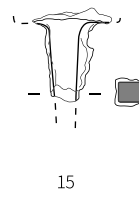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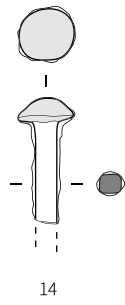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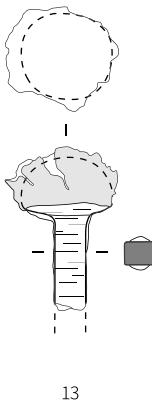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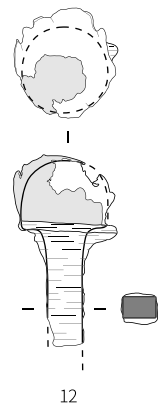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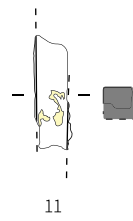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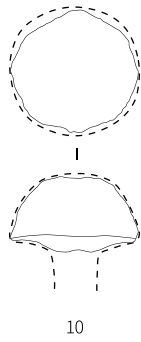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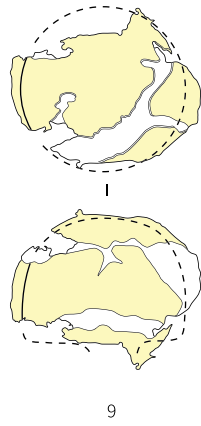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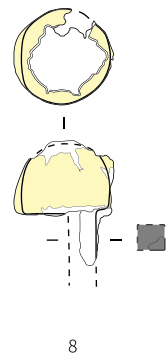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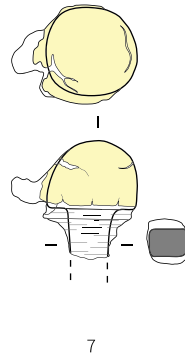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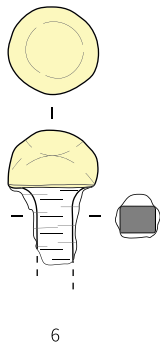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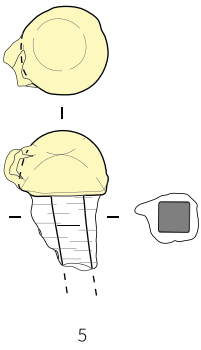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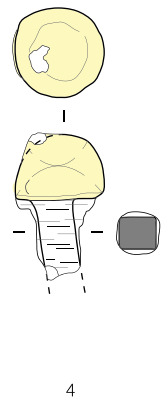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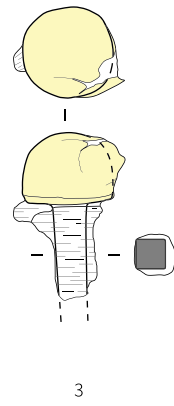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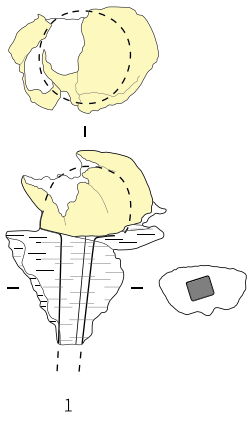
43. 현재 전해지지 않으나, 당시 작성된 조사 일지 및 출토품 기록카드, 보고서 등에 소개된 출토품도 함께 소개하였다.

가. 철지금·은장 관정

[표 5] 1호분 출토 철지금·은장 관정

단위:cm

연 번	소장품번호	전체길이 (잔존)	두부			신부		목질흔		특징	도면	사진
			단면형태	높이	너비	길이	너비	방향	길이			
1	부여고적81(13-2)	(2.55)	반원형	(추정)0.92	1.35	(1.42)	0.3×0.24	횡	횡(1.42)	철지금장	도판 49-1	도판 50-1
2	부여고적81(13-8)	(2.45)	반원형	(추정)0.87	0.87	(1.08)	0.34×(0.3)	횡	횡(2.45)	철지금장	도판 49-2	도판 50-2
3	부여고적81(13-6)	(2.21)	반원형	0.91	1.17	(1.28)	0.38×0.38	횡	횡(1.28)	철지금장	도판 49-3	도판 50-3
4	부여고적81(13-4)	(1.94)	반원형	0.85	1.25	(1.07)	0.47×0.41	횡	횡(1.07)	철지금장	도판 49-4	도판 50-4
5	부여고적81(13-3)	(1.86)	반원형	0.85	1.19	(1.01)	0.46×0.39	횡	횡(1.01)	철지금장	도판 49-5	도판 50-5
6	부여고적81(13-5)	(1.78)	반원형	0.77	1.19	(1.01)	0.51×0.32	횡	횡(1.01)	철지금장	도판 49-6	도판 50-6
7	부여고적81(13-7)	(1.57)	반원형	0.87	1.16	(0.65)	0.48×0.35	횡	횡(0.65)	철지금장	도판 49-7	도판 50-7
8	부여고적81(13-9)	(1.66)	반원형	(추정)0.92	1.16	(0.7)	(0.26)×(0.26)	-	-	철지금장	도판 49-8	도판 50-8
9	부여고적81(13-12)	(2.11)	반원형	(추정)2.11	(2.51)	-	-	-	-	철지금장	도판 49-9	도판 50-9
10	부여고적81(13-1)	(0.99)	반원형	(0.83)	(1.69)	-	-	-	-	철지금장	도판 49-10	도판 50-10
11	부여고적81(13-13)	(1.51)	-	-	-	(1.51)	(0.42)×(0.42)	종	종(1.51)	-	도판 49-11	도판 50-11
12	부여고적81(13-10)	(2.53)	반원형	0.92	(2.08)	(1.55)	0.43×0.24	횡	횡(1.55)	철지은장	도판 49-12	도판 50-12
13	부여고적81(13-11)	(2.16)	반원형	(추정)0.91	(2.15)	(1.39)	0.41×0.3	횡	횡(1.39)	철지은장	도판 49-13	도판 50-13
14	부여고적82(46-8)	(1.67)	반원형	0.37	0.54	(1.3)	0.28×0.24	-	-	철지은장	도판 49-14	도판 50-14
15	부여고적83(임의1)	(1.24)	-	-	(1.04)	(1.09)	0.28×0.26	-	-	-	도판 49-15	도판 50-15
16	부여고적83(임의4)	(3.15)	-	-		(3.15)	0.28×0.15 0.15×0.1	-	-	-	도판 49-16	도판 50-16



[도판 49] 1호분 출토 철지금·은장 관정 도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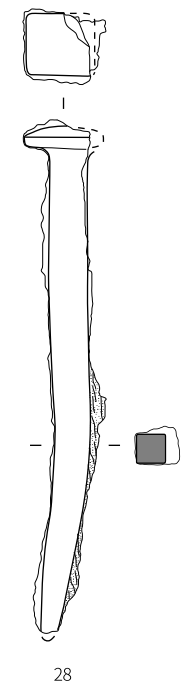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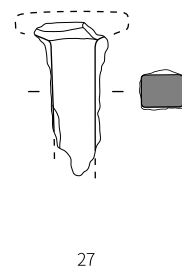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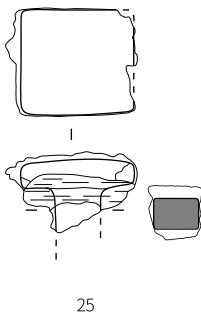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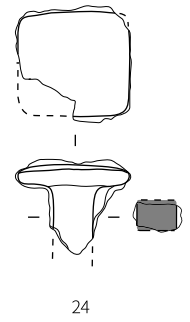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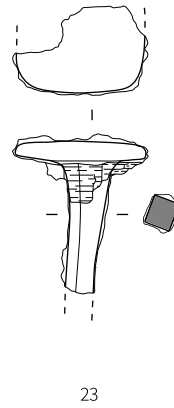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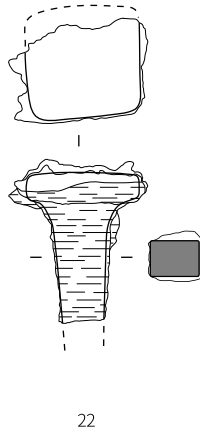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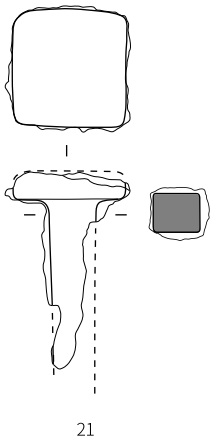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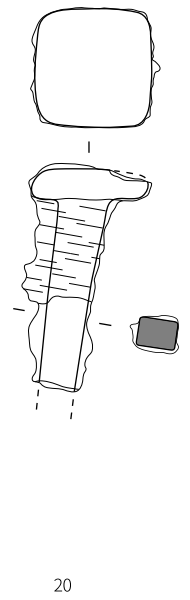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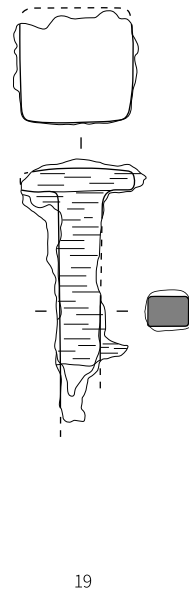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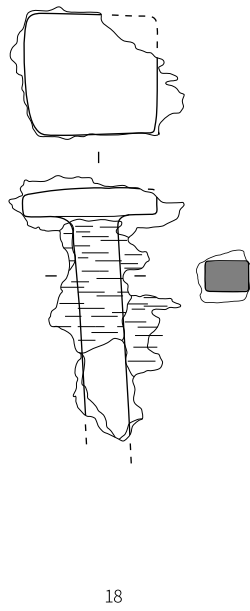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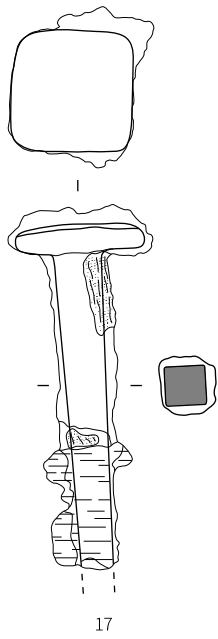
[도판 50] 1호분 출토 철지금·은장 관정 사진

나. 철제 관정

[표 6] 1호분 출토 철제 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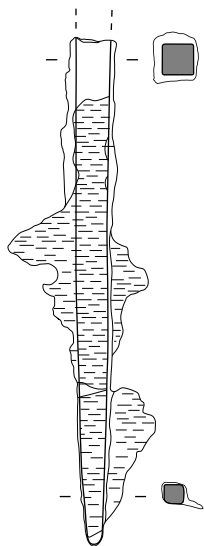
단위 : cm

연 번	소장품번호	전체길이 (잔존)	두부			신부			목질흔		도면	사진
			형태	높이	너비	길이	너비	단면형태	방향	길이		
17	부여고적82(46-12)	(4.83)	방형	0.4	1.62×1.61	(4.15)	0.56×0.54	방형	횡	횡(2.59), (1.61)	도판 51-17	도판 54-17
18	부여고적82(46-13)	(3.5)	방형	0.37	1.76×1.61	(2.97)	0.58×0.39	방형	횡	횡(2.08)	도판 51-18	도판 54-18
19	부여고적82(46-14)	(3.48)	방형	0.3	1.51×(1.48)	(3.05)	0.53×0.39	방형	횡	횡(2.36)	도판 51-19	도판 54-19
20	부여고적82(46-15)	(2.99)	방형	0.39	1.5×1.51	(2.54)	0.49×0.35	방형	횡	횡(1.41)	도판 51-20	도판 54-20
21	부여고적82(46-17)	(2.6)	방형	(0.37)	1.5×1.5	(2.21)	0.61×0.51	방형	횡	횡(0.05)	도판 51-21	도판 54-21
22	부여고적82(46-5)	(2.16)	방형	0.4	1.52×(1.33)	(1.58)	0.64×0.47	방형	횡	횡(1.86)	도판 51-22	도판 54-22
23	부여고적82(46-4)	(2.14)	방형	0.29	1.69×(1.14)	(1.75)	0.42×0.42	방형	횡	횡(0.53)	도판 51-23	도판 54-23
24	부여고적82(46-9)	(1.25)	방형	0.3	1.48×1.39	(0.94)	0.52×(0.31)	방형	횡	횡(0.05)	도판 51-24	도판 54-24
25	부여고적82(46-10)	(1.07)	방형	0.38	1.49×1.39	(0.57)	0.59×0.5	방형	횡	횡(0.48)	도판 51-25	도판 54-25
26	부여고적82(46-1)	(2.37)	방형	0.32	1.47×1.37	(1.98)	0.44×0.42	방형	-	-	도판 51-26	도판 54-26
27	부여고적82(46-7)	(2.03)	-	(0.21)	-	(2.03)	0.56×0.47	방형	-	-	도판 51-27	도판 54-27
28	부여고적82(46-18)+ 부여고적83(18-13)	(6.79)	방형	0.32	(0.84)×0.83	(6.42)	0.38×0.38	방형	횡	횡(3.5)	도판 51-28	도판 54-28
29	부여고적82(46-32)+ 부여고적82(46-46)	(6.72)	-	-	-	(6.72)	0.41×0.4 0.39×0.38	방형	횡	횡(5.82)	도판 52-29	도판 55-29
30	부여고적82(46-40)	(5.21)	-	-	-	(5.21)	0.43×0.4 0.41×0.37	방형	횡	횡(5.21)	도판 52-30	도판 55-30
31	부여고적82(46-39)	(5.2)	-	-	-	(5.2)	0.39×0.41 0.35×0.36	방형	횡	횡(5.2)	도판 52-31	도판 55-31
32	부여고적82(46-21) + 부여고적83(임의11)	(4.92)	-	-	-	(4.92)	0.43×0.33 0.33×0.25	방형	횡	횡(3.08)	도판 52-32	도판 55-32
33	부여고적82(46-36)	(4.75)	-	-	-	(4.75)	0.44×0.39 0.26×0.23	방형	종	종(4.75)	도판 52-33	도판 55-33
34	부여고적82(46-31)	(4.68)	-	-	-	(4.68)	0.36×0.31	방형	횡	횡(4.68)	도판 52-34	도판 55-34
35	부여고적82(46-35)	(4.47)	-	-	-	(4.47)	0.39×0.34 0.24×0.21	방형	종	종(4.47)	도판 52-35	도판 55-35
36	부여고적82(46-29)	(4.43)	-	-	-	(4.43)	0.35×(0.34)	방형	횡	횡(3.9)	도판 52-36	도판 55-36
37	부여고적82(46-33)	(3.98)	-	-	-	(3.98)	0.45×0.41 0.37×0.36	방형	횡	횡(0.5), (2.15)	도판 52-37	도판 55-37
38	부여고적82(46-16)	(3.4)	-	-	-	(3.4)	0.6×0.48	방형	횡+종	횡(1.25)+종(1.28)	도판 52-38	도판 55-38
39	부여고적82(46-41)	(3.36)	-	-	-	(3.36)	0.38×0.36 0.37×0.29	방형	횡	횡(3.36)	도판 52-39	도판 55-39
40	부여고적82(46-43)	(2.89)	-	-	-	(2.98)	0.3×0.21 0.23×0.16	방형	종	종(0.51)	도판 52-40	도판 55-40
41	부여고적82(46-38)	(2.87)	-	-	-	(2.87)	0.41×0.44 0.39×0.41	방형	횡	횡(2.87)	도판 52-41	도판 55-41
42	부여고적83(임의5)	(2.82)	-	-	-	(2.82)	0.38×0.22	방형	횡	횡(2.16)	도판 53-42	도판 56-42
43	부여고적82(46-19)	(2.81)	-	-	-	(2.81)	0.36×0.35 0.23×0.22	방형	횡	횡(1.59)	도판 53-43	도판 56-43
44	부여고적82(46-27)	(2.79)	-	-	-	(2.79)	0.42×0.26	방형	횡	횡(0.41)	도판 53-44	도판 56-44
45	부여고적82(46-22)	(2.72)	-	-	-	(2.72)	0.4×0.4 0.33×0.33	방형	횡	횡(2.72)	도판 53-45	도판 56-45
46	부여고적82(46-24)	(2.41)	-	-	-	(2.41)	(0.27)×0.38	방형	횡	횡(2.32)	도판 53-46	도판 56-46
47	부여고적82(46-23)	(2.16)	-	-	-	(2.16)	0.48×0.46 0.47×(0.27)	방형	횡	횡(1.49)	도판 53-47	도판 56-47
48	부여고적83(임의9)	(2.06)	-	-	-	(2.06)	0.43×0.33 0.29×0.22	방형	횡	횡(2.06)	도판 53-48	도판 56-48
49	부여고적83(임의12)	(3.54)	-	-	-	(3.54)	0.36×0.33	방형	-	-	도판 53-49	도판 56-49
50	부여고적82(46-42)	(3.4)	-	-	-	(3.4)	0.33×0.32 0.17×0.16	방형	-	-	도판 53-50	도판 56-50
51	부여고적82(46-37)	(3.15)	-	-	-	(3.15)	0.42×0.38	방형	-	-	도판 53-51	도판 56-51
52	부여고적82(46-44)	(2.94)	-	-	-	(2.94)	0.27×0.27 0.22×0.22	방형	-	-	도판 53-52	도판 56-52
53	부여고적82(46-26)	(2.82)	-	-	-	(2.82)	0.4×0.4	방형	-	-	도판 53-53	도판 56-53
54	부여고적82(46-45)	(2.65)	-	-	-	(2.65)	0.31×0.3	방형	-	-	도판 53-54	도판 56-54
55	부여고적83(임의7)	(2.41)	-	-	-	(2.41)	0.3×0.25	방형	-	-	도판 53-55	도판 56-55
56	부여고적83(임의6)	(2.35)	-	-	-	(2.35)	0.29×0.26	방형	-	-	도판 53-56	도판 56-56
57	부여고적83(임의8)	(2.09)	-	-	-	(2.09)	0.31×0.31	방형	-	-	도판 53-57	도판 56-57
58	부여고적82(46-25)	(2.06)	-	-	-	(2.06)	0.49×0.32	방형	-	-	도판 53-58	도판 56-58
59	부여고적83(임의15)	(1.75)	-	-	-	(1.75)	0.38×0.38	방형	-	-	도판 53-59	도판 56-59
60	부여고적82(46-30)	(5.17)	-	-	-	(5.17)	0.41×0.37 0.3×0.19	방형	횡	횡(4.94)	도판 53-60	도판 56-60
61	부여고적82(46-34)	(3.79)	-	-	-	(3.79)	0.54×0.48	방형	횡	횡(3.79)	도판 53-61	도판 5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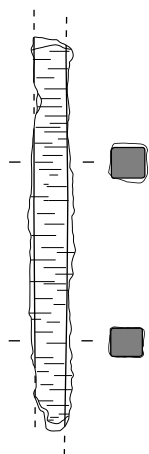


[도판 51] 1호분 출토 철제 관정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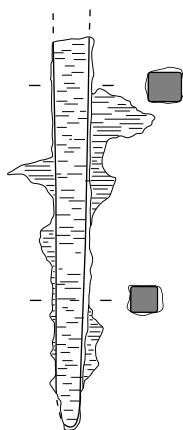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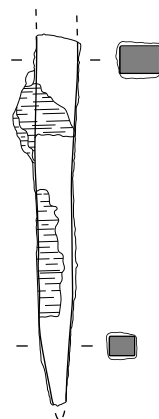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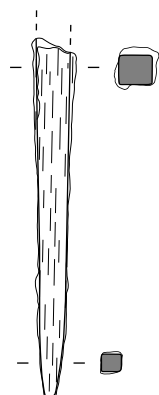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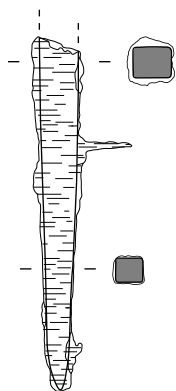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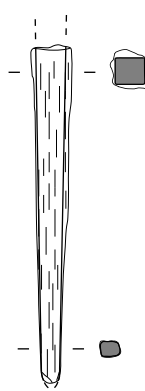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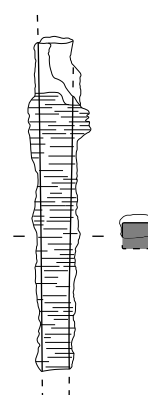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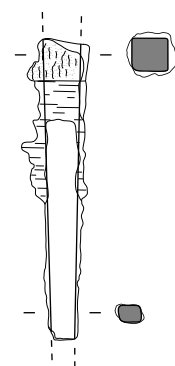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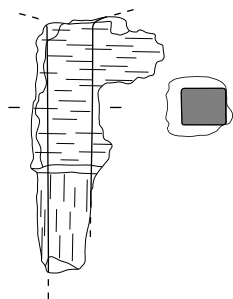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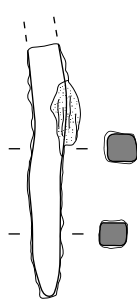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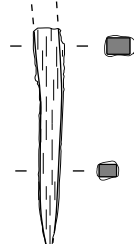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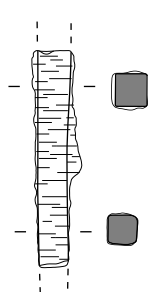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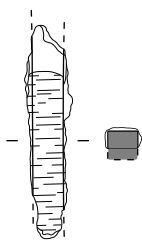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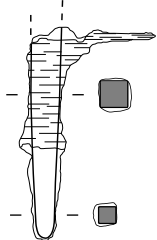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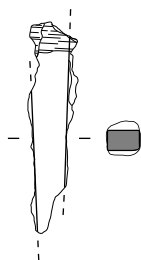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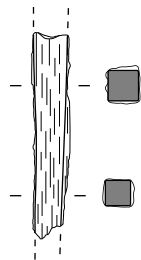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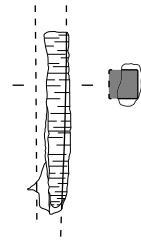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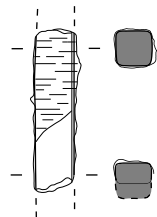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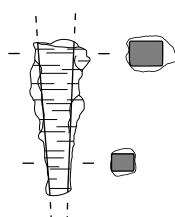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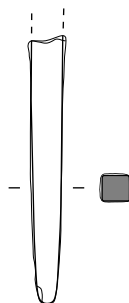
46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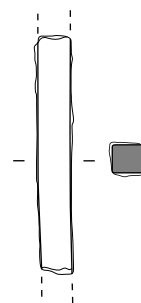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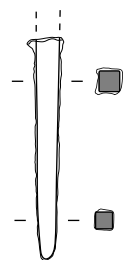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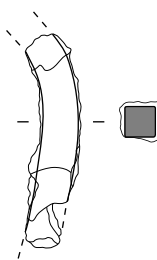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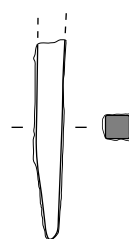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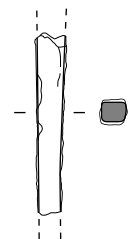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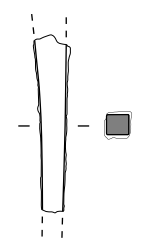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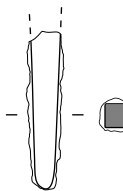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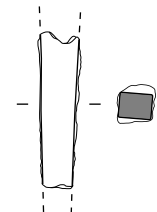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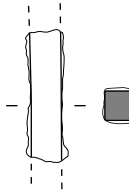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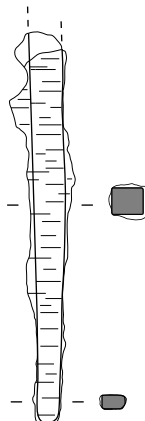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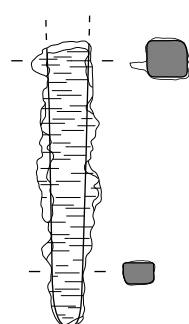
58



59



60



61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도판 55] 1호분 출토 철제 관정 사진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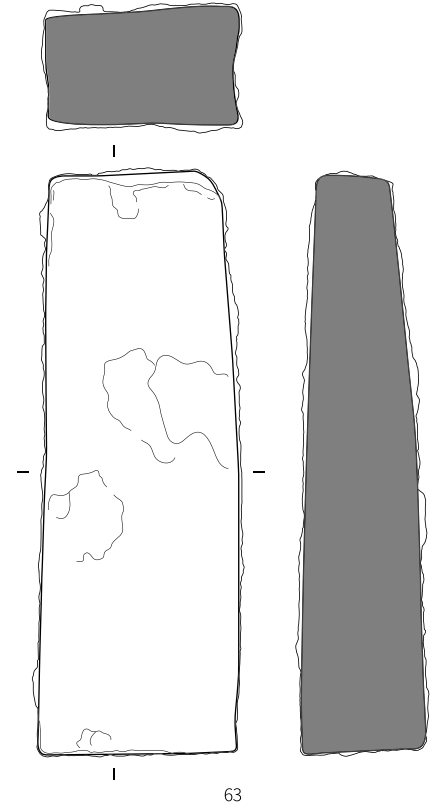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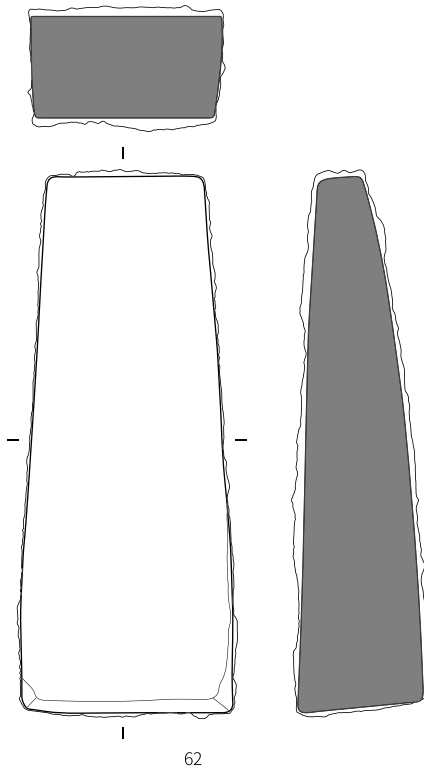
61

다. 철제 썰기

[표 7] 1호분 출토 철제 썰기

단위:cm

연번	소장품번호	길이	폭	최대 두께	도면	사진
62	부여고적79(2-1)	7.26	2.91	1.59	도판 57-62	도판 58-62
63	부여고적79(2-2)	7.79	2.8	1.72	도판 57-63	도판 58-63



[도판 57] 1호분 출토 철제 썰기 도면



[도판 58] 1호분 출토 철제 썰기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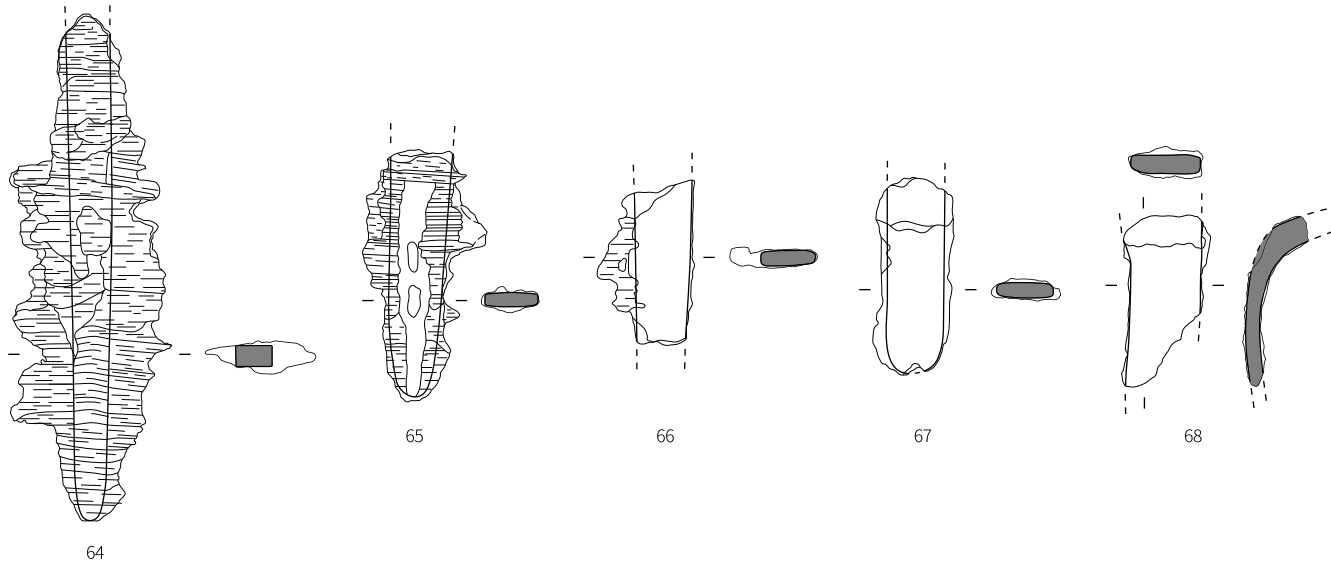


라. 불명 철기

[표 8] 1호분 출토 불명 철기

단위 : cm

연번	소장품번호	전체길이(잔존)	폭(잔존)	두께	목질		도면	사진
					방향	길이		
64	부여고적80(4-1)	(6.7)	(2.14)	0.48×0.26	횡	횡(6.7)	도판 59-64	도판 60-64
65	부여고적80(4-2)	(3.33)	(1.64)	0.18	횡	횡(3.33)	도판 59-65	도판 60-65
66	부여고적80(4-4)	(2.18)	(1.28)	0.2	횡	횡(1.27)	도판 59-66	도판 60-66
67	부여고적80(4-3)	(2.61)	(1.07)	0.2	-	-	도판 59-67	도판 60-67
68	부여고적82(46-20)	(2.38)	(0.98)	0.25	-	-	도판 59-68	도판 60-68



[도판 59] 1호분 출토 불명 철기 도면



[도판 60] 1호분 출토 불명 철기 사진



(4) 1호분 출토 장식 관정의 제작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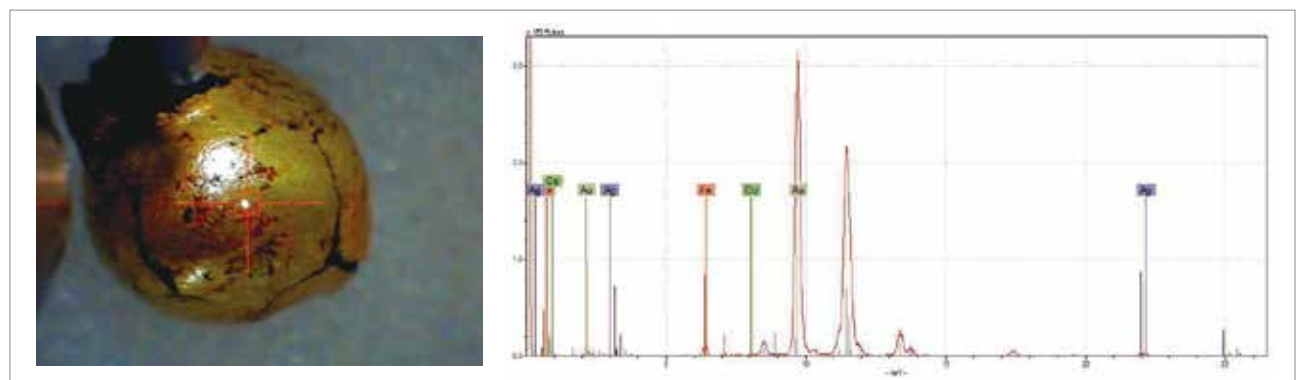
신용비

가. 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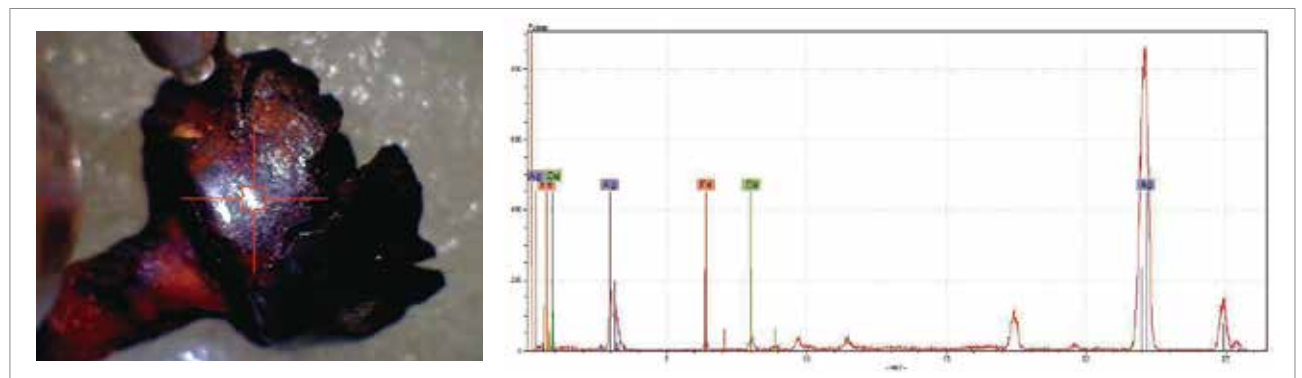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1호분에서 출토된 장식 관정 13점을 대상으로 형태적 관찰과 화학 조성을 분석하여 제작방법과 재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금속 조성 분석은 이동형 X-선형광분석기(Portable XRF, ArtTAX Basic, Bruker AXS, Germany)를 활용하여 진행하였고, 제작방법은 실체현미경(Stereoscopic Microscope, Leica MZ-12, Germany)으로 관찰하여 확인하였다.

나. 조사 결과

금속 조성 분석 결과 장식 관정의 두부 장식은 금판과 은판으로 제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지금장 관정은 총 10점으로 금판은 모두 금(Au)과 은(Ag)으로 합금되어 있으며 금함량이 89.5~93.5wt%로 22K이상의 고순도 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지은장 관정은 총 3점으로 99wt% 이상의 순은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도판 61·62·표 10].



[도판 61] 철지금장 관정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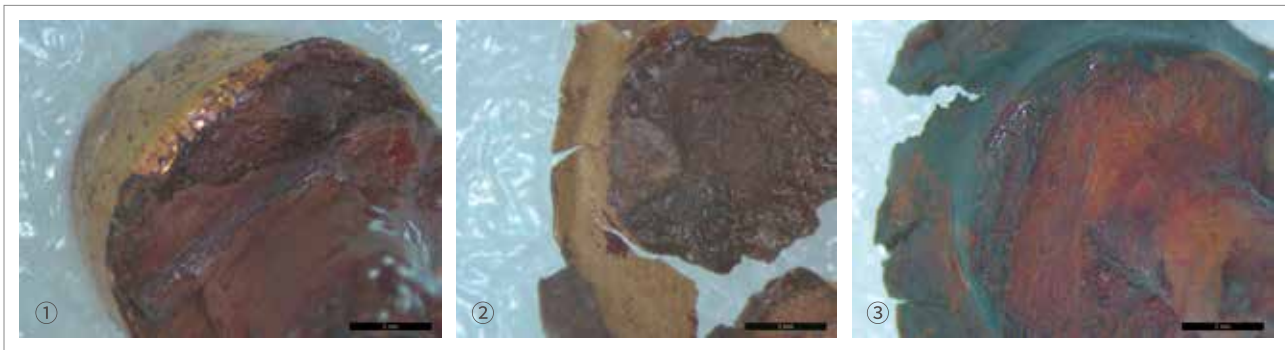
[도판 62] 철지은장 관정 분석결과

[표 9] 철지금·은장 관정의 금속 조성 분석결과

보고서 연번	유물번호	화학조성(wt%)				합계
		Au	Ag	Cu	Fe	
1	부여고적81(13-2)	92.50	5.20	0.19	2.11	100.00
2	부여고적81(13-8)	91.03	7.30	0.20	1.48	100.00
3	부여고적81(13-6)	93.12	6.26	0.15	0.48	100.00
4	부여고적81(13-4)	92.35	4.80	0.12	2.74	100.00
5	부여고적81(13-3)	91.02	7.36	0.10	1.51	100.00
6	부여고적81(13-5)	93.56	5.21	0.13	1.09	100.00

연번	유물번호	화학조성(wt%)				합계
		Au	Ag	Cu	Fe	
7	부여고적81(13-7)	91.11	6.48	0.06	2.36	100.00
8	부여고적81(13-9)	89.17	7.55	0.15	3.13	100.00
9	부여고적81(13-12)	93.51	4.20	0.22	2.07	100.00
11	부여고적81(13-13)	90.10	7.63	0.13	2.14	100.00
12	부여고적81(13-10)		99.31	0.43	0.27	100.00
13	부여고적81(13-11)		98.82	0.22	0.96	100.00
14	부여고적82(46-8)		99.19	0.37	0.45	100.00

결합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철지금장 관정과 철지은장 관정의 두부 하단을 실체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철제 관정에 금판과 은판을 씌우고 하단부를 접어서 결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도판 63-①·③]. 또한 철지금장 관정의 내면에서도 안쪽으로 접힌 흔적이 관찰되었다[도판 63-②].



[도판 63] 장식관정 세부사진 ① 철지금장 관정, ② 철지금장 관정 내부, ③ 철지은장 관정

능산리 1호 동하층 출토 장식 관정⁴⁴과 비교하면 동하층의 경우 청동제 관정의 두부에 금박을 입히거나 철제 관정의 두부에 은판을 씌운 후 도금한 형식이 확인되었다[도판 64]. 그러나 동고분군 1호분 출토 장식 관정은 청동제 관정이나 은판 위에 도금한 형식이 아닌 금판과 은판을 철제 관정 두부를 씌운 것으로 형식상 차이를 보인다[도판 65]. 장식관정의 크기는 능산리 1호 동하층의 철지금장 관정은 두부 지름이 2.5cm 정도이며, 동고분군 1호분 관정은 0.85cm 정도로, 동하층 출토 장식관정의 크기가 더 크다.



[도판 64] 능산리 1호 동하층 출토 철지금·은장 관정



[도판 65] 능산리 동고분군 1호분 출토 철지금·은장 관정

44. 이민희·신용비·황현성, 2018, 「능산리 1호(東下塚) 출토 관장식의 보존처리 및 제작방법 조사」, 『부여 능산리 1호(東下塚)』, 국립부여박물관, 101~111쪽.

2) 2호분

(1) 조사 경과

[표 10] 2호분 조사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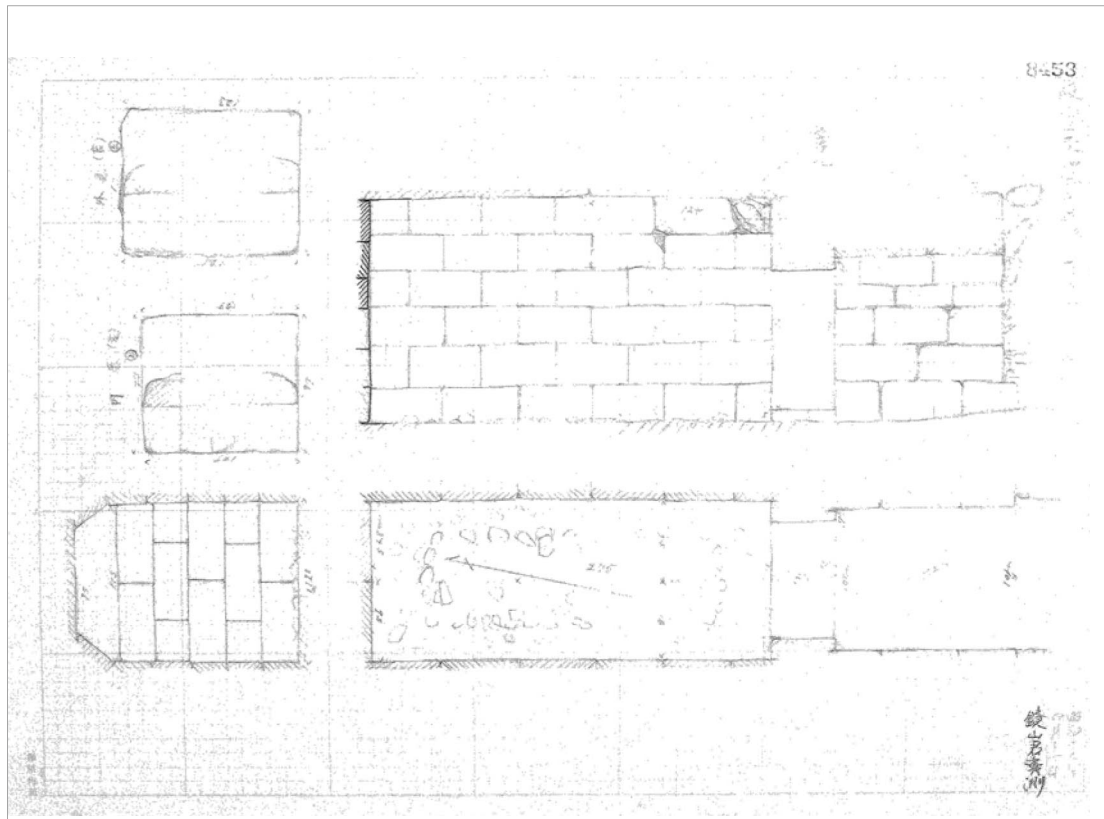
조사일	조사내용	비고
4.3.~5.	봉분 확인 및 사진 촬영 등	
4.6.	묘도 확인 및 석실 천장부 노출	
4.7.	연도 전면前面 노출 및 정리, 사진 촬영(사와)	
4.8.	연도 전면 실측. 연문 및 현문 문비석 제거	
4.9.	석실 위치 측정 및 평면도 기입(우메하라, 사와, 카가미야마)	
4.10.	현실 내부 조사	
4.11.	석실 내부 실측(카가미야마) ⁴⁵ 및 사진 촬영(사와). 조사 완료.	
4.12.	문비석 폐쇄 및 복토	
4.15.	복토 완료	

(2) 석실



[도판 66] 2호분 봉분(남동→북서, 건판 13465)

⁴⁵ 능산리 동고분군의 도면 작성은 대부분 우메하라 스에지가 전담하였다. 2호분 석실 내부만 카가미야마가 실측하였으나, 이 도면만 당시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았다.



[도판 67] 2호분 석실(梅原考古写真資料庫)

2호분은 고분군 내 중앙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하며, 1호분에서 서쪽으로 60m 정도 떨어져 있다. 우메하라 스에지는 정확한 봉분의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잔존하는 봉분의 높이 등을 보았을 때 1호분보다 더 컸을 것으로 추정하였다[도판 66]. 봉분 지하에는 매장주체부로 횡형식 석실 1기가 안치되었다. 석실의 장축방향 북-남으로 등고선과 직교하며, 석실의 입구는 남쪽에 위치한다.

2호분의 석실 구조와 축조방법 등은 1호분과 매우 유사하다. 현실은 평사천장의 단면 육각형 구조로, 세장방향의 장대석을 5단으로 쌓아 양장벽과 북벽을 축조하였다. 그 위에 1단의 장대석을 경사지게 올린 후 2매의 천장석을 올렸다[도판 67~69]. 이러한 축조 방식은 평사천장의 단면 육각형 석실 가운데 동고분군 1·2호분에서만 확인된다. 이 외에도 전체적인 석실 규모와 현문·연문의 폐쇄방법 등이 1호분과 매우 유사하여 두 고분이 비슷한 시기에 축조되거나 혹은 축조 시간 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바닥에는 1호분과 달리 천석 대신 작은 할석이 깔린 점이 차이를 보인다. 당시 조사 사진을 참고하였을 때, 할석은 현실 전체가 아닌 중앙부에만 깔린 것으로 보이며[도판 67·68], 바닥석이 아닌 관대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⁴⁶. 현실의 규모는 길이 275cm, 너비 112cm, 높이 155cm 정도이다. 현문은 문틀식 구조이며, 현문 문비석으로 거칠게 가공한 대형 석재 1매를 사용하였다. 석재 가운데에는 1개의 방형 홈이 있다[도판 70]. 연도는 길이 125cm, 너비 101cm 정도로 길이가 짧다. 연도의 양 측벽은 현실과 마찬가지로 장대석을 5단으로 쌓아 축조하였다. 전체적인 연도의 구조와 형태, 축조방법 등은 1호와 거의 동일하나, 바닥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 점이 차이이다. 연도 입구는 현문 문비석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대형 석재 1매로 폐쇄하였다[도판 71].

46. 1호분의 경우 현실과 연도 바닥에 천석을 바닥석으로 깔았다. 우메하라 스에지는 현실 바닥에서 일부 확인된 할석을 관대 대용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2호분에서는 연도 바닥에 아무런 시설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실에 깔린 할석도 중앙부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2호분은 본래 현실과 연도 모두 별도의 바닥시설이 없으며, 현실의 할석은 관대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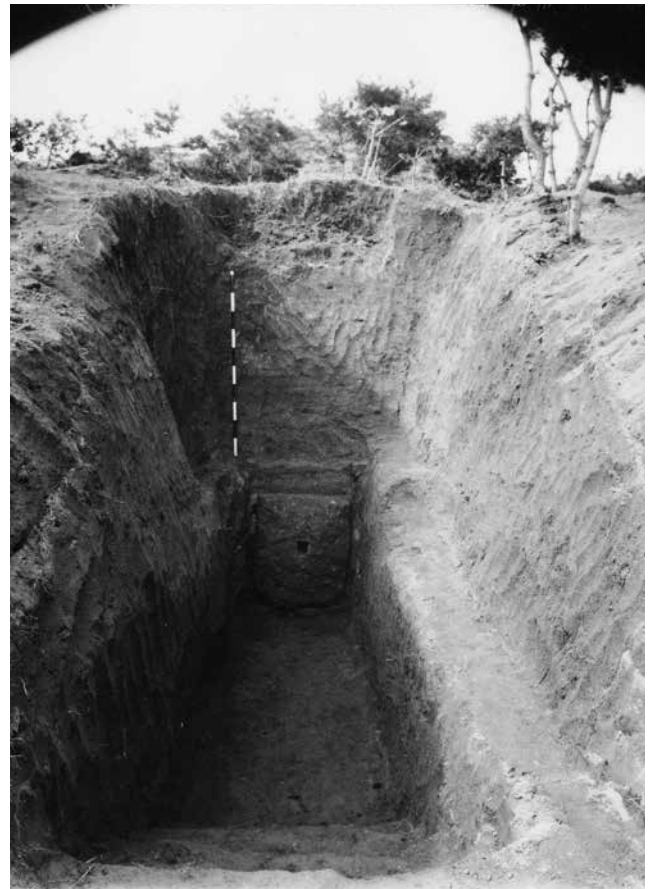
[도판 68] 2호분 현실(건판 13473)



[도판 69] 2호분 현실 서벽(건판 13474)



[도판 70] 2호분 연도와 현문 문비석(건판 13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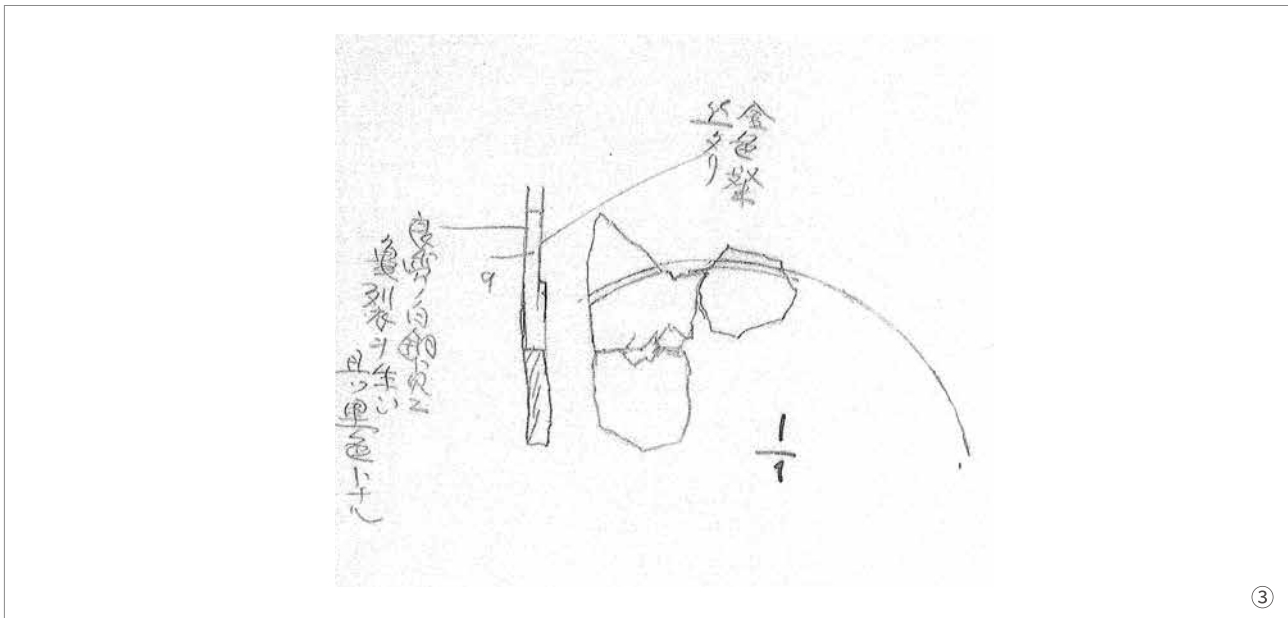
[도판 71] 2호분 연문 문비석과 묘도(건판 13469)

(3) 출토 유물

2호분 내에서 목관 편과 관정, 금박 편 등이 발견되었다. 목관 편에는 단면 방형의 청동 못이 박혀있거나 청동 못을 박았던 흔적이 확인되었다. 못의 위치와 재질 등을 고려할 때, 목관재의 결구보다는 목관 장식품을 부착하였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목관의 조립에는 철제 관정을, 목관의 장식에는 청동 관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메하라 스에지는 철제 관정에 남아있는 목질흔과 잔존 목관 편을 토대로 2호분 목관 제작에도 두께 1.8cm와 두께 3cm 정도의 목재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았으며, 2호분에서 수습된 금박 편을 두께 1.8cm의 관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당시 보고서에는 옷칠된 목관 편이 2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현재 전해지는 목관 편은 옷칠 흔적이 불분명하다. 2호분 목관 편은 현재 4점만 전해지나, 본래 이보다 더 많은 목관 편이 있었으며 조사 이후 석실 내부에 남겨두었다.

관정은 모두 철제 관정만 발견되었다. 두부와 신부의 형태와 크기 모두 1호분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 관정의 두부는 모두 방형으로 추정되며, 신부의 단면 역시 방형만 확인되었다. 관정 이외 두께가 얇고 폭이 넓은 형태의 철기 편이 발견되었다(연번 122). 전체적인 형태는 철검과 유사하나, 폭 1.3cm 정도의 소형이다.

이 외에 금동제품 1점과 금박 편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금동제품은 잔존 길이가 4cm 정도로, 백동 위에 금을 입힌 것으로 보이나 형태와 기능이 불분명하다. 출토품 기록카드에 우메하라 스에지가 연구를 위해 일 본으로 반출하였다고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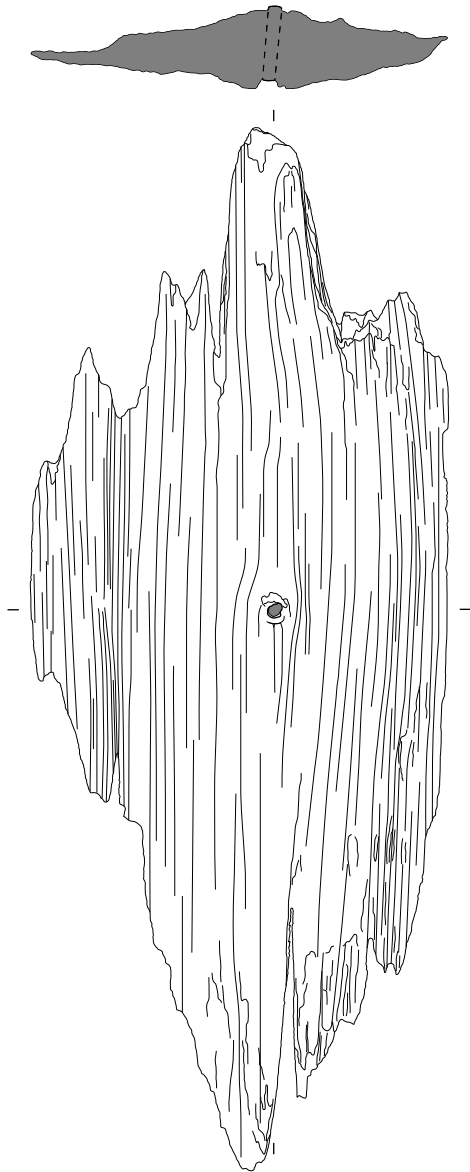
[도판 72] 2호분 출토품 ① 철제 관정 등(건판 13507), ② 목관 편(건판 13508), ③ 불명 금동제품(梅原考古写真資料庫)

가. 목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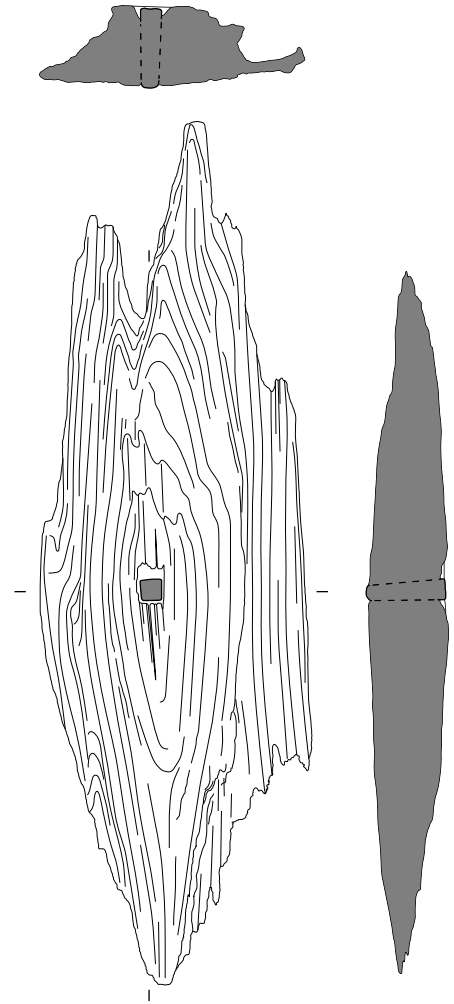
[표 11] 2호분 출토 목관 편

단위:cm

연번	소장품번호	길이	폭	최대 두께	도면	사진
69	부여고적90(4-2)	(41.42)	(16.61)	(3.27)	도판 73-69	도판 75-69
70	부여고적90(4-4)	(34.29)	(10.79)	(3.18)	도판 73-70	도판 75-70
71	부여고적90(4-3)	(46.07)	(17.89)	(2.70)	도판 74-71	도판 76-71
72	부여고적90(4-1)	(35.04)	(12.36)	(3.01)	도판 74-72	도판 7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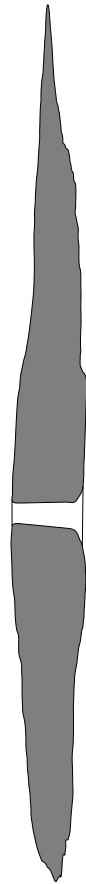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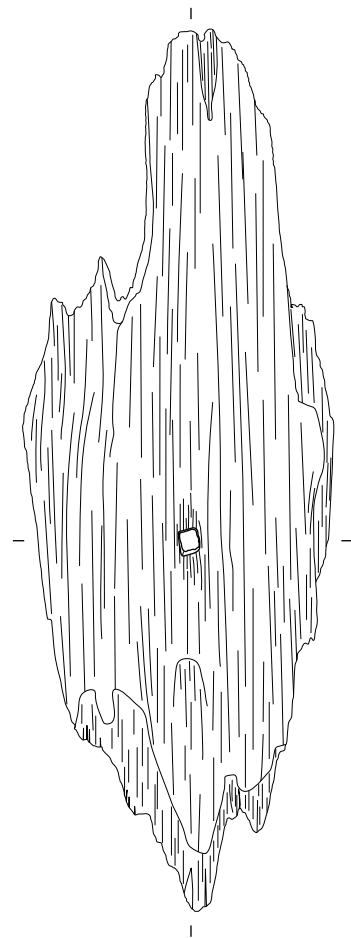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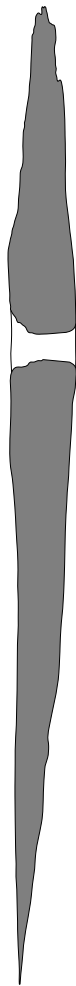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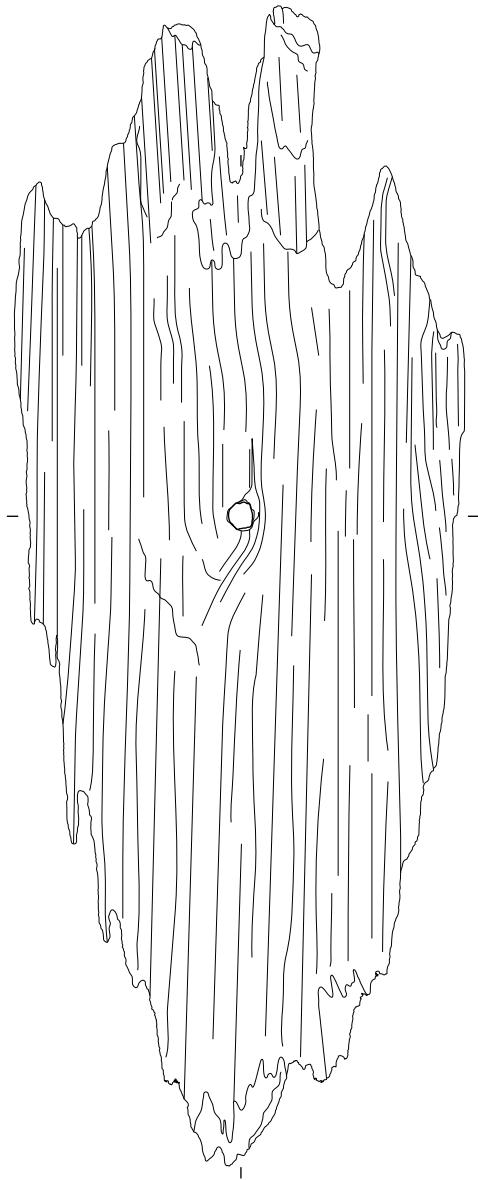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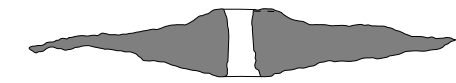
69



70

[도판 73] 2호분 출토 목관 편 도면





71

72



69



70

[도판 75] 2호분 출토 목관 편 사진



71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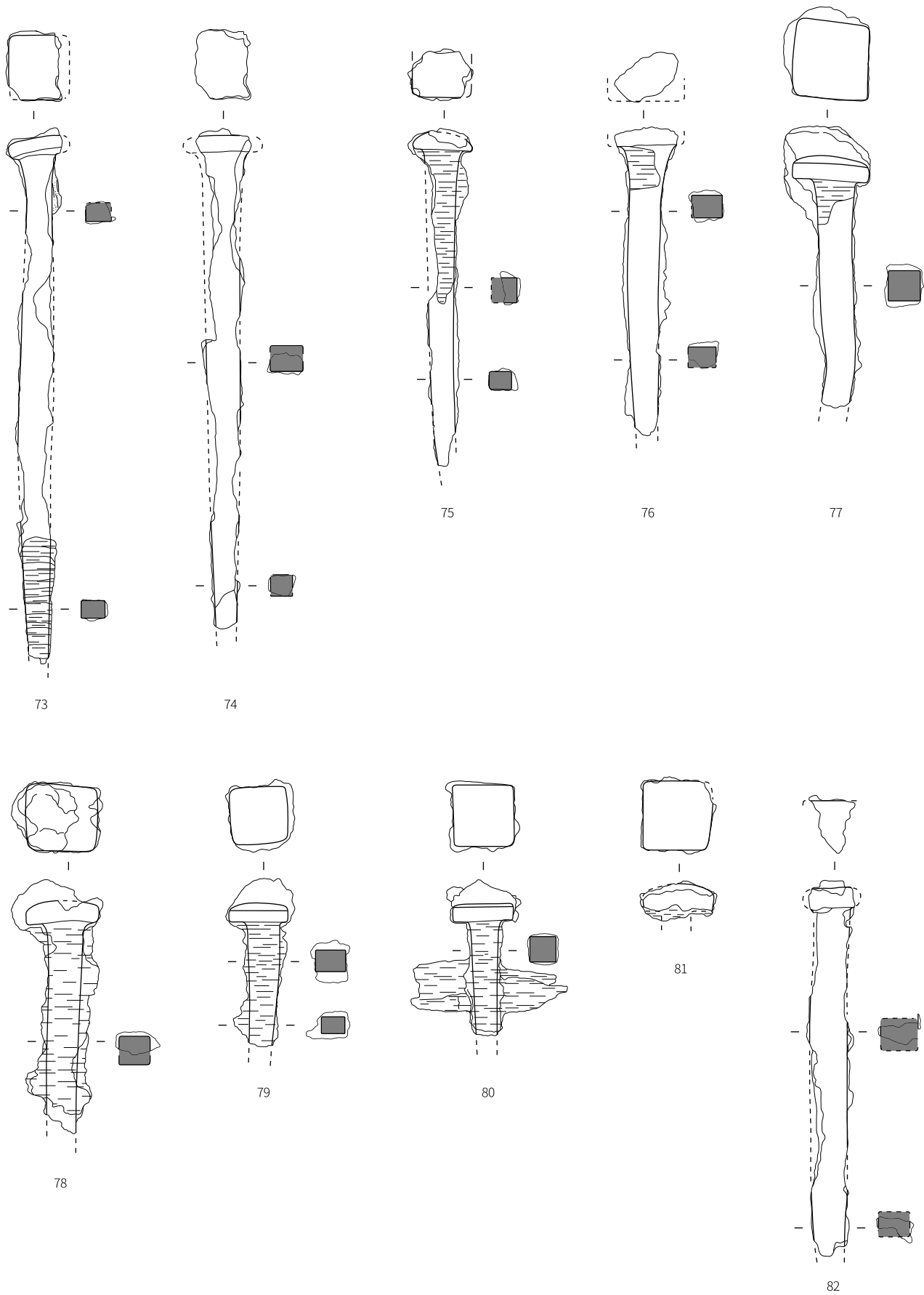
나. 철제 관정

[표 12] 2호분 출토 철제 관정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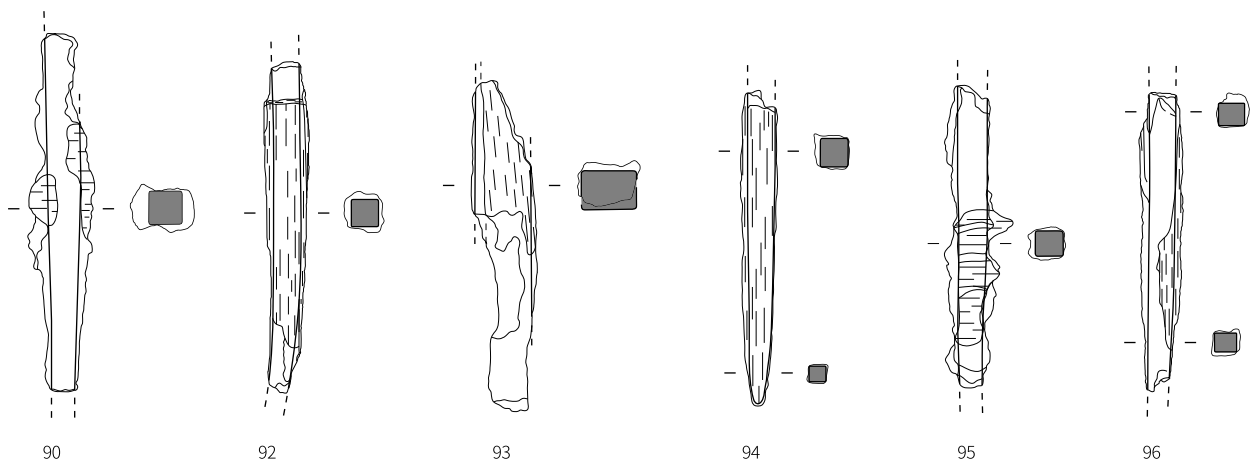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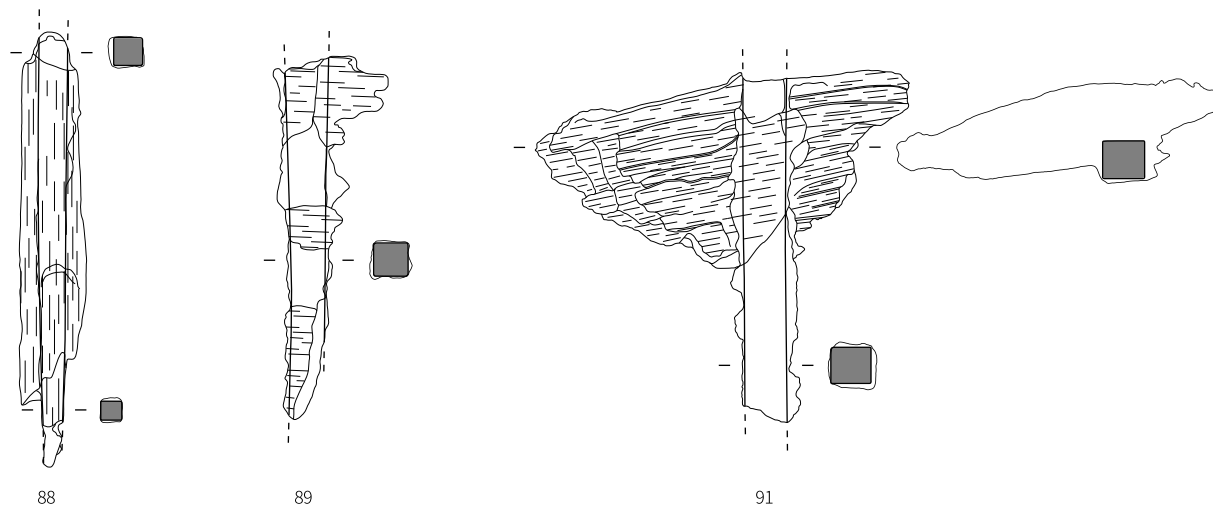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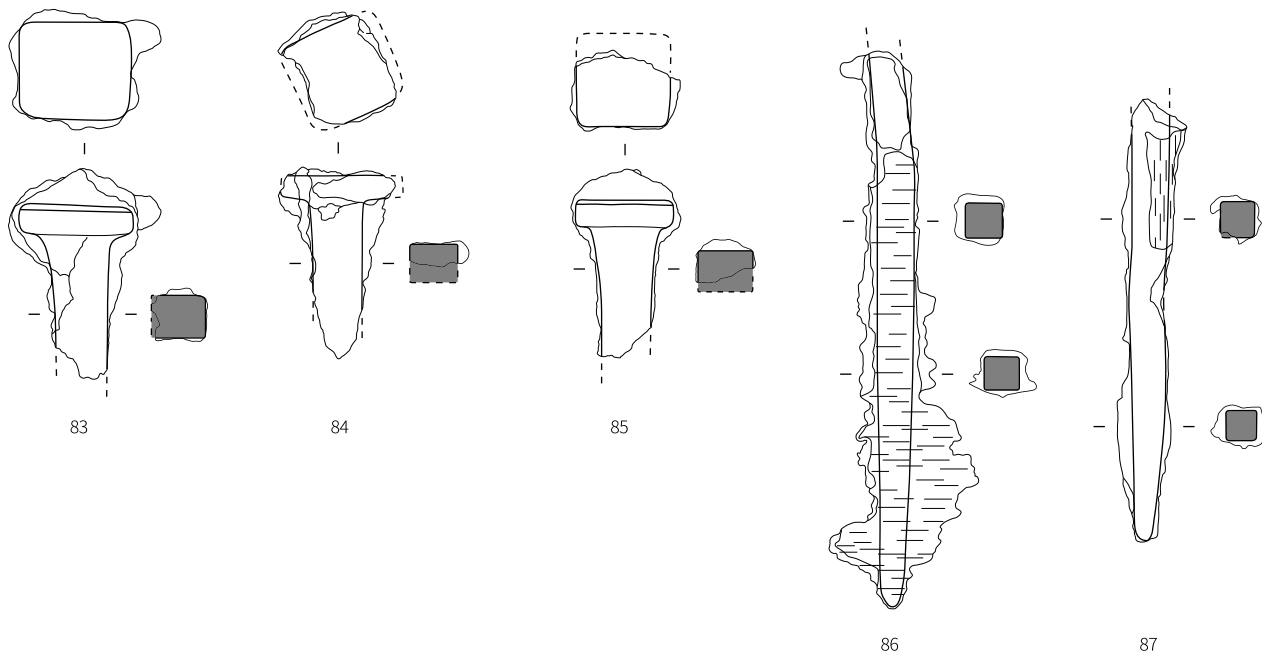
연 번	소장품번호	전체길이 (잔존)	두부			신부			목질흔		도면	사진
			형태	높이	너비	길이(잔존)	너비	단면형태	방향	길이		
73	부여고적76(72-1)	(9.76)	방형	0.32	(0.91)×1.19	(9.27)	0.46×0.34 0.43×0.32	방형	횡	횡(1.11), (2.22)	도판 77-73	도판 81-73
74	부여고적76(72-2)	(9.1)	방형	0.29	(1.01)×(1.28)	(8.69)	0.6×(0.32) (0.38)×(0.3)	방형	횡	횡(5.28)	도판 77-74	도판 81-74
75	부여고적76(72-4)	(6.15)	방형	0.32	(1.1)×(0.88)	(5.77)	(0.29)×0.45 0.41×0.32	방형	횡	횡(2.78)	도판 77-75	도판 81-75
76	부여고적76(72-7)	(5.63)	방형	(0.32)	(1.15)×(0.9)	(5.28)	0.55×0.41 0.5×0.37	방형	횡	횡(0.95)	도판 77-76	도판 81-76
77	부여고적76(72-11)	(5.13)	방형	0.46	1.4×1.49	(4.17)	0.58×0.54	방형	횡	횡(0.81)	도판 77-77	도판 81-77
78	부여고적76(72-10)	(4.62)	방형	0.37	1.31×1.23	(3.87)	0.56×(0.18)	방형	횡	횡(3.45)	도판 77-78	도판 81-78
79	부여고적76(72-12)	(3.06)	방형	0.33	1.06×1.06	(2.27)	0.54×0.39 0.43×0.3	방형	횡	횡(2.27)	도판 77-79	도판 81-79
80	부여고적77	(2.84)	방형	0.33	1.12×1.11	(2.11)	0.47×0.46	방형	횡	횡(2.15)	도판 77-80	도판 81-80
81	부여고적76(72-16)	(0.72)	방형	0.5	1.27×1.25	(0.19)	-	방형	횡	횡(0.19)	도판 77-81	도판 81-81
82	부여고적76(72-3)	(6.85)	방형	0.4	(0.8)×(0.95)	(6.37)	0.68×(0.4) 0.51×(0.34)	방형	-	-	도판 77-82	도판 81-82
83	부여고적76(72-13)	(2.78)	방형	0.4	1.48×1.29	(1.93)	0.71×0.56	방형	-	-	도판 78-83	도판 82-83
84	부여고적76(72-19)	(2.53)	방형	0.33	(1.39)×1.25	(2.21)	0.63×(0.3)	방형	-	-	도판 78-84	도판 82-84
85	부여고적76(72-14)	(2.49)	방형	0.35	1.24×(1.01)	(1.72)	0.72×(0.41)	방형	-	-	도판 78-85	도판 82-85
86	부여고적76(72-38) + 부여고적76(72-61)	(7.37)	-	-	-	(7.37)	0.48×0.46 4.65×4.42	방형	횡	횡(6.04)	도판 78-86	도판 82-86
87	부여고적76(72-22)	(5.85)	-	-	-	(5.85)	0.45×0.47 0.4×0.39	방형	종	종(1.58)	도판 78-87	도판 82-87
88	부여고적76(72-62)	(5.75)	-	-	-	(5.75)	0.38×0.36 0.27×0.24	방형	횡+종	횡(0.3)+종(4.64)	도판 78-88	도판 82-88
89	부여고적76(72-59)	(4.83)	-	-	-	(4.83)	0.46×0.43	방형	횡	횡(4.83)	도판 78-89	도판 82-89
90	부여고적76(72-21)	(4.73)	-	-	-	(4.73)	0.44×0.44	방형	횡	횡(1.53)	도판 78-90	도판 82-90
91	부여고적76(72-33) + 부여고적76(72-44)	(4.65)	-	-	-	(4.65)	0.53×0.47	방형	횡	횡(2.62)	도판 78-91	도판 82-91
92	부여고적76(72-53)	(4.38)	-	-	-	(4.38)	0.35×0.35	방형	횡+종	횡(0.2)+종(3.28)	도판 78-92	도판 82-92
93	부여고적76(72-24)	(4.33)	-	-	-	(4.33)	0.59×0.51	방형	종	종(2.2)	도판 78-93	도판 82-93
94	부여고적76(72-65)	(4.17)	-	-	-	(4.17)	0.37×0.37 0.2×0.2	방형	종	종(4.17)	도판 78-94	도판 82-94
95	부여고적76(72-41)	(4.0)	-	-	-	(4.0)	3.69×3.35	방형	횡	횡(1.8)	도판 78-95	도판 82-95
96	부여고적76(72-48)	(3.95)	-	-	-	(3.95)	0.34×0.29 0.29×0.24	방형	종	종(3.07)	도판 78-96	도판 82-96
97	부여고적76(72-25)	(3.76)	-	-	-	(3.76)	0.45×0.45	방형	종	종(2.45)	도판 79-97	도판 83-97
98	부여고적76(72-42)	(3.62)	-	-	-	(3.62)	0.75×0.38	방형	횡	횡(2.19)	도판 79-98	도판 83-98
99	부여고적76(72-58)	(3.3)	-	-	-	(3.3)	0.45×0.42 0.32×0.3	방형	종	종(1.45)	도판 79-99	도판 83-99
100	부여고적76(72-54)	(3.26)	-	-	-	(3.26)	0.39×0.39 0.34×0.34	방형	횡	횡(3.26)	도판 79-100	도판 8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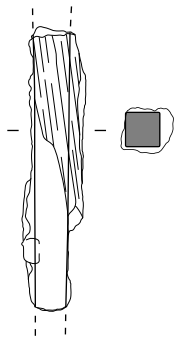
연 번	소장품번호	전체길이 (잔존)	두부			신부			목질흔		도면	사진
			형태	높이	너비	길이(잔존)	너비	단면형태	방향	길이		
101	부여고적76(72-51)	(3.21)	-	-	-	(3.21)	0.28×0.28	방형	중	중(1.27)	도판 79-101	도판 83-101
102	부여고적76(72-46)	(1.88)	-	-	-	(1.88)	0.3×0.3	방형	횡	횡(1.88)	도판 79-102	도판 83-102
103	부여고적76(72-34) + 부여고적76(72-57)	(5.61)	-	-	-	(5.61)	0.51×0.49 0.32×0.31	방형	-	-	도판 79-103	도판 83-103
104	부여고적76(72-72)	(5.36)	-	-	-	(5.36)	0.49×0.5 0.33×0.33	방형	-	-	도판 79-104	도판 83-104
105	부여고적76(72-60)	(5.19)	-	-	-	(5.19)	0.56×0.51 0.48×0.4	방형	-	-	도판 79-105	도판 83-105
106	부여고적76(72-64)	(4.96)	-	-	-	(4.96)	0.5×0.4	방형	-	-	도판 79-106	도판 83-106
107	부여고적76(72-71)	(4.8)	-	-	-	(4.8)	0.47×0.46 0.35×0.35	방형	-	-	도판 79-107	도판 83-107
108	부여고적76(72-66)	(4.05)	-	-	-	(4.05)	0.36×0.36 0.2×0.2	방형	-	-	도판 79-108	도판 83-108
109	부여고적76(72-20)	(3.74)	-	-	-	(3.74)	0.79×0.47 0.45×0.24	방형	-	-	도판 79-109	도판 83-109
110	부여고적76(72-49)	(3.73)	-	-	-	(3.73)	0.47×0.44 0.33×0.31	방형	-	-	도판 79-110	도판 83-110
111	부여고적76(72-26)	(3.59)	-	-	-	(3.59)	0.47×0.47	방형	-	-	도판 79-111	도판 83-111
112	부여고적76(72-50)	(3.53)	-	-	-	(3.53)	0.41×0.4	방형	-	-	도판 80-112	도판 83-112
113	부여고적76(72-39)	(3.47)	-	-	-	(3.47)	0.48×0.45	방형	-	-	도판 80-113	도판 84-113
114	부여고적76(72-32)	(3.13)	-	-	-	(3.13)	0.67×0.53	방형	-	-	도판 80-114	도판 84-114
115	부여고적76(72-70)	(3.13)	-	-	-	(3.13)	0.41×0.27 0.28×0.18	방형	-	-	도판 80-115	도판 84-115
116	부여고적76(72-29)	(3.04)	-	-	-	(3.04)	0.9×(0.39) 0.52×0.34	방형	-	-	도판 80-116	도판 84-116
117	부여고적76(72-52)	(2.8)	-	-	-	(2.8)	0.4×0.33	방형	-	-	도판 80-117	도판 84-117
118	부여고적76(72-56)	(2.47)	-	-	-	(2.47)	0.53×0.46	방형	-	-	도판 80-118	도판 84-118
119	부여고적76(72-55)	(2.4)	-	-	-	(2.4)	0.38×0.38	방형	-	-	도판 80-119	도판 84-119
120	부여고적76(72-36)	(1.91)	-	-	-	(1.91)	0.56×0.49	방형	-	-	도판 80-120	도판 84-120
121	부여고적76(72-35)	(1.9)	-	-	-	(1.9)	0.47×0.39 0.4×(0.24)	방형	-	-	도판 80-121	도판 84-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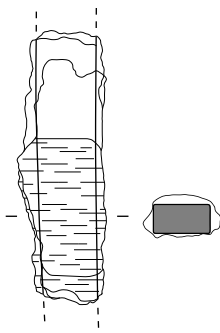
[도판 77] 2호분 출토 철제 관정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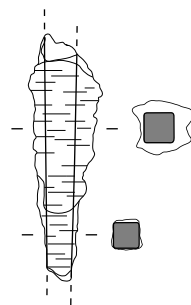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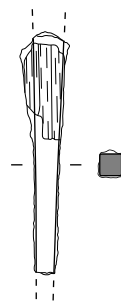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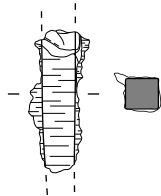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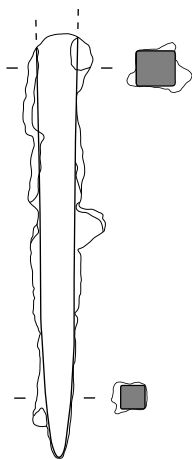
100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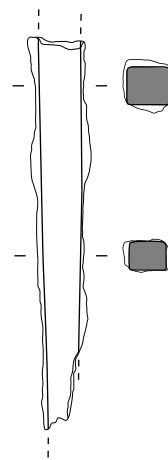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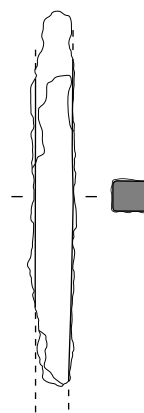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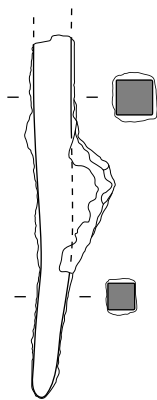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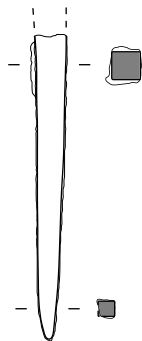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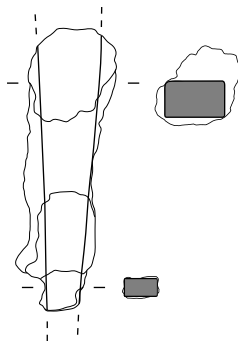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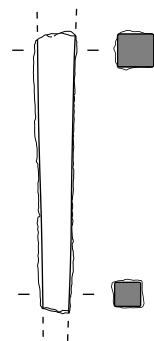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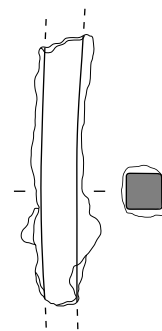
108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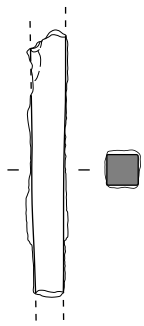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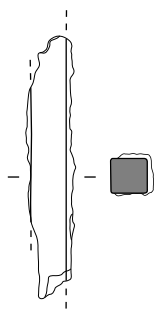
111

[도판 79] 2호분 출토 철제 관정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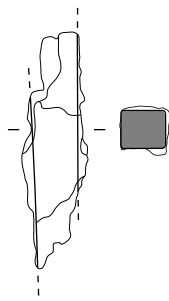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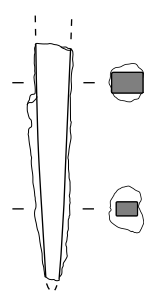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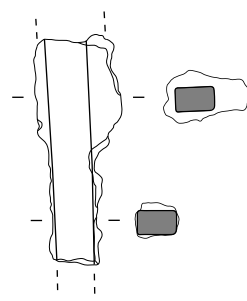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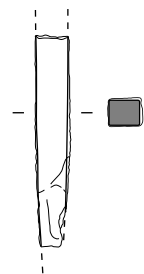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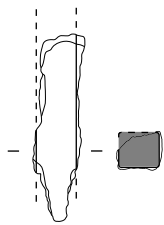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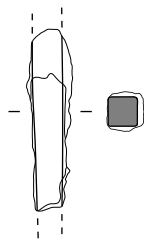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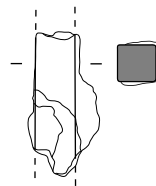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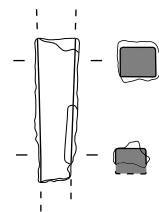
118



119



120



121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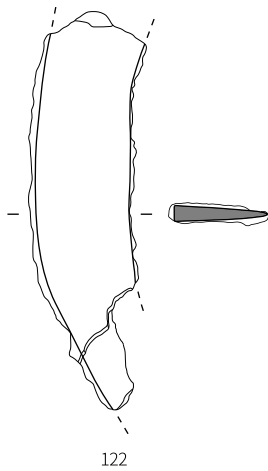
121

[도판 84] 2호분 출토 철제 관정 사진

다. 불명 철기

[표 13] 2호분 출토 불명 철기

연번	소장품번호	길이(잔존)	폭(잔존)	두께	도면	사진
122	부여고적75	(5.26)	(1.32)	(0.2)	도판 85-122	도판 85-122



122

[도판 85] 2호분 출토 불명 철기 도면 및 사진



2) 2호분

(1) 조사 경과

[표 10] 2호분 조사 경과

조사일	조사내용	비고
4.3.~5.	봉분 확인 및 사진 촬영 등	
4.6.	묘도 확인 및 석실 천장부 노출	
4.7.	연도 전면前面 노출 및 정리, 사진 촬영(사와)	
4.8.	연도 전면 실측. 연문 및 현문 문비석 제거	
4.9.	석실 위치 측정 및 평면도 기입(우메하라, 사와, 카가미야마)	
4.10.	현실 내부 조사	
4.11.	석실 내부 실측(카가미야마) ⁴⁵ 및 사진 촬영 (사와). 조사 완료.	
4.12.	문비석 폐쇄 및 복토	
4.15.	복토 완료	

(2) 석실



[도판 66] 2호분 봉분(남동→북서, 건판 13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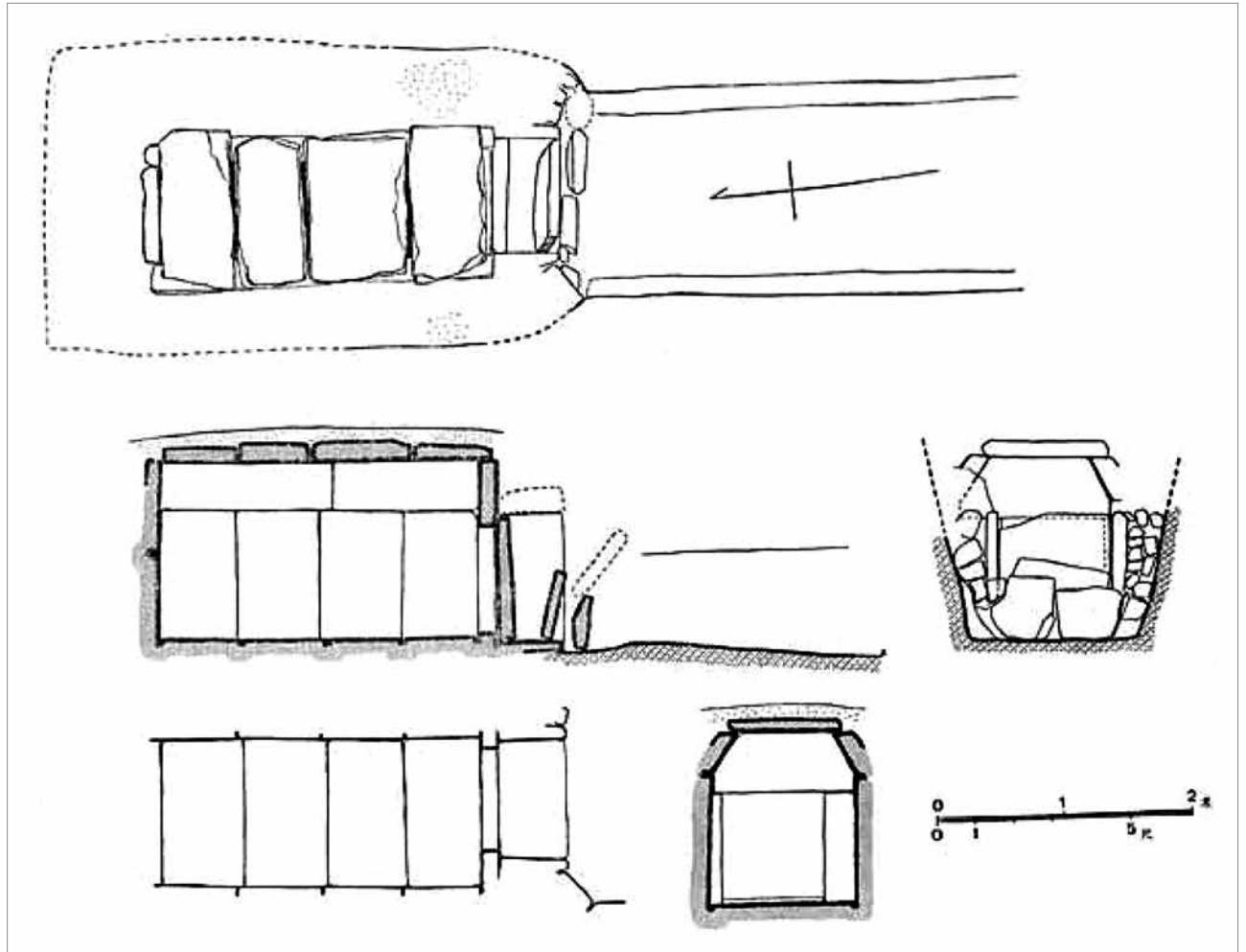


[도판 87] 3호분 봉분(남서→북동, 건판 13476)



[도판 88] 3호분 봉분(남→북, 건판 13477)

3호분은 고분군 내 서쪽 구릉의 하단부에 위치하며, 2호분으로부터 북서쪽으로 45m 정도 떨어져 있다. 3호분은 조사범위 내에 소나무가 식재된 상태였다. 이에 조사단은 위령식에 참석한 부여군수와 경찰서장에게 소나무 벌채 허가를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봉분의 잔존 높이는 2m 정도이며, 지름은 20m 정도였다[도판 86~88]. 매장주체부 시설로 황혈식 석실 1기가 안치되었으나, 잔존하는 봉분 범위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치우친 상태였다. 이에 우메하라 스에지는 고분 내에 매장주체부가 복수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석실 동쪽으로 조사범위를 확장하였으나, 추가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메하라 스에지는 잔존하는 봉분의 형태가 본래의 규모 및 범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도판 89] 3호분 석실(『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3호분은 1·2호분과 마찬가지로 평사천장의 단면 육각형 석실 구조이나, 벽석으로 장대석 대신 정연하게 치석한 판석을 사용한 것이 차이이다[도판 89]. 양장벽은 각각 4매씩의 방형 판석을 세워 축조하였으며, 북벽은 1매의 대형 판석을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천장은 벽석보다 거칠게 가공한 4매의 판석을 올려 덮었다[도판 90·91]. 석실 벽면에서 주춧돌을 칠한 흔적도 확인되었다. 현실 바닥은 천장석과 비슷한 석재를 깔아 마감하였다. 현실 규모는 길이 250cm, 너비 114cm, 높이는 137cm 정도이다.

현문은 문틀식 구조로 축조하였다. 현문을 막은 문비석으로 두께 12~13cm 정도의 판상석 1매를 사용하였다[도판 92]. 다른 고분의 현문 및 연문 문비석은 대부분 두껍고 바깥으로 노출된 부분이 배가 부른 형태이며 문비석 중앙에 방형 홈이 있는데 반해[도판 47·70], 3호분의 현문 문비석은 두께가 얇고 방형 홈도 없는 것이 차이가 보인다.

연도의 양 측벽과 천장은 각 1매씩의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연도 규모는 길이 54cm, 너비 89cm 정도이며, 동고분군 내에서 가장 짧다. 1·2호분과 달리 연도가 현실의 우측에 편재된 것이 특징이다. 연문의 문비석은 도굴로 훼손된 상태였으나, 4매의 판석을 조합하여 연문을 막고 그 외부에는 할석을 덧댄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 90] 3호분 현실 천장(건판 13479)



[도판 91] 3호분 현실 천장석 제거(건판 13480)



[도판 92] 3호분 묘도 및 연도(건판 13481)



[도판 93] 3호분 조사 모습(건판 13482)

(3) 출토 유물

현재 3호분 출토품으로 전해지는 유물은 목관 편 2점으로, 모두 금속제 장식품 등을 결합한 흔적이 확인된다. 연번 123은 세장방형의 홈을 중심으로 이보다 작은 6개의 홈이 주위를 두르고 있다. 목관재를 관통하는 대형 금속 장식품과 그 주변에 부착된 화형 혹은 원형 금구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주변의 작은 홈은 금구를 고정하기 위해 못을 박았던 흔적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철제 관정의 폭보다 크고, 형태가 방형 혹은 타원형이다. 따라서 철제 못을 타격하여 박은 것보다는 청동 혹은 금동 못과 같은 비교적 무른 재질의 못을 끼워 넣기 위해 미리 자리를 파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연번 124는 방형 홈의 크기와 형태를 보아 관고리를 고정하였던 배목의 신부를 관통시켰던 흔적으로도 볼 수 있으나, 3호분뿐 아니라 동고분군 내에서 관고리가 출토된 예가 없어 분명하지 않다.

이 외에도 3호분에서 다수의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인다. 우메하라 스에지는 능산리 동고분군 발굴조사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3호분 출토품의 발견을 꼽았으며, 보고서에도 3호분 출토품을 소개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러나 현재 위에 기술한 목관 편 2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당시 작성된 보고서와 유리건판사진, 출토품 기록카드 등을 토대로 3호분 출토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에 기술한 2점의 목관 편 외에 금동 관정이 박힌 목관 편과 원형 금구 및 관정의 흔적이 있는 목관 편[도판 89-①·②]도 발견되었다. 후자의 경우, 금구의 형태와 금구를 고정하였던 못의 크기, 그리고 금구 중앙의 투공 형태 등이 연번 123과도 차이를 보인다. 출토품 기록카드에는 2점을 제외한 나머지 목관 편은 석실 내에 두고 복토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금동제 관정과 금구 흔적이 있는 목관 편은 목재 수종분석 등을 이유로 일본에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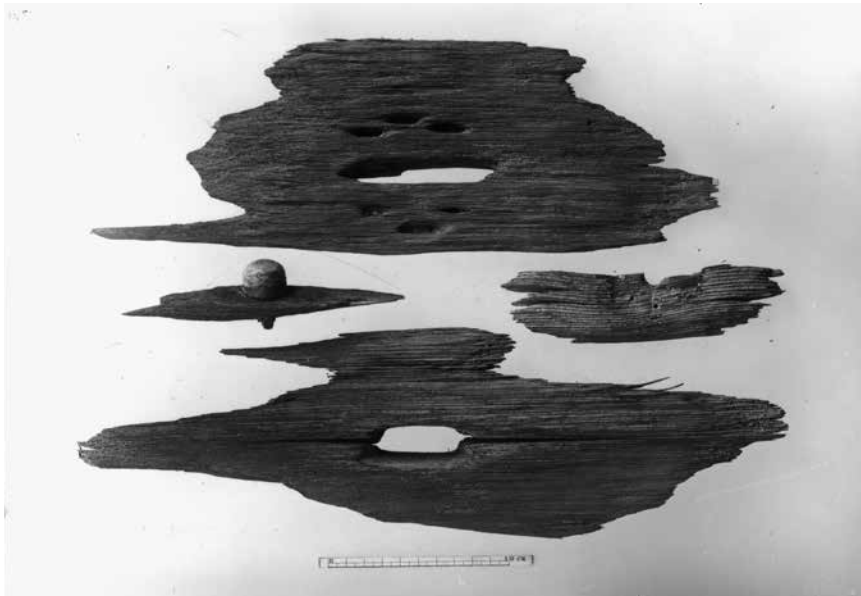
관정은 금동제 관정과 철제 관정이 수습되었다. 금동제 관정은 두부 지름이 2.4cm, 전체 길이는 4cm 정도이며, 이 가운데 1점은 위에 기술한 목관 편에 부착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도판 94-①·②]. 이 외에도 두부가 작은 금동제 관정과 철제 관정 등도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도판 94-③].

목관 편에 남은 금구 흔적 외에도 화형 금구 2점이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1점은 8엽의 꽃잎 사이사이에 총 8개의 소형 동제 관정을 박아 고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도판 95-①]. 금구 중앙에는 원형의 투공이 있으며, 우메하라 스에지는 이 곳에 위에 기술한 금동제 관정을 박았을 것으로 보았다. 목관 편에 남아있는 금구 흔적을 포함하여 3호분의 목관에는 3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금구가 부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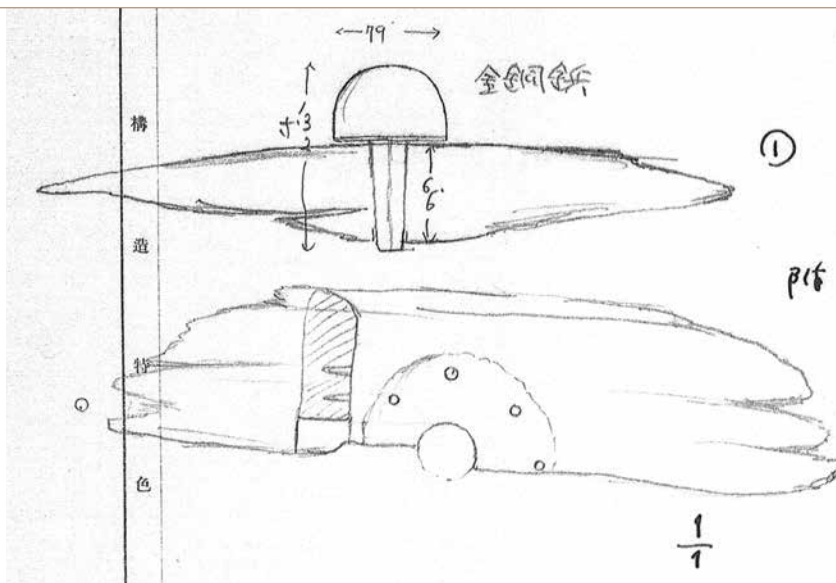
이 외에도 다양한 금속 공예품과 옥제품이 발견되었다. 금제 장식품은 두 개의 얇은 원형 금판을 금실로 연결한 것으로, 이 가운데 한 개는 연꽃무늬가 정밀하게 투조되었다[도판 95-②]. 또한 수 점의 금과 은으로 만든 구슬류와 옥류도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길이 1.5cm 정도의 타원형 옥 위에 누금기법으로 인동문을 장식한 금제 장식품을 씌운 것도 있다[도판 95-③]. 능산리 고분군 4호 서상층에서도 옥은 결실되었으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금제 장식 2점이 발견된 바 있다. 아울러 조사 당시 석실 내부 바닥에는 금실이 산재되어 있었다.

3호분에서는 봉토 조사 중 여러 점의 토기 편과 함께 온전한 상태의 합 1점이 발견되었다[도판 95-④]. 뚜껑에는 보주형 손잡이가 달려있으며, 몸체는 낮은 대각이 달린 전형적인 사비시기 대부완이다. 대부완의 구경은 12.7cm 정도이며, 뚜껑을 포함한 전체 높이는 13.9cm 정도이다. 이 합은 묘도에 해당하는 지점의 지표면 35cm 정도 아래에서 뉘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출토 양상만으로는 이 유물이 석실과 관련된 부장품 혹은 의례 등의 흔적인지 파악하기 어렵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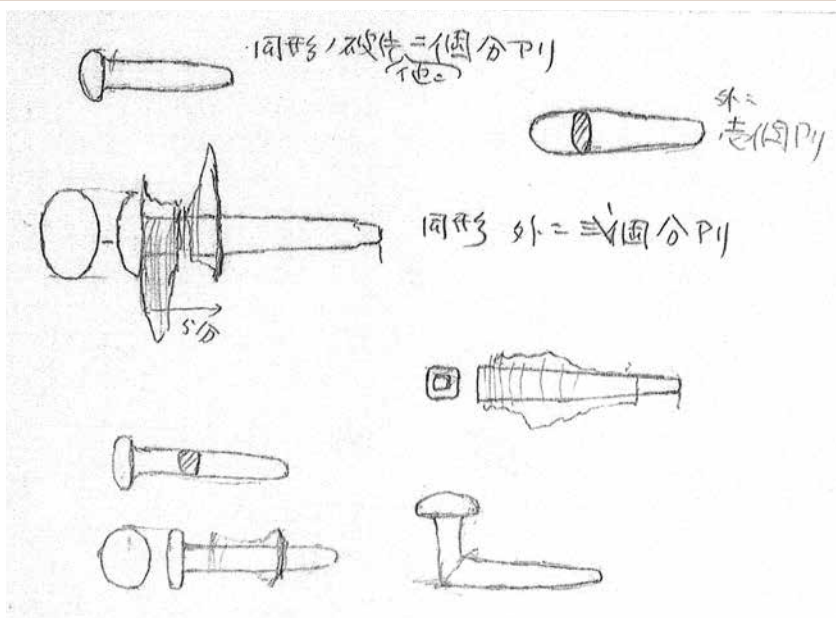
47. 조사자도 이 유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였다.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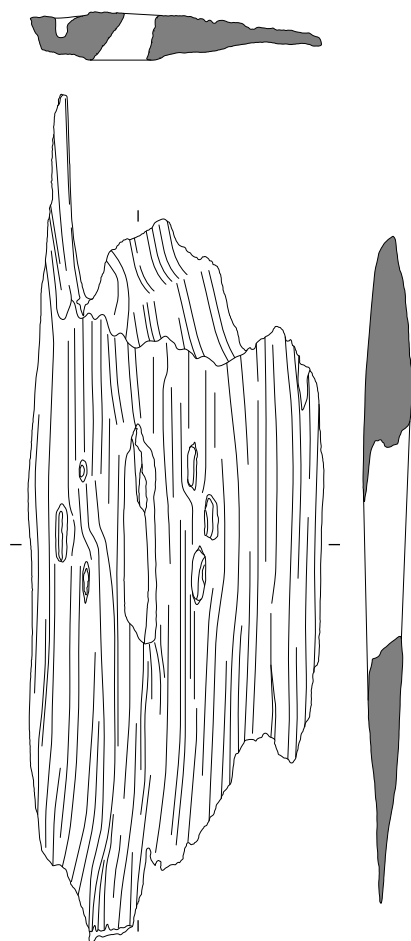
③

가. 목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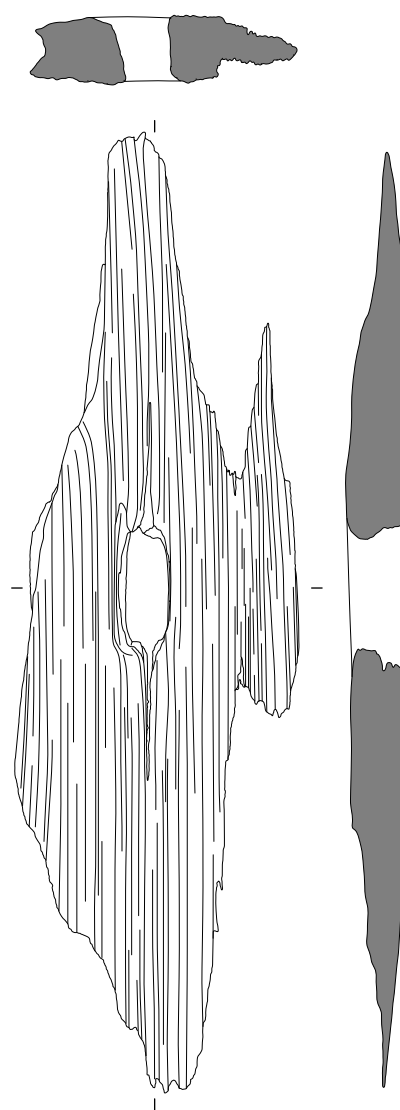
[표 15] 3호분 출토 목관 편

단위: cm

도판 96	소장품번호	길이	폭	최대 두께	도면	사진
123	부여고적91(2-1)	(33.67)	(11.75)	(1.95)	도판 96-123	도판 97-123
124	부여고적91(2-2)	(38.15)	(11.27)	(2.76)	도판 96-124	도판 97-124



123



124

[도판 96] 3호분 출토 목관 편 도면





123



124

4) 4호분

(1) 조사 경과

[표 16] 4호분 조사 경과

조사일	조사내용	비고
4.6.	석재 노출 상황 주민 제보	
4.7.	연문 천장 및 문비석 확인	
4.8.	묘도 조사, 연도 전방부의 할석 축조 벽면 실측(우메하라)	
4.9.	연도 조사 및 실측(우메하라)	
4.10.	연도 사진 촬영 및 현실 내부 조사	
4.11.	석실 실측 완료	
4.12.	석실 내부 사진 촬영(사와) 및 실측 보완(우메하라), 문비석 폐쇄	
4.15.	복토 완료	

(2) 석실

4호분은 고분군 내 서쪽 구릉에 3호분과 함께 남-북으로 분포하였다. 잔존하는 봉분 중심을 기준으로 구릉 하단부에 있는 3호분에서 북쪽으로 25m 정도 떨어져 위치한다. 조사 당시 정확한 봉분의 형태와 규모 등은 파악할 수 없었으나, 이미 석실의 부재가 일부 노출된 상태여서 고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실의 규모는 길이 300cm, 너비 173cm 정도로 고분군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3호분과 마찬가지로 대형 판석을 이용하여 석실을 축조하였다. 다만 양 장벽 축조시 각각 3매의 대형 석재를 세운 후, 그 위에 장대석 한 단을 더 올린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른 동고분군 석실은 모두 양 장벽을 세운 후 장대석 1단을 경사지게 쌓아 천장으로 연결한데 반해, 4호분은 경사면에 장대석을 2단으로 쌓은 것이 차이를 보인다. 북단벽은 상단 양쪽 모서리가 절석된 대형 판석 1매를 세워 축조하였다[도판 100·101]. 북단벽에서는 석재의 가공 또는 석실 축조 시에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먹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먹줄은 동고분군 5호분과 익산 쌍릉 대왕릉의 석실 벽석 및 내부에서 출토된 목관에서도 확인되었다. 당시 치밀한 계산과 측량으로 석재 가공 및 석실 축조, 목관 제작 등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재 사이사이에서 회 흔적이 확인되는데, 석재 조립시 석재 사이의 간극에 회를 채워 더욱 견고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도판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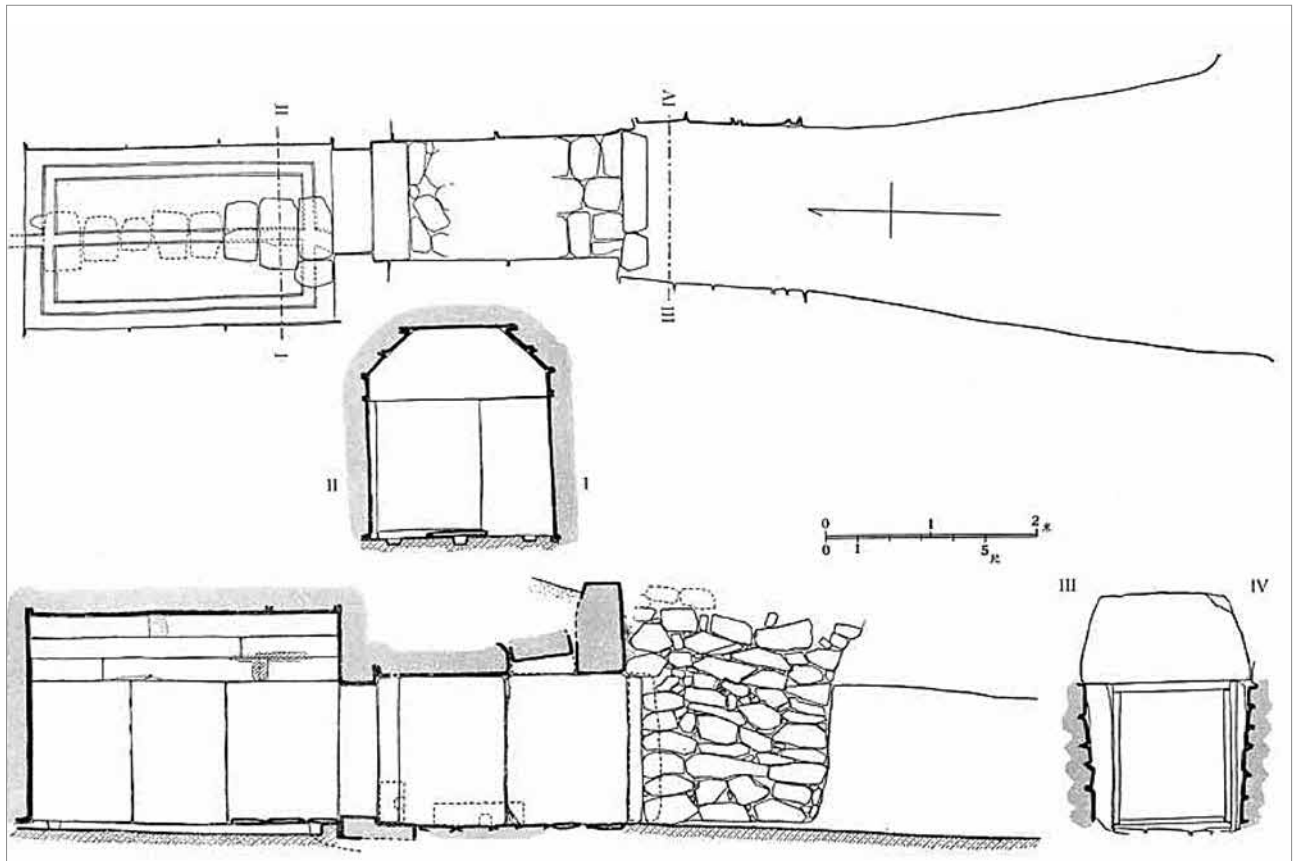
4호분은 현실의 바닥 구조가 다른 고분과 큰 차이를 보인다. 바닥의 중앙 및 벽면 부근에 도랑이 확인된다. 목관 2기를 안치하기 위해 바닥 면을 구획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⁴⁸, 이는 현실 내 배수를 목적으로 판 배수로이다[도판 102~104]. 현실 안쪽의 도랑 깊이가 6cm 정도인 데 반해, 현문과 가까운 쪽은 깊이가 9cm 정도여서 현실 내부의 물이 입구 쪽으로 원활히 모이도록 하였다. 남서쪽 모서리에는 이렇게 모인 물이 현실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배수공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실 중앙의 배수로 위에 판상석⁴⁹ 여러 매를 1열로 깔아서 덮었다[도판 102]. 그리고 그 위에 목관 1기를 안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실 내부의 배수시설은 능산리 일대 다른 고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동고분군 4호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현문은 전형적인 문틀식 구조로, 현문 앞은 판석 2매를 상하로 쌓아 폐쇄하였다.

48. 우메하라 스에지도 조사 당시에는 목관 안치와 관련된 시설로 보았으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이를 수정하였다.

49. 보고자는 연도의 바닥석으로 주로 녹니편암(綠泥片岩, chlorite schist)이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도판 98] 4호분 조사 모습(건판 13483)



[도판 99] 4호분 석실(『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도판 100] 4호분 현실(건판 13488)



[도판 101] 4호분 현실 서장벽(건판 13492)



[도판 102] 4호분 현실 바닥(건판 13489)



[도판 103] 4호분 현실 배수로(남→북, 건판 13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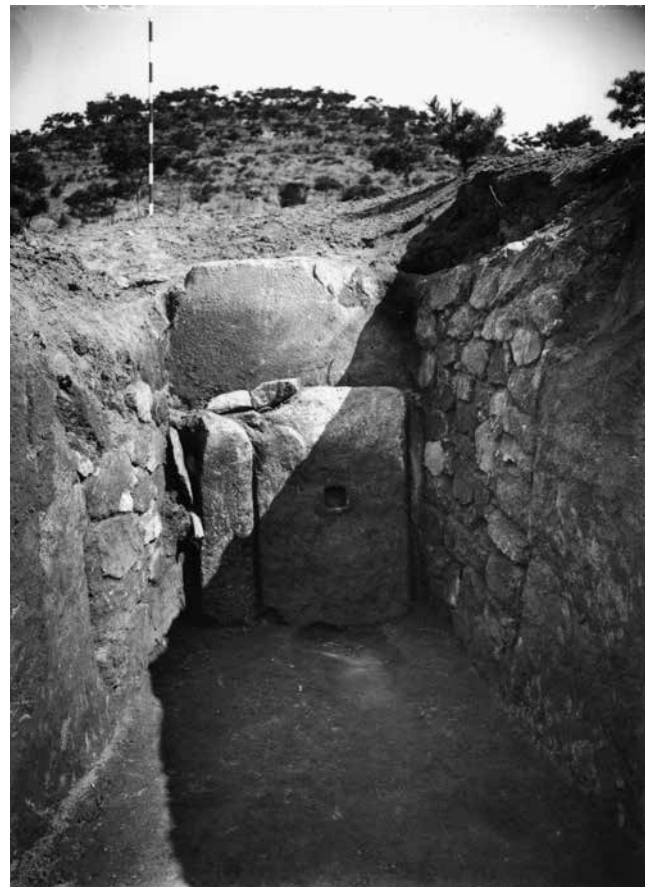


[도판 104] 4호분 현실 배수로(북→남, 건판 13491)

4호분의 연도는 길이 236cm 정도로, 고분군 내에서 가장 세장하다. 연도는 현실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약간 편재된 구조이다. 양 측벽은 각각 대형 판석 2매씩을 이용하여 세웠으며, 천장에는 판석 3매를 덮었다. 연도 바닥에는 현실 바닥 중앙의 배수로 위에 1열로 배치한 판상석과 동일한 석재를 정연하게 깔았다. 연문은 가운데 홈이 있는 방형 석재 1매와 세장방형 석재 1매를 나란히 세워서 폐쇄하였다. 연도 앞으로 긴 묘도가 연결되었으며, 연문으로부터 1.5m 정도 구간은 양 측벽에 할석을 쌓아 벽면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도판 106].



[도판 105] 4호분 연도(건판 13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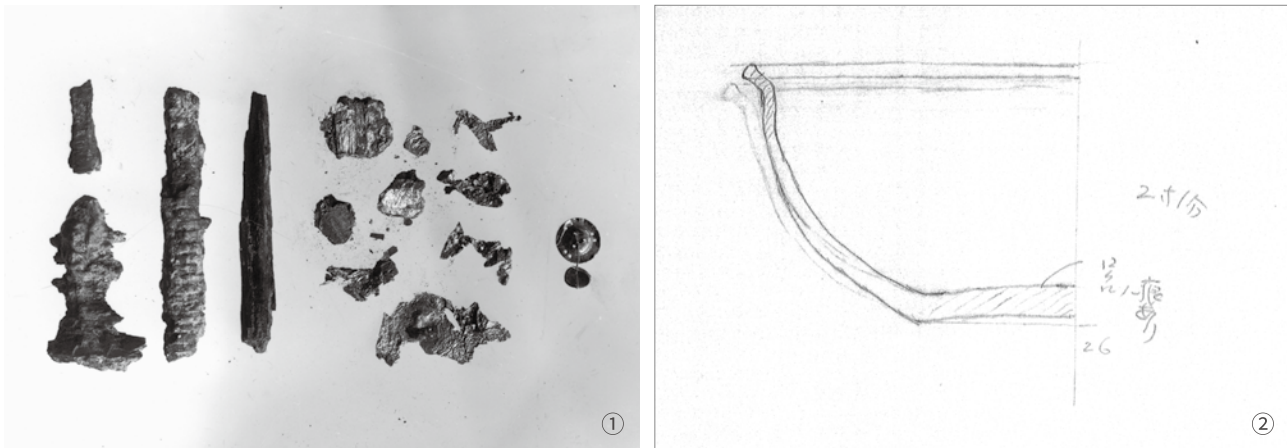
[도판 106] 4호분 묘도 및 연도 문비석(건판 13485)

(3)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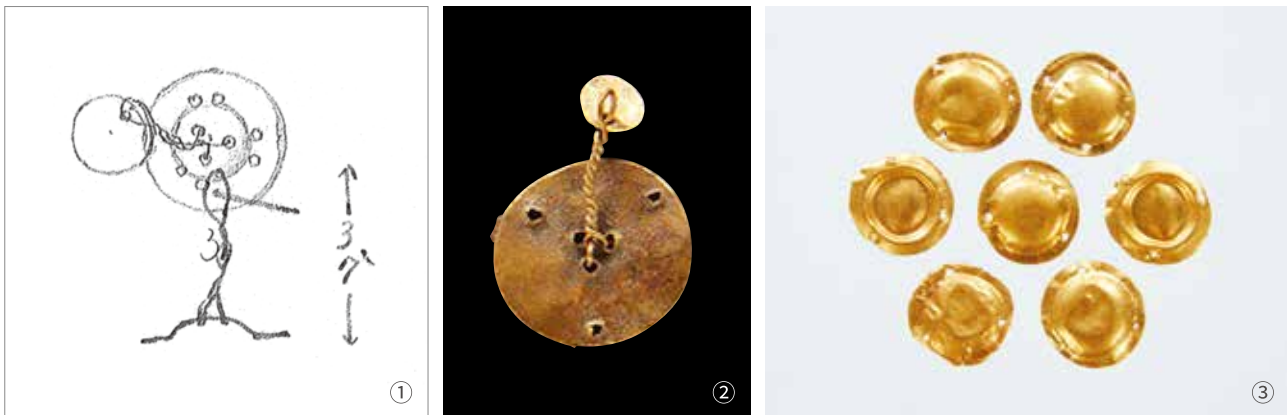
석실 내부에서 목관 편과 철제 관정, 영락이 달린 금제 장식품, 금박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목관 편 2점뿐이다. 동고분군 2호분과 3호분에서 수습된 목관 편은 모두 관재의 표면이 결실되었으나⁵⁰, 4호분 출토 목관 편 가운데 1점은 관재의 양쪽 표면이 남아있어 장식기법을 엿볼 수 있다. 4호분 출토 목관 편에는 흑칠이 칠해졌다. 두께는 3.1cm 정도로, 능산리 1호 동하층 목관의 두께가 5cm 정도였던 것에 비해 두께가 얇다⁵¹.

이 외에 수 점의 철제 관정과 금제 장식품이 발견되었으나,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도판107-①·108-②]. 금제 장식품은 지름 1.0cm 정도의 얇은 원형 판으로, 금실로 연결된 영락을 달고 있다. 장식품 중앙에 금실을 엮기 위한 구멍이 3개 있으며, 테두리 부분에는 장식품을 고정하는 못구멍이 6개 확인된다[도판 108-①]. 전체적인 형태가 무령왕릉에서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무령왕릉 출토품은 금실을 연결하는 구멍이 2개, 장식품을 고정하는 구멍이 3개인 것이 차이를 보인다. 능산리 고분군 출토품 가운데는 4호 서상층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도판 108-②]. 그러나 동고분군 4호분 출토품의 경우 금제 원형 판의 가운데가 솟은 단면 모자형이나, 능산리 고분군 서상층 출토품은 편평한 형태이다. 영락은 달려 있지 않으나 능산리 고분군 1호 동하층에서 출토된 단면 모자형의 원형 장식품과도 유사하다[도판 108-③].

이외에도 4호분 조사를 시작하기 전, 노출 된 석재 옆에서 구연이 외반한 완 1점이 발견되었다[도판 107-②]. 우메하라 스에지는 이 출토품이 고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출토품 기록카드에는 유물의 복원을 위해 교토로 반출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도판 107] 4호분 출토품 ① 철제 관정 및 금속 장식품(건판 13511), ② 완(梅原考古写真資料庫)



[도판 108] 부여 능산리 일대 고분군 출토 금제 장식품 ① 능산리 동고분군 3호분 출토품(梅原考古写真資料庫), ② 능산리 서상층 출토품, ③ 능산리 동하층 출토품

50. 3호분 출토 목관 편 가운데 관재의 표면까지 남아있는 편이 발견되었으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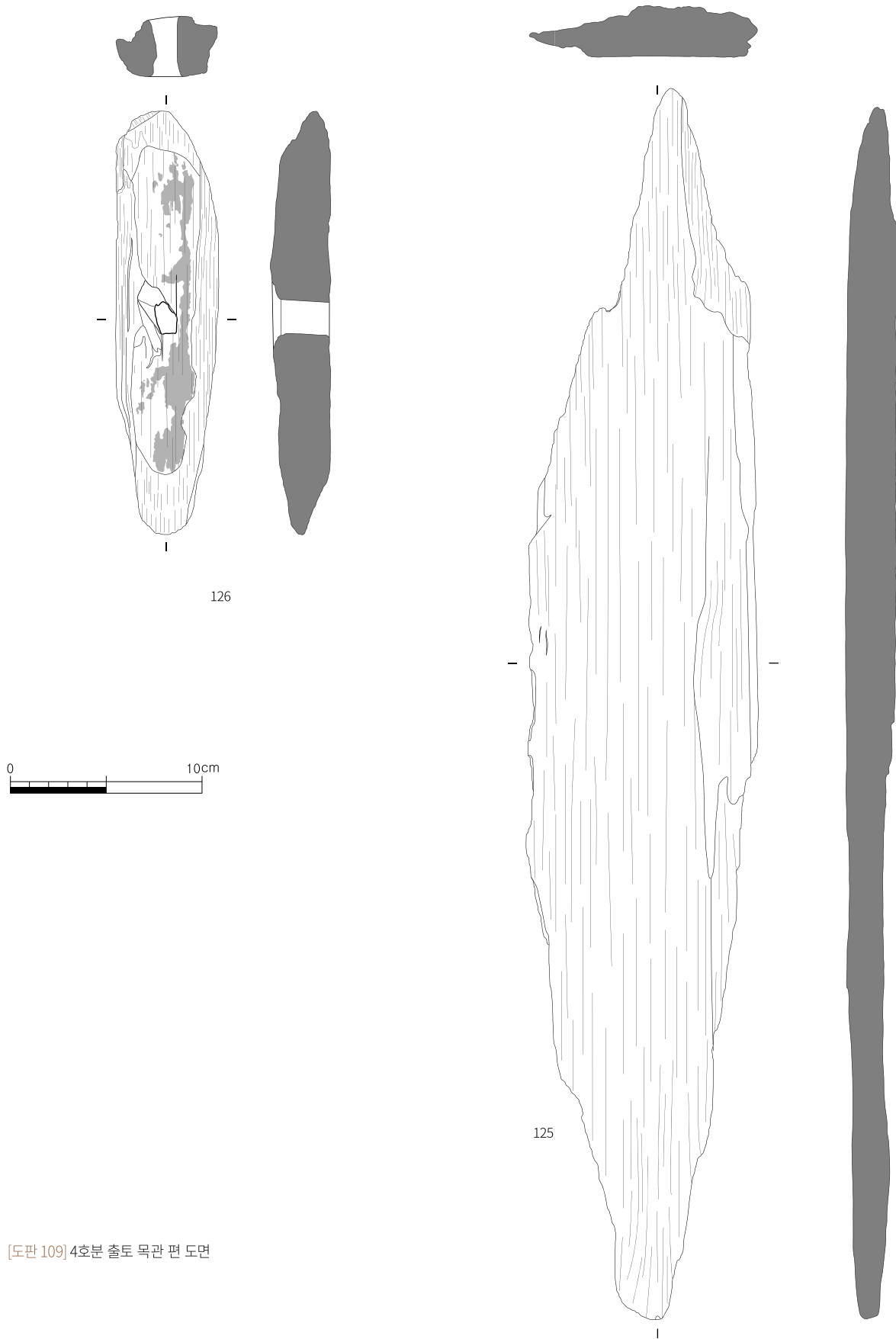
51. 능산리 1호 동하층 목관의 마구리면을 장식하였던 금동장식판의 폭은 6.1~6.5cm 정도이다.

가. 목관 편

[표 17] 4호분 출토 목관 편

단위: cm

연번	소장품번호	길이	폭	최대 두께	도면	사진
125	부여고적89(2-1)	(64.12)	(12.0)	(2.68)	도판 109-125	도판 110-125
126	부여고적89(2-1)	(22.05)	(5.37)	(3.13)	도판 109-126	도판 110-126



[도판 109] 4호분 출토 목관 편 도면



125



126

[도판 110] 4호분 출토 목관 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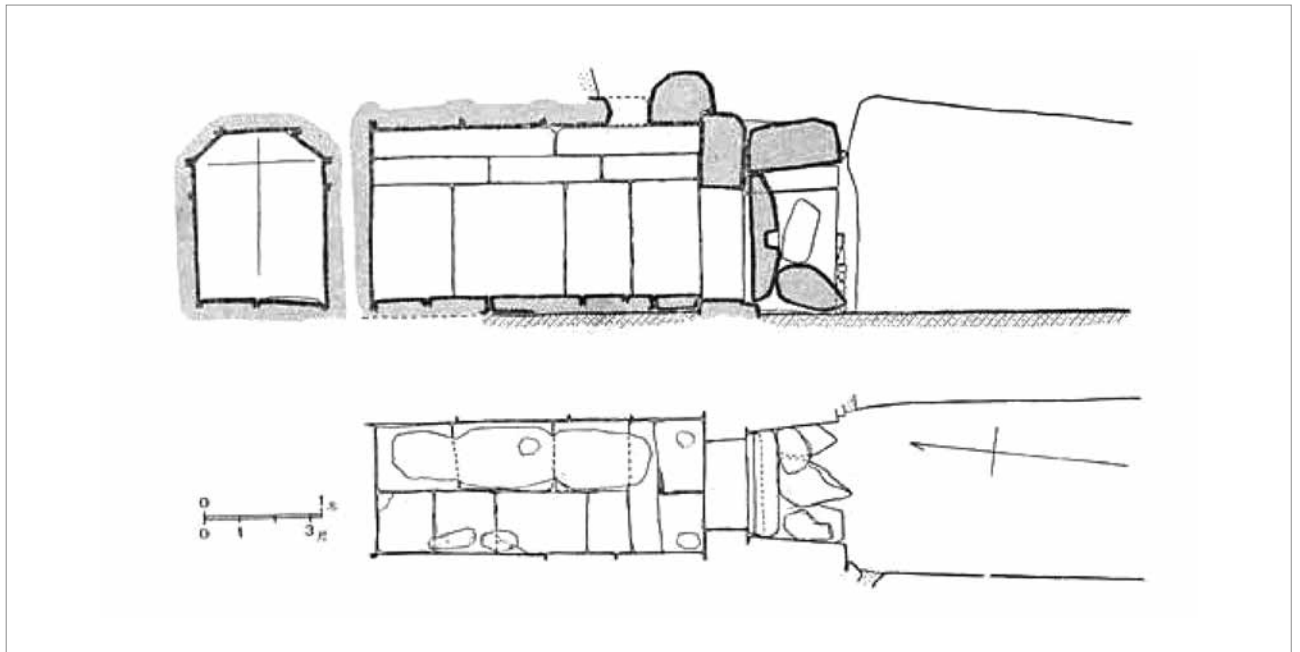
5) 5호분

(1) 조사 경과

[표 18] 5호분 조사 경과

조사일	조사내용	비고
4.11.	고분 확인, 제토 실시	
4.12.	연문 천장 확인	
4.13.	연도 조사, 연문 사진 촬영(사와) 및 실측(우메하라). 현실 내부 조사 시작.	
4.15.	현실 내부 조사 완료. 현실 실측(우메하라) 및 사진 촬영(사와). 문비석 폐쇄 및 복토 완료	

(2) 석실



[도판 111] 5호분 석실(『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5호분은 고분군 내 중앙 능선에 2호분과 남-북으로 분포하였다. 능선 하단에 있는 2호분에서 북쪽으로 30m 정도 떨어져 위치한다. 봉분은 크게 훼손되어 형태와 규모가 불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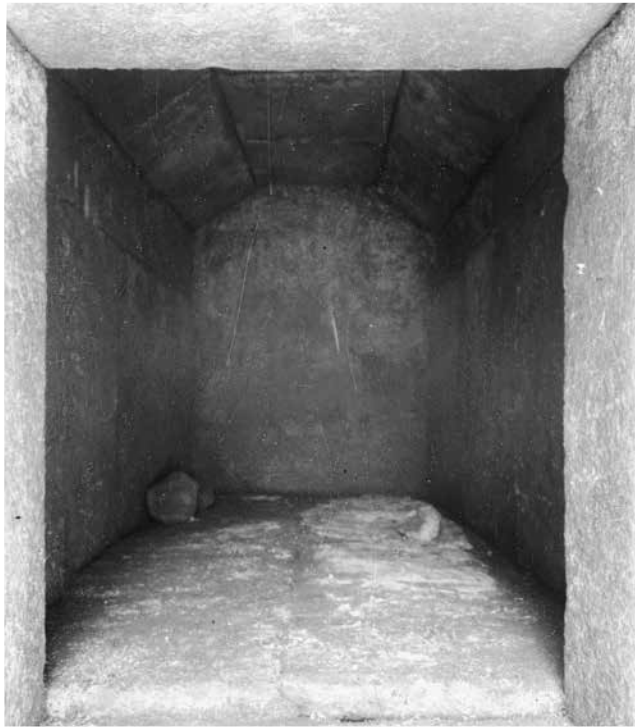
현실의 축조방법은 4호분과 거의 동일하다. 양 장벽은 각각 3매씩의 대형 판석을 세워 조성한 후 그 위에 장대석을 한 단 더 올렸다. 다만 4호분은 장벽과 천장석 사이의 경사면에 장대석을 2단으로 쌓은 데 반해, 5호분은 장대석을 1단으로 쌓아 조성하였다. 또한 양 측벽 하단부를 구성한 판석도 3호분과 달리 폭이 서로 다른 점이 차이를 보인다[도판 111~113]. 북단 벽은 양쪽 상단 모서리 부분을 절석한 대형 판석 1매를 세워 축조하였으며, 4호분과 마찬가지로 먹줄이 확인되었다. 석실 벽면 축조 시 석재 사이의 간극에는 회반죽을 채워 보강한 흔적도 확인된다. 천장은 판석 4매를 덮어서 마무리하였다. 석실 바닥에는 방형 및 장방형의 판상석을 정연하게 깔아서 시설하였다. 5호분의 현실 내부에서 수 점의 할석이 확인되었으나[도판 111~113], 그 기능은 불분명하다. 전체적인 현실의 규모는 길이 277cm, 너비 107cm, 높이 140cm 정도이다.

현문은 문틀식 구조이며, 현문 앞은 석재 1매를 세워 폐쇄하였다. 거칠게 다듬은 석재 중앙에는 방형 홈이 있다. 문비석과 연도 벽석 사이의 간극에는 회반죽을 채워 보강하였다.

연도는 전체적인 구조와 축조방법 등이 4호분과 매우 유사하다. 판석을 이용하여 양 측벽과 천장을 조성하였으며, 석재 사이에는 얇게 회반죽을 발랐다. 연도의 길이가 매우 짧은 것이 4호분과 차이점을 보인다. 연문 앞에는 별도의 문비석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짧은 연도 내부에 대형 할석 수 점이 쌓여있다. 현문 문비석을 보강하는 동시에 연문 문비석을 대신하여 현실과 연도를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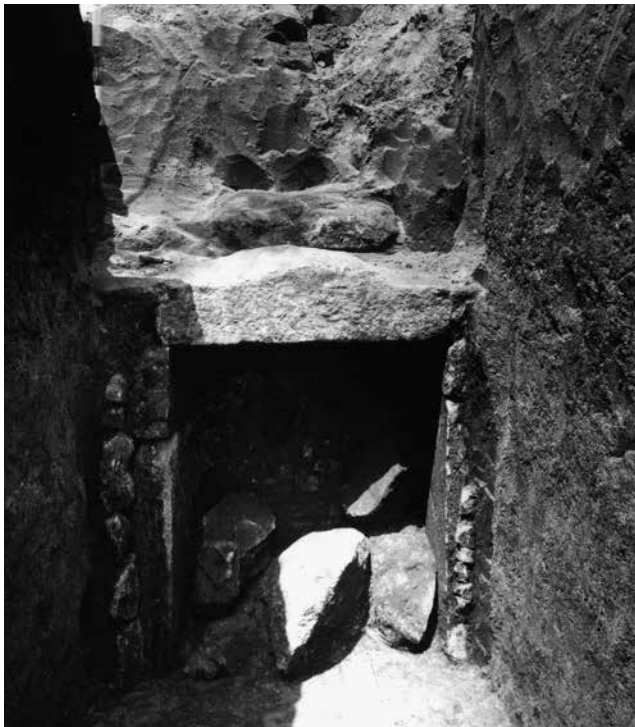
[도판 112] 5호분 현실(건판 13496)



[도판 113] 5호분 현실 및 현문(건판 13497)



[도판 114] 5호분 연도(건판 13495)



[도판 115] 5호분 연도 및 폐쇄석(건판 13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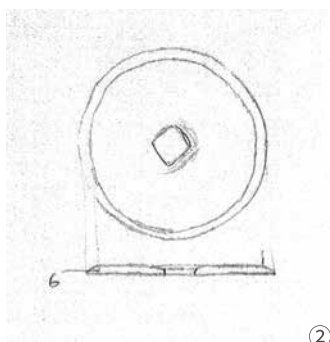
(3) 출토 유물

석실 내부에서 목관 편과 철지금장 관정, 철제 관정, 원형 금구, 금박 편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 가운데 철제 관정만 현재까지 전해진다. 철제 관정은 두부 형태가 방형이며, 신부의 단면도 모두 방형이다. 다만 다른 고분 출토품에 비해 방형 두부의 각이 둥근 형태이며, 이에 따라 두부 일부가 결실된 것은 평면 형태가 원형처럼 보이는 것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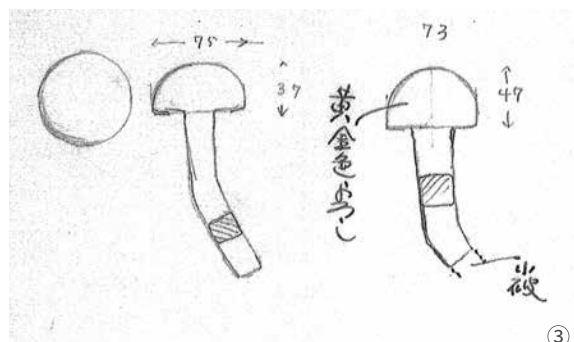
이 외에 금동제 관정은 1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로, 두부의 단면 형태가 반원형이다. 금동제 관정은 두부 크기에 따라 지름 2.2cm의 대형[도판 116-③]과 지름 1.4cm의 소형[도판 116-④]으로 나뉘며, 각각 2점과 5점이 발견되었다. 원형 금구는 1점이 발견되었으며, 지름 4.5cm 정도의 금동관 중앙에 방형 구멍이 뚫려있다[도판 116-②]. 원형 금구에 일부 금박의 흔적이 확인되며, 금동제 관정과 세트를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에서 치아도 1점이 발견되었는데, 분석결과 장년 남성의 위턱 우측 송곳니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토 중에 개배를 비롯한 토기 편 수 점을 확인하였다[도판 116-⑤·⑥].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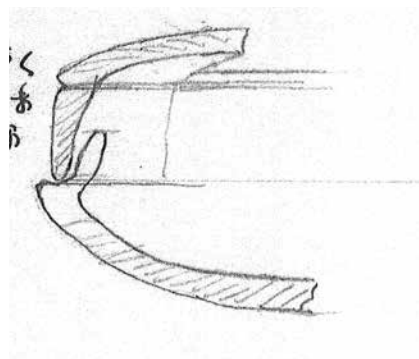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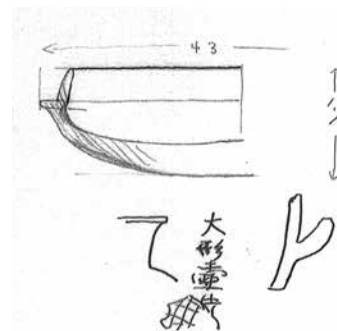
③



④



⑤



⑥

[도판 116] 5호분 출토품 ① 관정류(건판 13512), ② 금동제 금구, ③ 금동제 관정(大), ④ 금동제 관정(小) ⑤ 개배 편, ⑥ 토기 편(이상 梅原考古写真資料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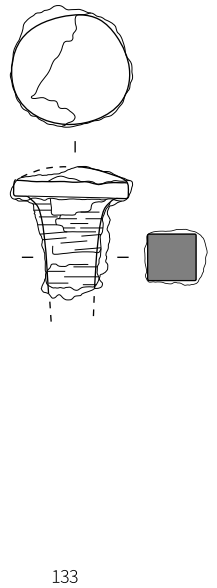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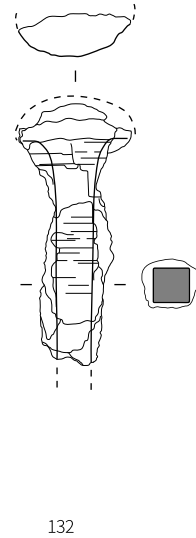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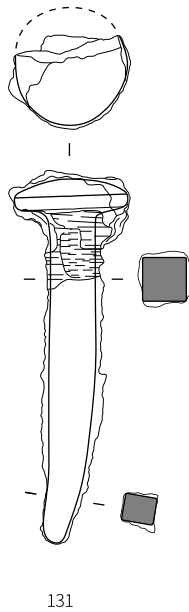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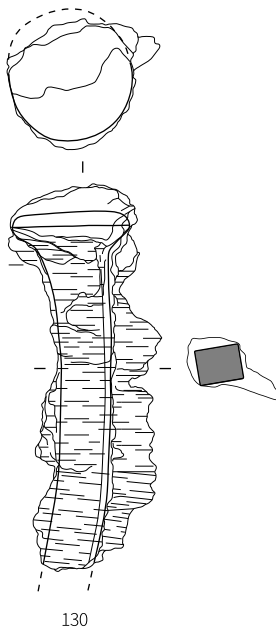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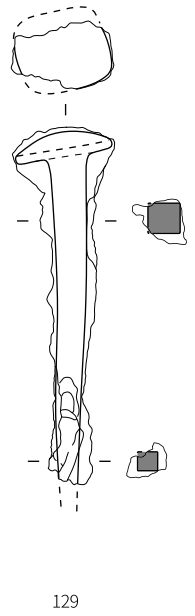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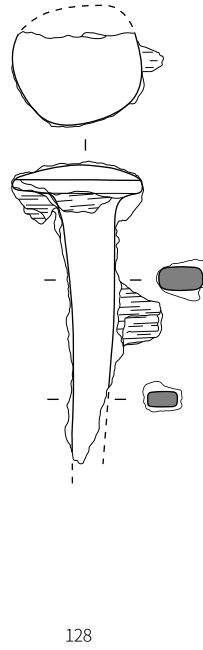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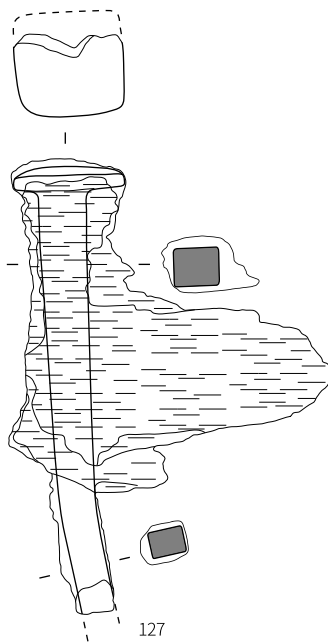
가. 철제 관정

[표 19] 5호분 출토 철제 관정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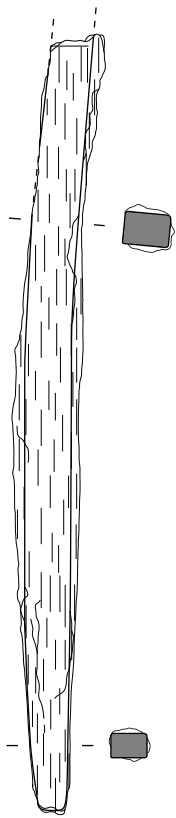
연번	소장품번호	전체길이 (잔존)	두부			신부			목질흔		도면	사진
			형태	높이	크기	길이(잔존)	너비	단면형태	방향	길이		
127	부여고적73(4-2)	(6.02)	방형	0.29	1.4×(1.12)	(5.6)	0.6×0.5 0.4×0.3	방형	횡	횡(4.1)	도판 117-127	도판 121-127
128	부여고적74(44-5)	(4.0)	방형?	0.39	높이0.38/ 1.69×(1.28)	(3.57)	0.57×0.22 0.38×0.15	방형	횡	횡(2.1)	도판 117-128	도판 121-128
129	부여고적74(44-6)	(4.72)	방형	0.33	높이0.37/ 1.23×(0.85)	(4.32)	0.46×0.4 0.26×0.25	방형	-	-	도판 117-129	도판 121-129
130	부여고적74(44-3)	(5.12)	원형	0.36	지름1.64	(4.26)	0.63×0.31	방형	횡	횡(4.5)	도판 117-130	도판 121-130
131	부여고적74(44-4)	(4.95)	원형	0.4	지름1.48	(4.41)	0.58×0.58 0.42×0.42	방형	횡	횡(0.1)	도판 117-131	도판 121-131
132	부여고적74(44-7)	(3.45)	원형?	(0.45)	(1.48)	(2.96)	0.47×0.47	방형	횡	횡(2.96)	도판 117-132	도판 121-132
133	부여고적74(44-8)	(1.76)	원형	0.39	지름1.56	(1.37)	0.64×0.61	방형	횡	횡(1.21)	도판 117-133	도판 121-133
134	부여고적74(44-35)	(10.3)	-	-	-	(10.3)	0.62×0.43 0.49×0.34	방형	종	종(10.3)	도판 118-134	도판 121-134
135	부여고적74(44-13)+ 부여고적74(44-25)	(9.66)	-	-	-	(9.66)	0.53×0.38 0.65×0.47	방형	횡+종	횡(0.55)+ 종(9.25)	도판 118-135	도판 121-135
136	부여고적74(44-31)	(8.83)	-	-	-	(8.83)	0.51×0.47 0.42×0.38	방형	종	종(8.0)	도판 118-136	도판 122-136
137	부여고적74(44-15)+ 부여고적74(44-26)	(8.2)	-	-	-	(8.2)	0.5×0.3 0.4×0.3	방형	종	종(6.8)	도판 118-137	도판 122-137
138	부여고적74(44-36)	(7.86)	-	-	-	(7.86)	0.46×0.41, 0.53×0.45 0.26×0.24, 0.25×0.22	방형	횡+종	횡(0.36)+ 종(7.86)	도판 118-138	도판 122-138
139	부여고적74(44-34)	(7.78)	-	-	-	(7.78)	0.45×0.43	방형	종	종(7.36)	도판 118-139	도판 122-139
140	부여고적74(44-32)	(7.75)	-	-	-	(7.75)	0.48×0.39	방형	종	종(7.63)	도판 118-140	도판 122-140
141	부여고적74(44-9)	(6.41)	-	-	-	(6.41)	0.37×0.37 0.36×0.35	방형	종	종(1.0)	도판 118-141	도판 122-141
142	부여고적74(44-29)	(5.17)	-	-	-	(5.17)	0.43×0.4 0.34×0.31	방형	횡	횡(5.17)	도판 118-142	도판 122-142
143	부여고적73(4-3)	(5.1)	-	-	-	(5.1)	0.5×0.4	방형	횡	횡(3.5)	도판 119-143	도판 122-143
144	부여고적73(4-1)	(4.7)	-	-	-	(4.7)	0.6×0.6	방형	횡	횡(4.5)	도판 119-144	도판 122-144
145	부여고적74(44-40)	(4.67)	-	-	-	(4.67)	0.48×0.35 0.22×0.16	방형	종	종(4.67)	도판 119-145	도판 122-145
146	부여고적74(44-24)	(4.5)	-	-	-	(4.5)	0.46×0.41	방형	횡	횡(2.4)	도판 119-146	도판 123-146
147	부여고적74(44-37)	(4.3)	-	-	-	(4.3)	0.48×0.51 0.43×0.38	방형	횡	횡(4.3)	도판 119-147	도판 123-147
148	부여고적74(44-18)	(4.22)	-	-	-	(4.22)	0.42×0.41 0.45×0.43	방형	횡+종	횡(0.4)+ 종(3.04)	도판 119-148	도판 123-148
149	부여고적74(44-38)	(4.15)	-	-	-	(4.15)	0.39×0.34 0.24×0.21	방형	종	종(4.15)	도판 119-149	도판 123-149
150	부여고적74(44-16)	(3.51)	-	-	-	(3.51)	0.4×0.35 0.32×0.28	방형	종	종(1.63)	도판 119-150	도판 123-150
151	부여고적74(44-30)	(3.26)	-	-	-	(3.26)	0.4×0.4	방형	횡	횡(3.25)	도판 119-151	도판 123-151
152	부여고적74(44-21)	(2.96)	-	-	-	(2.96)	0.59×0.54	방형	횡	횡(1.15)	도판 119-152	도판 123-152
153	부여고적74(44-2)	(9.8)	-	-	-	(9.8)	0.6×0.45 0.45×0.45	방형	-	-	도판 119-153	도판 123-153
154	부여고적74(44-1)	(9.52)	-	-	-	(9.52)	0.41×0.35 0.27×0.23	방형	-	-	도판 119-154	도판 123-154
155	부여고적73(4-4)	(8.8)	-	-	-	(8.8)	0.4×0.4 0.3×0.3	방형	-	-	도판 119-155	도판 123-155
156	부여고적74(44-17)+ 부여고적74(44-39)	(8.32)	-	-	-	(8.32)	0.53×0.53 0.37×0.36	방형	-	-	도판 119-156	도판 123-156
157	부여고적74(44-10)	(7.81)	-	-	-	(7.81)	0.48×0.48	방형	-	-	도판 120-157	도판 123-157
158	부여고적74(44-11)	(7.28)	-	-	-	(7.28)	0.47×0.39	방형	-	-	도판 120-158	도판 124-158
159	부여고적74(44-42)	(7.22)	-	-	-	(7.22)	0.5×0.43	방형	-	-	도판 120-159	도판 124-159
160	부여고적74(44-44)	(7.19)	-	-	-	(7.19)	0.65×0.46 0.4×0.33	방형	-	-	도판 120-160	도판 124-160
161	부여고적74(44-12)	(6.32)	-	-	-	(6.32)	0.45×0.36 0.31×0.24	방형	-	-	도판 120-161	도판 124-161

연번	소장품번호	전체길이 (잔존)	두부			신부			목질흔		도면	사진
			형태	높이	크기	길이(잔존)	너비	단면형태	방향	길이		
162	부여고적74(44-14)	(5.14)	-	-	-	(5.14)	0.49×0.38 0.47×0.36	방형	-	-	도판 120-162	도판 124-162
163	부여고적74(44-28)	(4.44)	-	-	-	(4.44)	0.43×0.43 0.27×0.23	방형	-	-	도판 120-163	도판 124-163
164	부여고적74(44-23)	(4.36)	-	-	-	(4.36)	0.43×0.4	방형	-	-	도판 120-164	도판 124-164
165	부여고적74(44-27)	(3.95)	-	-	-	(3.95)	0.53×0.42	방형	-	-	도판 120-165	도판 124-165
166	부여고적74(44-19)	(3.65)	-	-	-	(3.65)	0.63×0.4 0.6×0.38	방형	-	-	도판 120-166	도판 124-166
167	부여고적74(44-20)	(2.83)	-	-	-	(2.83)	0.53×0.48	방형	-	-	도판 120-167	도판 124-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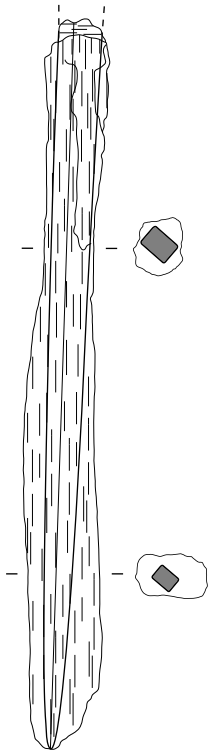


[도판 117] 5호분 출토 철제 관정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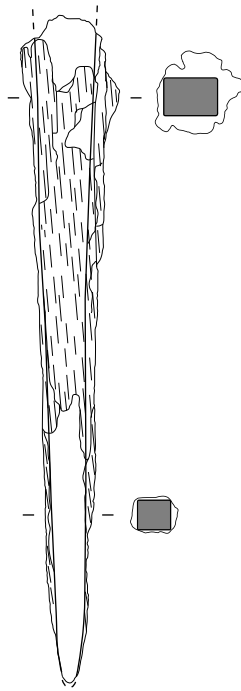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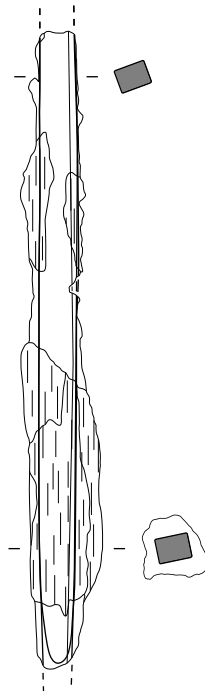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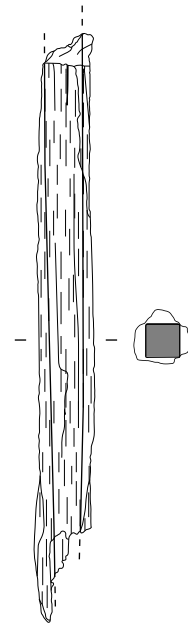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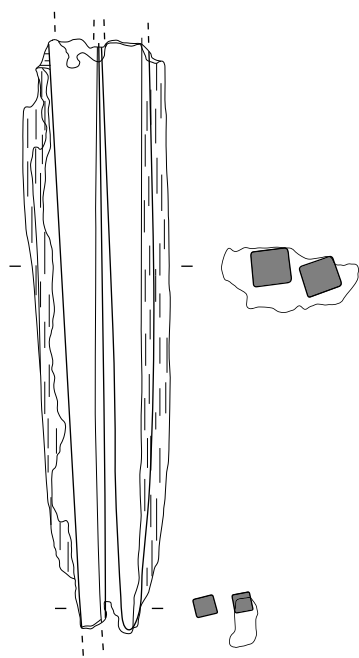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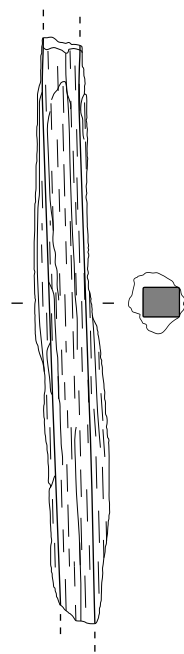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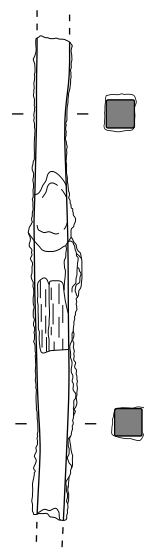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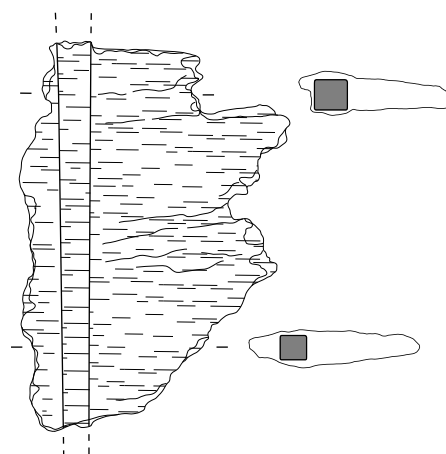
138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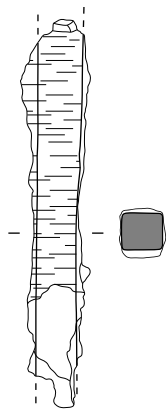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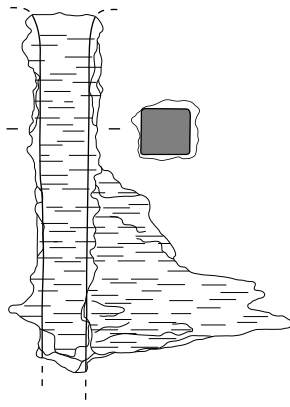
142

[도판 118] 5호분 출토 철제 관정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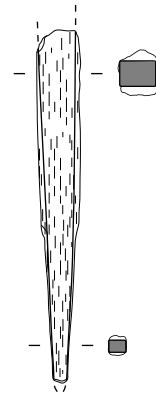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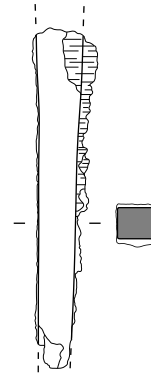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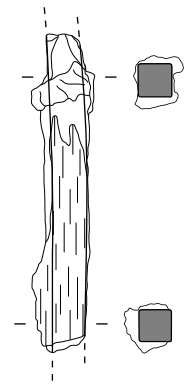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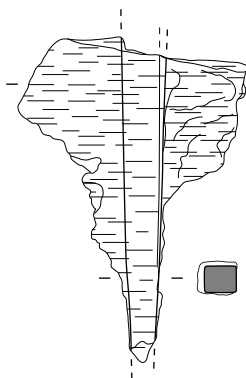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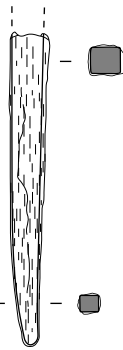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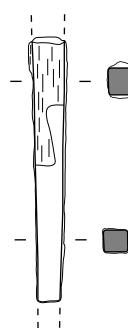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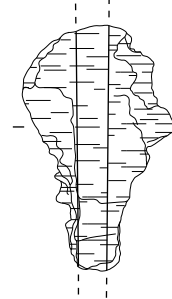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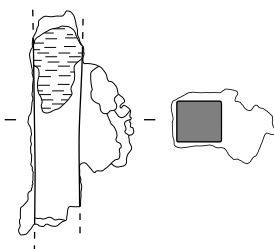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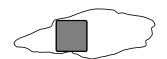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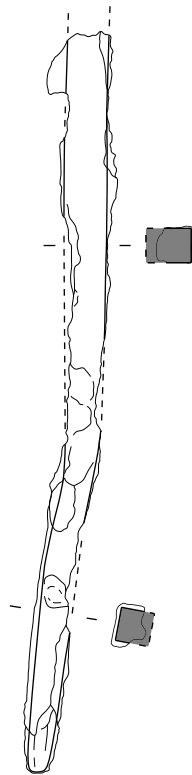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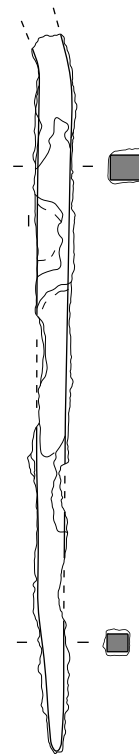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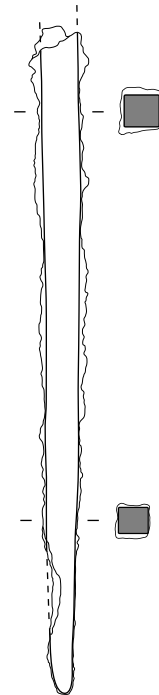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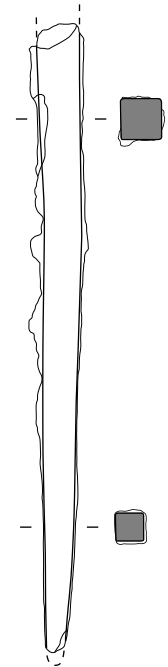
153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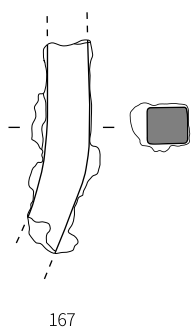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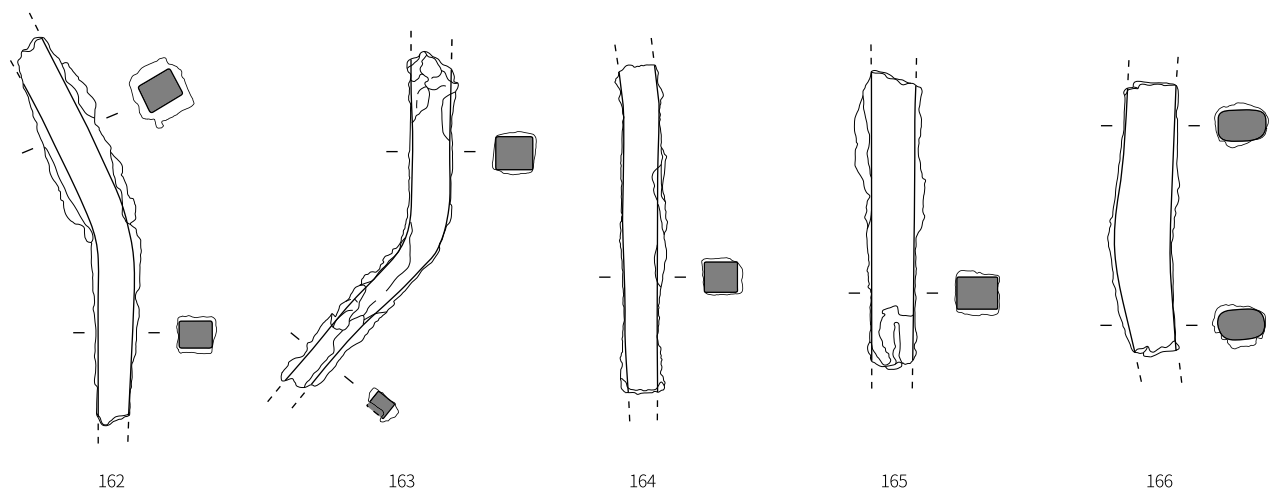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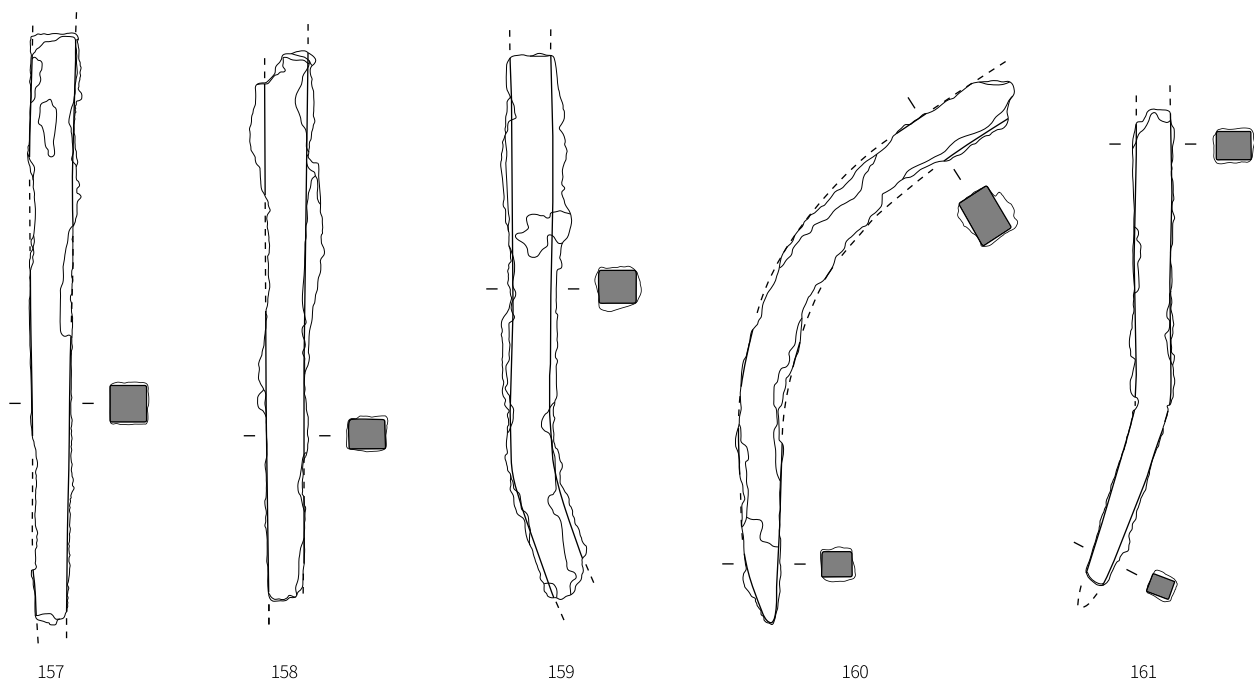
155



156

[도판 119] 5호분 출토 철제 관정 도면





[도판 120] 5호분 출토 철제 관정 도면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도판 121] 5호분 출토 철제 관정 사진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도판 123] 5호분 출토 철제 관정 사진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현재 모습



[도판 125] 1938년 능산리 동고분군 전경(남동→북서, 건판 13498)



[도판 126] 2019년 능산리 동고분군 전경(남동→북서)



[도판 127] 1938년 능산리 동고분군 전경(남→북, 건판 13500)



[도판 128] 2019년 능산리 동고분군 전경(남→북)



[도판 129] 2019년 능산리 동고분군 1호분 일대 모습(남동→북서)



[도판 130] 2019년 능산리 동고분군 2호분 일대 모습(동→서)



[도판 131] 2019년 능산리 동고분군 3·4호분 일대 모습(남→북)



[도판 132] 2019년 능산리 동고분군 5호분 일대 모습(남→북)

IV. 맺음말

1938년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등이 실시한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조사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1938년에 발간된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유리건판사진 및 지도, 도면 등을 토대로 유적과 유구의 특징을 살펴보고, 당시 조사단이 작성한 조사 일지, 출토품 기록카드, 실측 도면, 사진 자료, 그리고 조사자 우메하라 스에지의 편지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리와 보고가 미진하였던 능산리 동고분군 출토품을 재분류하고 이를 보존처리 후 도면, 사진과 함께 보고하였다.

그동안 능산리 동고분군의 조사 연도가 불분명하였으나, 1938년 4월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하였다. 기존 다수의 연구에서 능산리 동고분군이 1937년에 조사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우메하라 스에지의 능산리 동고분군 조사 내용이 소화 12년(1937년)의 고적조사 내용을 수록한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에 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보고서의 본문 내용과 당시 작성된 조사 일지, 출토품에 기록된 수습 일자 등을 보았을 때, 능산리 동고분군은 소화 13년인 1938년에 조사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능산리 동고분군은 백제 사비도성의 동쪽의 능산리산(해발고도 121m) 남사면 자락에 위치한다. 고분군은 골짜기를 경계로 사비시기 왕릉원인 능산리 고분군의 동쪽에 별도의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능산리 고분군의 동쪽에 위치한 고분군’이라는 의미로 ‘능산리 동고분군’으로 명명되고 있다. 능산리 고분군의 서쪽에 위치한 또 다른 백제 고분군인 ‘능산리 서고분군’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 능산리 동고분군은 세 갈래의 능선에 5기의 고분이 분포하며, 각 능선에 남-북으로 고분 2기씩이 배치된 양상이다. 각 고분은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묘역을 갖추고 있다. 전체적인 고분의 분포 양상은 능산리 고분군 및 능산리 서고분군과 유사하다.

1938년 능산리 동고분군 조사 당시 대부분 봉분이 온전하지 않았으나, 일부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봉분의 규모는 지름 13~20m 정도로, 이는 능산리 서고분군의 봉분 지름이 15~20m 정도인 것과 유사하다. 능산리 고분군의 봉분 지름이 대부분 25~30m인 것에 비해 능산리 동·서고분군의 봉분 규모가 더 작았음을 알 수 있다. 능산리 동고분군은 고분 주변에서 호석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1917년에 조사된 능산리 고분군 1호 동하총, 4호 서상총, 6호 동상총에서는 공통적으로 정연한 형태의 호석시설이 확인된 바 있다⁵². 또한 최근 재발굴조사된 능산리 서고분군에서도 4기의 고분 모두에서 호석이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능산리 동고분군은 3호분에서 발견된 석재 1매가 호석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 외에 호석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고분의 묘도까지 조사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래 능산리 동고분군에는 호석시설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능산리 동고분군에서 확인된 고분 5기 모두 매장주체부로 평사천장의 단면 육각형 횡형식 석실을 두고 있다. 이는 터널형 석실, 평천장의 단면 방형 석실, 평사천장의 단면 육각형 석실 등 다양한 구조의 횡형식 석실분이 조사된 능산리 고분군 및 능산리 서고분군과 차이를 보인다. 4호분을 제외한 현실의 규모는 길이 250~277cm, 너비 107~114cm, 높이 137~155cm 정도이며, 장폭비는 2.19~2.59:1 정도의 세장방형 구조이다. 4기 모두 현실의 규모와 구조가 거의 동일하며, 내부에 1기의 목관을 안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능산리 고분군의 현실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 편이다. 능산리 동고분군 4호분은 길이 300cm, 너비 173cm, 높이 200cm 정도이며, 장폭비는 1.73:1이다. 이에 따라 4호분은 합장묘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현실 바닥의 배수로 위에 깔린 판상석의 배치 양상을 고려하면 4호분 역시 단장묘의 가능성이 크다. 석실 구조는 5기 모두 동일하나, 사용된 석재가 서로 상이하여 주목된다. 1호분과 2호분은 장대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축조하였으며, 이는 단면 터널형 횡형식석실본인 능산리 고분군 중하총과 동일하다. 이 외에 3~5호분은 모두 판석을 이용하여 벽면을 조성하였다. 각 장벽의 축조에는 3~4매의 판석이 사용되었으며, 45호분은 판석조의 양 장벽 상단에 장대석을 1단 더 올렸다. 이는 대형 판석 1매씩을 세워 벽면을 구성한 능산리 고분군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벽석에 사용된 판석의 정면 정도에서도 두 고분군 간에 차이가 확인된다. 능산리 고분군의 경우 대부분 대형

52. 이에 반해 1915년에 조사된 능산리 고분군 중하총, 중상총, 서하총에서는 호석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조사가 출토품 수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부분 고분 1기 조사에 하루 정도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고분에도 호석이 둘러졌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석재를 정교하게 물갈이하였으나, 동고분군의 석재는 상대적으로 거칠게 가공되었다. 동고분군의 현실 바닥과 관대에는 천석과 할석, 판상석 등이 사용되었다. 연도는 4호분을 제외하면 길이 54~125cm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며, 이는 능산리 고분군의 단면 육각형 횡형식 석실분의 연도 길이가 96~128cm인 것과 유사하다. 현문은 전형적인 문틀식 구조로, 현문과 연문에는 대부분 방형 판석을 이용하여 폐쇄하였고 문비석과 벽석 사이에 회반죽을 채워 밀폐하였다.

사비시기 횡형식석실분은 축조 석재가 장대석에서 대형 판석으로 변화하는 양상이다. 장대석으로 축조된 능산리 고분군 중하층은 터널형 구조와 모전석 형태의 바닥석 등에서 웅진시기의 전축분 및 석실분과 유사성이 확인되며, 고분의 위치와 봉분의 규모 등을 보아 능산리 고분군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고분으로 설정하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석실의 구조는 다르나 능산리 동고분군 12호분이 장대석으로 축조되었으며, 능산리 고분군과 서고분군이 능선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며 무덤이 조성된 것으로 보는 최근 연구 성과도 있어 동고분군 내에서 12호분이 상대적으로 먼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20]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현황

유구명	봉분 (직경,m)	석실 평면 형태	현실 단면 형태	현실 바닥	관대	현실 규모(cm)			현실 장폭비	현문 시설	현문 규모(cm)			연도 규모(cm)			폐쇄 및 문비석		기타
						길이	너비	높이			길이	너비	높이	길이	너비	높이	현문	연문	
1호분	○ (13.4)	甲자형	육각형	천석	할석	268	110	145	2.44:1	문틀식	39	79	94	113	102	126	판석 (방형 홈)	판석 (방형 홈)	-
2호분	○	甲자형	육각형	-	할석	275	112	155	2.46:1	문틀식	42	80	95	125	101	114	판석 (방형 홈)	판석 (방형 홈)	-
3호분	○ (약 20)	ㄱ자형	육각형	판석 (4매)	-	250	114	137	2.19:1	문틀식	13	78	81	54	89	97	판석	판석 (4매)	현실 벽면 일부에 주칠
4호분	-	ㄱ자형	육각형	-	판상석 (?)	300	173	200	1.73:1	문틀식	39	100	123	236	118	140	판석 (2매, 방형 홈)	판석 (1매, 방형 홈), 장대석 (1매)	현실 바닥 배수로, 석재 조립시 회 보강, 먹줄
5호분	-	甲자형	육각형	판상석	-	277	107	140	2.59:1	문틀식	35	73	90	77	100	115	판석 (방형 홈)	-	석재 조립시 회 보강, 먹줄

능산리 동고분군은 조사 이전에 이미 도굴된 상태였다. 조사 중에 소량의 목관 편과 관정류, 금·은·금동 장식품, 옥류만이 수습되었다. 출토품 가운데도 중요 유물은 분석과 복원을 이유로 우메하라 스에지가 일본에 반출하여, 일부 작은 목관 편과 관정들만 현재까지 전해진다. 각 석실에서 출토된 목관 편은 1938년에 수종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 금송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기존 1915년과 1917년에 조사된 능산리 고분군 및 능산리 서고분군, 익산 쌍릉 출토 목관 편 등에 대해서도 수종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동고분군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금송으로 밝혀졌다. 광복 이후 조사된 공주 무령왕릉의 목관도 금송으로 제작되었으며, 최근 능산리 1호 동하층 출토 목관 편이 수종분석 결과 역시 금송으로 재확인되어 웅진~사비시기 백제 왕실에서는 금송계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백제 왕실의 목관 연구는 능산리 동고분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능산리 동고분군 4호분에서 출토된 목관 편은 두께가 3.1cm 정도이다. 그리고 조사자 우메하라 스에지는 목관 편과 관정에 남아있는 목질흔을 근거로 12호분에 안치된 목관에 두께 1.8cm, 2.5cm, 3.0cm 정도의 판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전체적으로 동고분군 출토 목관은 두께 3cm 내외의 판재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주 무령왕릉과 능산리 고분군 동하층, 익산 쌍릉 대왕릉에서 출토된 목관재의 두께는 4.5cm~6.0c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어, 능산리 동고분군에 안치된 목관이 더 얇은 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호분 출토 목관 편에는 칠흔이 남아있으며, 2호분에서도 옷이 칠해진 목관 편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옷칠 목관은 무령왕릉과 능산리 고분군 동하층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능산리 동고분군은 대부분의 고분에서 금박이 발견되었으며,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우메하라 스에지는 12호분에서 출토된 금박을 두께 1.8cm의 목관재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⁵³. 익산 쌍릉 대왕릉과 능산리 서고분군 2호분에서 출토된 금박장식 목관 편을 보았을 때, 이러한 금박이 목관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능산리 고분군 동하층에도 비교적 많은 양의 금박이 발견되었으나 목관에

금박 장식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금박의 발견을 금박 장식된 목관의 사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옷칠과 금박 장식 등에서 능산리 고분군과 동고분군의 공통점이 확인되나, 목재 두께와 옷칠 수준 등에서 양자 간에 차이도 확인된다.

목관을 조립하는데 철제 관정이 사용되었다. 방형의 납작한 두부를 가진 철제 관정으로, 장식성보다는 목관재 결구를 위한 기능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목관 장식 못으로 1호분과 5호분에서 철지금·은장 관정이, 3호분에서 금동제 관정이 일부 확인되었다. 또한 금동제 화형·원형 금구편도 소량 확인되었다. 3호분에서 여러 형태의 금구 편과 금구 흔적이 있는 목관 편이 발견되어 목관 장식에 다양한 금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출토품

유구명	목관	관정	기타 유물
1호분	금박 목관 편	철지금·은장 관정, 철제 관정	금박, 철제 뼈기, 불명 철기
2호분	금박·옷칠 목관 편, 청동못 박힌 목관 편	철제 관정	금동제품, 금박
3호분	화형 금구·원형 금구 흔적 목관 편	금동제 관정, 철제 관정	금제 장식품, 옥제품, 금실
4호분	옷칠 목관 편	철제 관정	영락 달린 금제품, 금박
5호분	목관 편	철지금·은장 관정, 철제 관정	원형 금구, 금박, 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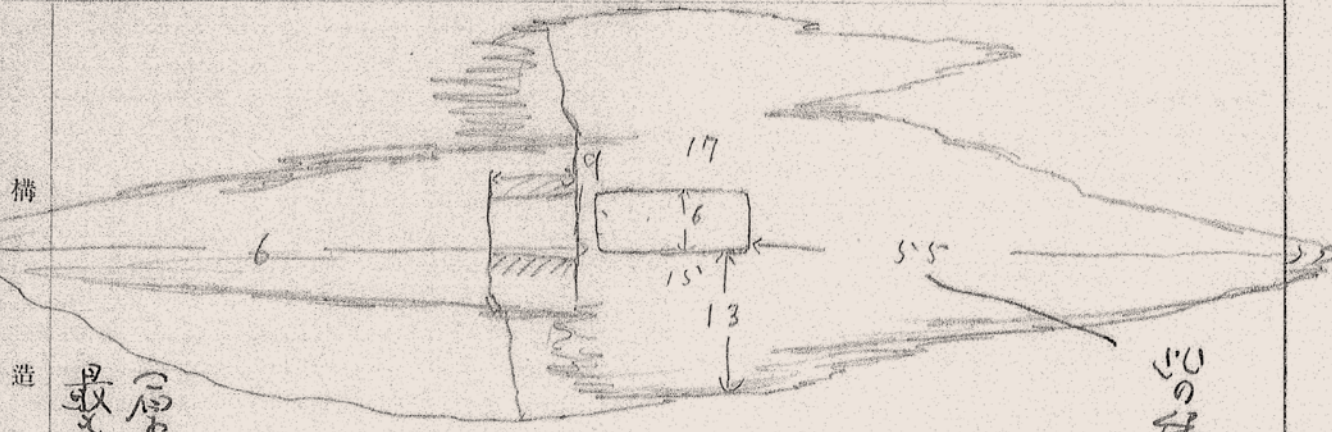
능산리 동고분군은 고분군의 입지, 각 고분의 분포 양상, 매장주체부의 구조와 축조방법 등에서 백제 사비시기 왕릉원인 능산리 고분군과 다수의 공통점이 확인된다. 그리고 각 고분에 안치된 목관도 무령왕릉·능산리 고분군·쌍릉 대왕릉 출토 목관과 마찬가지로 금송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능산리 동고분군을 백제 사비시기 최고위층의 무덤군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봉분과 석실의 규모가 능산리 고분군에 비해 작으며, 세부적인 석실의 축조방법과 석재의 마연 여부, 문비석의 크기와 가공 정도, 호석시설의 유무 등에서 능산리 고분군과 차이가 확인된다. 또한 금송제 목관 역시 판재의 두께가 더 얇으며, 옷칠 장식 수준이 무령왕릉과 능산리 고분군 동하층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능산리 동고분군은 능산리 고분군에 비해 위계가 조금 낮으며, 백제 사비시기 왕족의 무덤군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기록·사진·도면과 단편적으로 남겨진 출토품만으로 능산리 동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 또한 능산리 서고분군과도 석실 축조방법과 석재 종류, 호석 유무 등에서 차이가 확인되어, 두 고분군의 위계·계통·시기 문제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불완전한 발굴 조사와 충분하지 못한 조사 보고뿐이다. 따라서 백제 왕실의 고분 문화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연구의 범위를 심화·확장하기 위해서는 능산리 일대 왕릉급 고분의 재발굴조사가 필수적이다. 다행히 최근에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몇몇 백제 사비시기 왕릉급 고분이 재발굴되었으며, 많은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익산 쌍릉 대왕릉에서 일제강점기에 보고되지 않았던 인골이 발견되어 피장자를 추정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였으며, 능산리 서고분군에서도 기존 조사에서 밝히지 못하였던 고분 및 석실의 정확한 구조와 규모, 특징 등을 밝히고, 새로운 출토품도 다수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백제 사비시기 왕릉급 고분 연구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능산리 서고분군 및 익산 쌍릉에 이어서 능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동고분군도 재발굴된다면 사비시기 백제 왕실의 고분 문화 양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53. 출토품 가운데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은 것이 다수이며, 전해지는 것도 출토 맥락을 파악할 수 없어 조사자의 의견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
年 4 月 14 日 整理

陵山里東三ノ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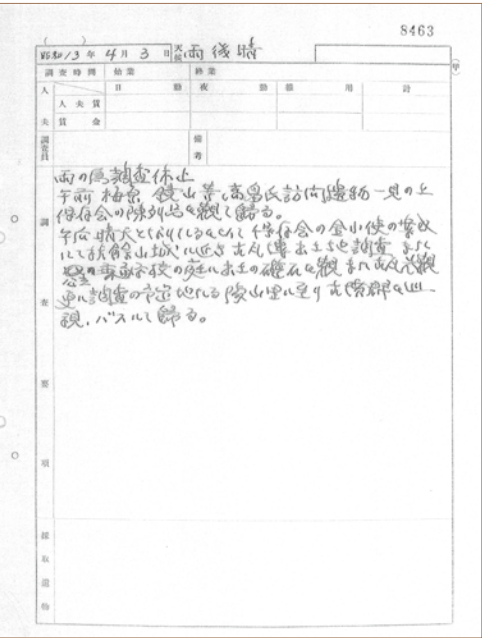
No.	出土区域	處理方法
遺物名		
出土狀態	石室の遺棄されありこの	
形状大サ	金具を附せる孔のある片	
構		
造・特・色	<p>最大の破片は長さ3分米 (厚3cm) あり</p> <p>この破片は、石室の壁にあり、金具を附せる孔のある片</p> <p>破片は、石室の壁にあり、金具を附せる孔のある片</p> <p>破片は、石室の壁にあり、金具を附せる孔のある片</p>	
現状及保存方法	木棺の破片は、この二片を除き、埋戻しに当り石室に再置き	

부 록

일제강점기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조사일지와 출토품 기록카드

일제강점기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조사일지와 출토품 기록카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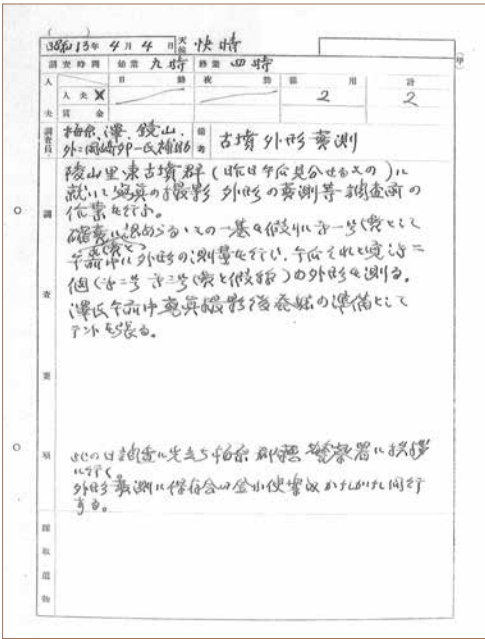
능산리 동고분군 1호분 조사일지



()		08463-001		8463	
소화13년 4월 3일		날씨 : 비온 후 맑음			
조사시간		시작		종료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대 금				
조 사 원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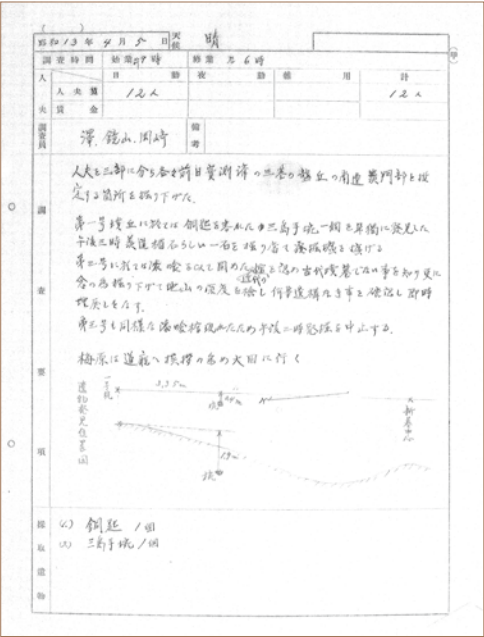
조사 사항	<p>비로 인해 조사 중지.</p> <p>오전 우메하라梅原, 카가미야마鏡山 등은 다카시마高島씨를 방문하여 유물을 살펴본 후 보존회의 진열품을 보고 돌아옴.</p> <p>오후에는 날이 개어 보존회 김소사의 안내를 받아 부여 산성 인근의 기와 출토지를 조사. 또한 공립보통학교의 정원에서 출토된 초석을 살펴보고 기와 등을 본 뒤에 조사 예정지인 능산리에 도착하여 고분군을 순시, 버스로 돌아옴.</p>
채취 유물	

1. 부록에 수록한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의 조사일지와 출토품 기록카드는 일본 <東洋文庫 梅原考古写真資料庫>에서 수집하였다.



()		08463-002			
소화13년 4월 4일			날씨 : 맑음		
조사시간		시작 9시	종료 4시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2	2
	대 금				
조 사 원	우메하라, 사와澤, 카가미야마 외 오카자키 우이치岡崎如一보조			비 고	고분 외형 실측

조사 사항	<p>능산리 동고분군(어제 오후 보류했던 것)의 사진 촬영 및 외형 실측 등 조사 전 작업 실시.</p> <p>확실하게 고분으로 보이는 것 1기를, 가칭 1호분이라 하고 오전 중에 외형 측량 실시. 오후 이것과 고분 2개(2호분, 3호분으로 가칭)의 외형을 측량함.</p> <p>사와씨는 오전에 사진 촬영 후 발굴 준비를 위해 텐트를 침.</p> <p>이날 조사를 앞두고 먼저 우메하라가 군청, 경찰서에 인사하러 감.</p> <p>외형 실측에 보존회의 김소사가 오랫동안 함께함.</p>
채취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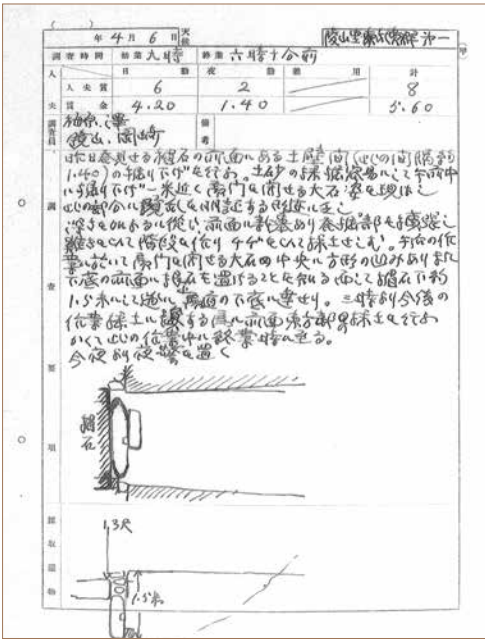


()		08463-003			
소화13년 4월 5일		날씨 : 맑음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6시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12인			12인
	대 금				
조 사 원	사와, 카가미야마, 오카자키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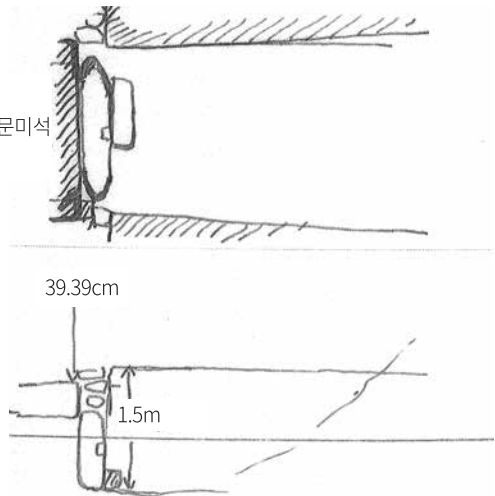
조사사항	<p>인부를 3조로 나눠 각각 어제 실측 완료 한 고분 3기의 남쪽 연문으로 추정되는 곳을 파 내려갔다.</p> <p>1호 분구에서 동제 술가락이 들어있는 삼도수완三島手碗 1점을 단독으로 발견하였다. 오후 3시 연도의 문미석 같은 석재 하나를 확인하여 발굴범위를 넓혔다.</p> <p>2호 분구에 대해서는 석고로 굳힌 근대의 관을 확인하여 고대 분묘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으며², 만약을 위해 더 파 내려가 생토층을 확인하고 아무런 유물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즉시 복토하였다.</p> <p>3호³도 같은 석고관이 확인된 이유로 오후 2시에 발굴을 중지함.</p> <p>우메하라는 도청에 인사를 하기 위해 대전에 감.</p>
채취 유물	(1) 동제 술가락 1점 (2) 삼도수완三島手碗 1점

2. 고려~조선 시대의 회곽묘(혹은 회격묘)로 보인다. 조사 초기 2호분으로 칭하였으나, 결국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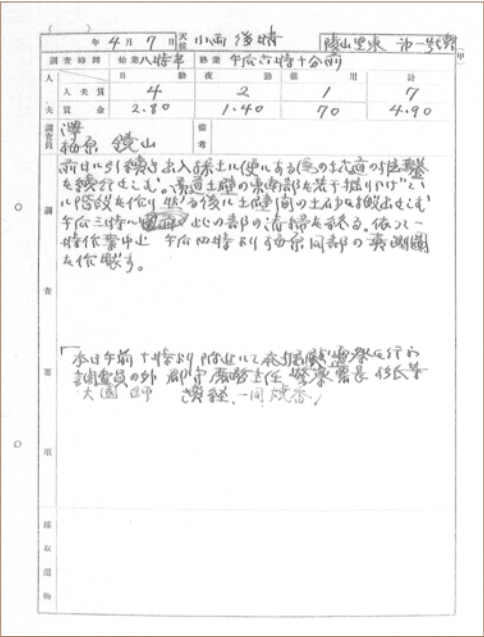
3. 2호분과 마찬가지로 고려~조선시대 회곽묘로 확인되어, 이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08463-004			
년 4월 6일		날씨 :		능산리 동고분군 제 1	
조사시간		시작 9시		종료 6시 10분 전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6	2		8
	대 금	4.20	1.40		5.60
조 사 원	우메하라, 사와, 카가미야마, 오카자키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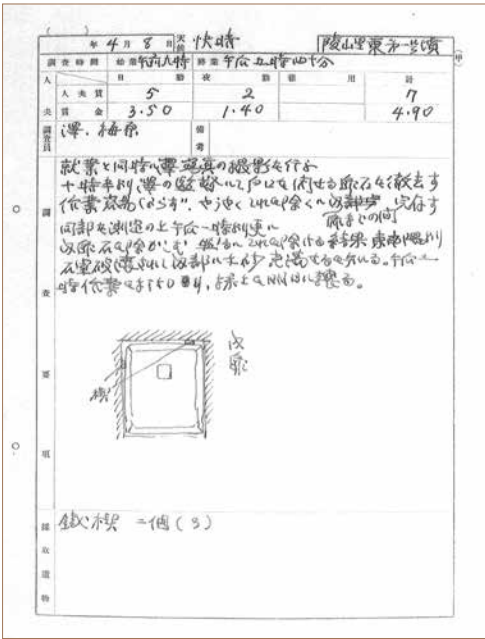
조사 사항	<p>어제 발견한 문미석 전면에 있는 토벽⁴(그 간격 약 1.4m)의 하강 작업을 실시함. 토사 채굴이 쉬워 오전 중에 파 내려갔고, 1m 정도에서 연문을 막은 대석⁶의 나타났으며, 이 부분에서 교란된 흔적은 없었다.</p> <p>하부조사를 하면서 앞부분에 새로운 무덤⁵이 있어 발굴범위를 확장하기 어려워 계단을 만들고 지계를 이용해 제토를 실시함. 오후 작업에서 연문을 막은 대석⁶의 중앙에 방형의 홈이 있고, 그 앞쪽의 바닥에 밑돌을 놓았음을 알 수 있었다.</p> <p>문미석 아래 약 1.5m 지점에서 묘도의 바닥이 나타났다. 3시부터 앞으로의 작업을 위해 앞쪽 동편부를 제토하였다. 이 작업 중 작업 종료 시간이 되었다.</p> <p>오늘 밤부터 야간 경비를 두었다.</p> 
채취 유물	

4. 묘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묘도로 표기한다.
5. 백제 이후 고려~조선 시대 혹은 근대의 민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연문 문비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문비석으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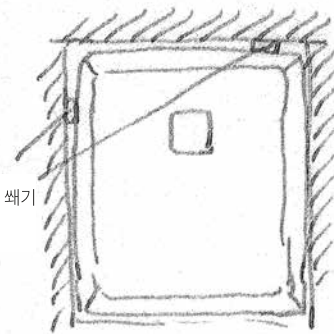


()		08463-005			
년 4월 7일		날씨 : 이슬비 후 맑음		능산리 동 제 1호분	
조사시간		시작 8시 반		종료 오후 6시 10분 전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4	2	1	7
	대 금	2.80	1.40	70	4.90
조 사 원	사와 우메하라, 카가미야마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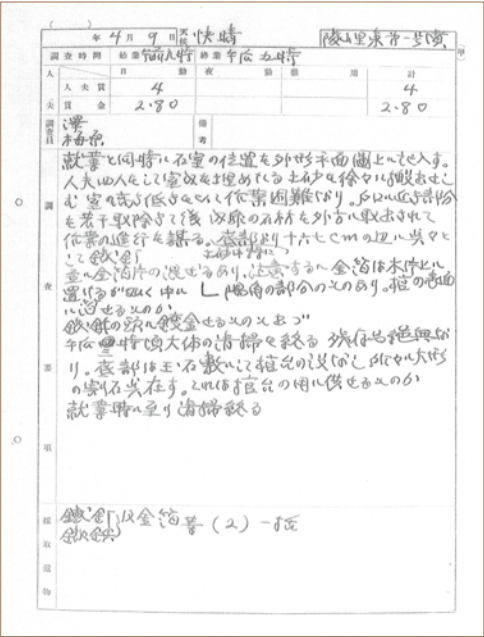
조사 사항	<p>전날에 이어서 제토를 쉽게 하려고 묘도의 굴착을 속행하였다. 묘도 벽의 동남부를 약간 파내고, 거기에 계단을 만든 후 묘도 사이의 토사를 반출하였다. 오후 3시에 이 부분의 정리를 끝냈다. 이에 일단 작업 중지. 오후 4시부터 우메하라가 같은 부분의 실측도를 작성하였다.</p> <p>「오늘 오전 10시부터 근처에서 발굴 전 위령제를 열어, 조사원 외에 군수, 서무주임, 경찰서장 스기씨 등 참석 대원사大圖師가 독경을 하였고 일동 분향」</p>
채취 유물	



()		08463-006			
년 4월 8일		날씨 : 쾌청		능산리 동 제 1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5시 40분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5	2		7
	대 금	3.50	1.40		4.90
조 사 원	사와, 우메하라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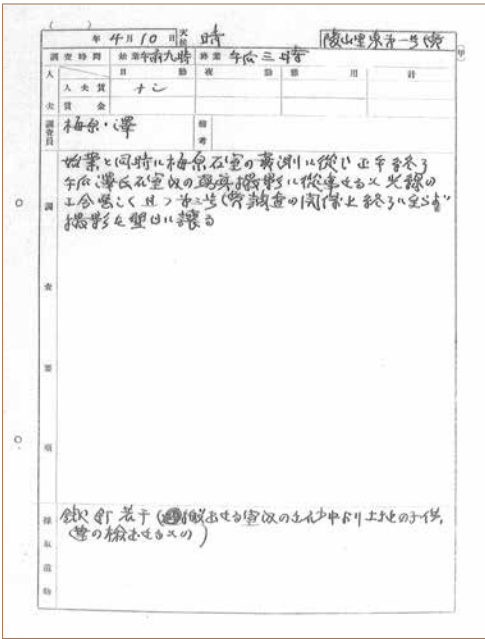
조사 사항	<p>작업 시작과 동시에 사와는 사진 촬영 실시.</p> <p>10시 반부터 사와의 감독으로 연문을 막고 있던 문비석을 제거하였다.</p> <p>작업이 쉽지 않았으며, 힘들게 이를 제거한 후 현문 문비석까지의 사이를 정리하였다.</p> <p>이 부분을 측량한 후 오후 1시부터 다시 현문 문비석을 제거하였으며, 이를 제거한 결과 동남쪽 모서리부터 석실이 파손되었고 내부는 토사가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후 3시 작업을 끝내고, 토사 제거를 내일로 미뤘다.</p> <div><p>현문 문비석</p><p>쌓기</p></div>
채취 유물	철제 쇄기 2개(37)

7. 출토품 기록카드 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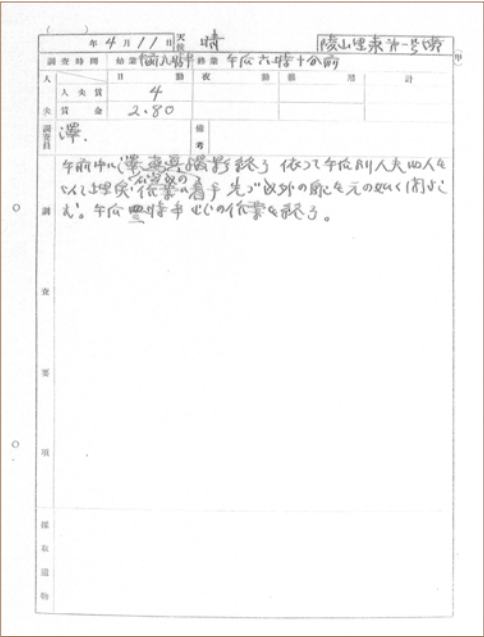
()		08463-007			
년 4월 9일		날씨: 쾌청		능산리 동 제 1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5시	
인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부	4			4
	대금	2.80			2.80
조사원	사와 우메하라		비고		

조사 사항	<p>작업 시작과 동시에 석실의 위치를 외형평면도 상에 기입하였다.</p> <p>인부 4명을 데리고 현실 내에 차 있던 토사를 서서히 반출하였다.</p> <p>현실의 높이가 낮아 작업이 곤란하였다. 현문에 가까운 부분부터 토사 일부를 제거하고, 문비석을 밖으로 반출한 후 작업 진행을 시도하였다. 토사 안 특히 바닥 부분에서 16~7cm 정도의 철정과 금박 편이 섞여 있어(모서리 부분의 것. 관의 표면) 주의하였다. 금박은 목재 편 위에 있었고 가운데 박을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p> <p>관정은 머리에 도금한 것[철지금은장 관정]이 나왔다.</p> <p>오후 3시경 대략 정리작업이 끝났으며, 잔존품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바닥에는 천석을 깔았고, 관대의 흔적은 없었다.</p> <p>곳곳에 대형 할석이 산재하여 이것을 관대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p> <p>작업 종료 시간에 이르러서야 정리 종료</p>
채취 유물	<p>철제 관정 및 금박 등(2) 일괄</p> <p>철병</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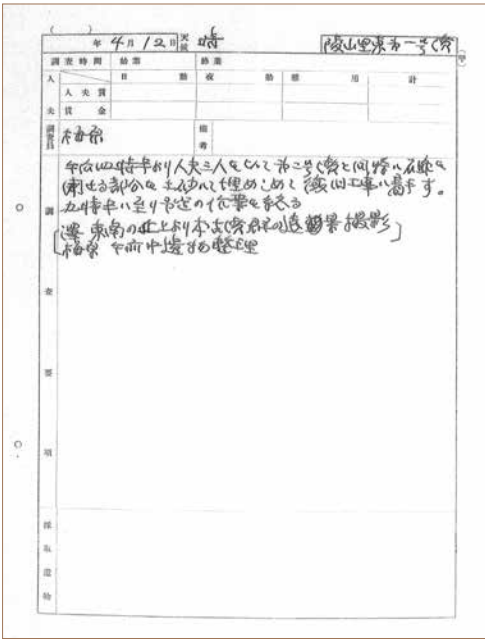
()		08463-008			
년 4월 10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1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3시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없음			
	대 금				
조 사 원	우메하라, 사와		비 고		

조사 사항	<p>작업 시작과 동시에 우메하라는 석실을 실측하였고 정오에 종료함.</p> <p>오후 사와 씨가 석실 내부를 사진 촬영하였으나, 광량이 좋지 않고 3호분 조사 관계로 종료하지 못한 채 작업을 다음 날로 미룸.</p>
채취 유물	<p>철제 관정 약간(반출한 현실 내의 토사 안에서 동네 아이들이 발견한 것)</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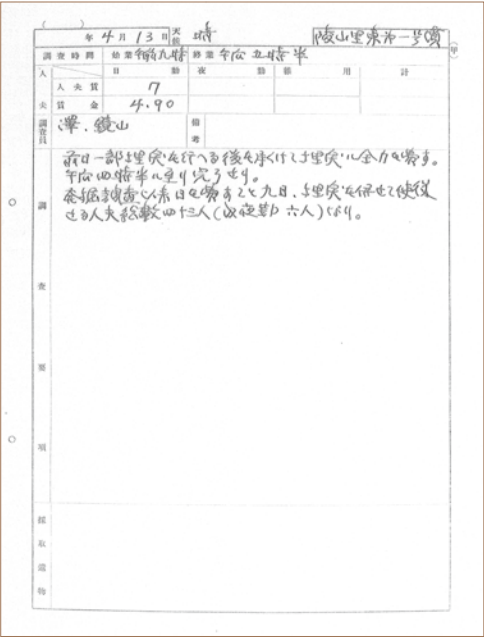
()		08463-009			
년 4월 11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1호분	
조사시간		시작	종료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4			
	대 금	2.80			
조 사 원	사와		비 고		

조사 사항	오전에 사와는 석실 내부 사진 촬영을 마쳤고, 오후부터 인부 4명을 데리고 복토 작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연문·현문의 문비석을 원래와 같이 닦았다. 오후 3시 반 작업을 종료.
채취 유물	



()		08463-010			
년 4월 12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1호분	
조사시간		시작	종료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대 금				
조 사 원	우메하라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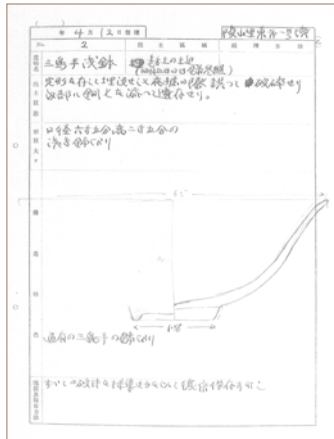
조사 사항	<p>오후 4시 반부터 인부 3명을 데리고 2호분과 같이 문비석을 담은 부분에 토사를 채운 후 복구공사에 착수하였다. 5시 반에 예정된 작업을 종료하였다.</p> <p>사와: 동남쪽 언덕 위에서 본 고분군의 원경 촬영</p> <p>우메하라: 오전 중 유물 정리</p>
채취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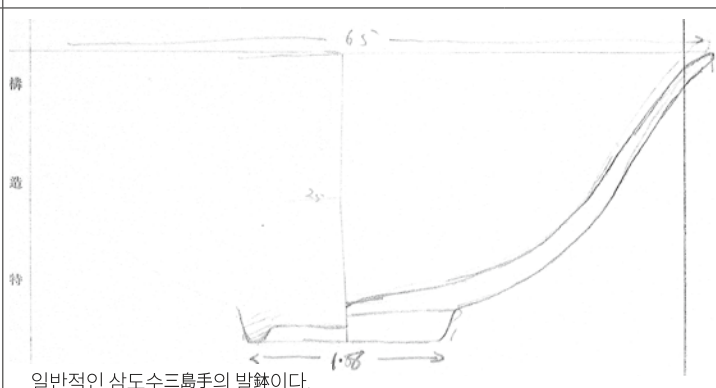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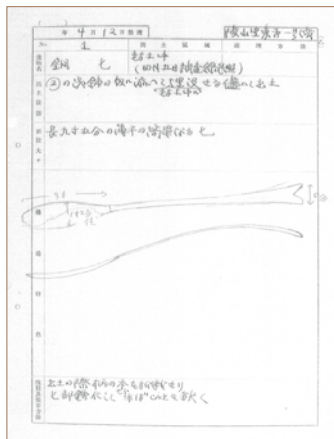
()		08463-011			
년 4월 13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1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5시 반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7			
	대 금	4.90			
조 사 원	사와, 카가미야마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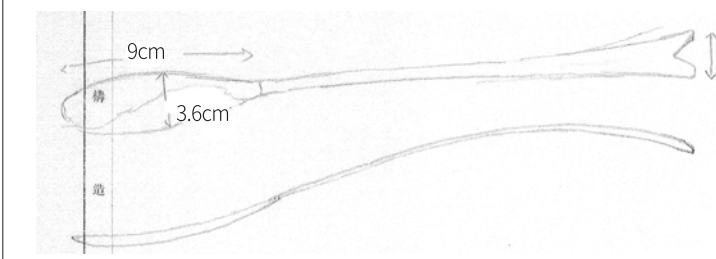
조사 사항	<p>전날 일부 진행한 복토작업에 전력을 다하였다.</p> <p>오후 4시 반에 완료하였다.</p> <p>발굴조사 이래 조사일수는 9일을 사용하였다. 복토를 포함하여 사용한 인부 총수는 43인(그 가운데 야근 6인)이다.</p>
채취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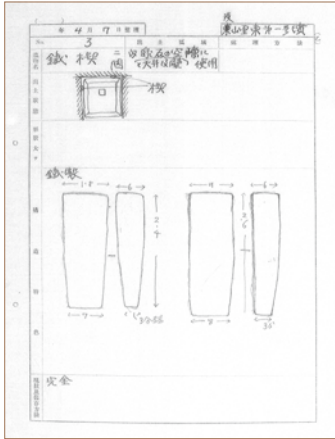
능산리 동고분군 1호분 출토품 기록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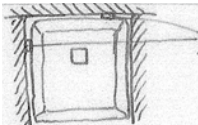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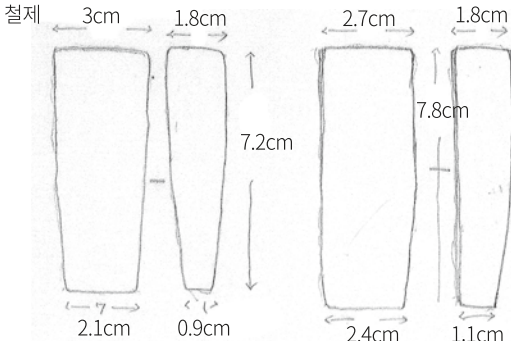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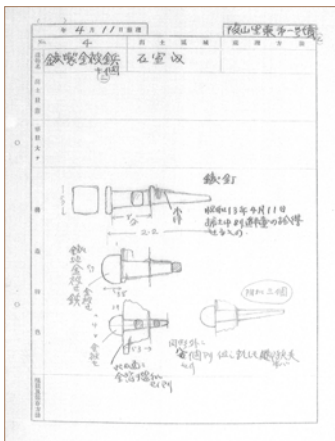
()		08463-012	
년 4월 12일 정리		능산리 동 제 1호분	
No. 2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삼도수천발三島手淺鉢	봉토의 상부 (4월 5일의 조사일지 참조)	
출토상태	완형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나, 발굴 당시 잘못하여 파손되었다. 내부에 동제 순가락이 있었다.		
형상크기	구경 19.5cm, 높이 7.5cm의 얇은 발이다		
구조특색	 <p>일반적인 삼도수三島手の 발鉢이다.</p>		
현상 및 보존 방법	모든 파편을 채집하여 복원 보존하였다.		



()		08463-013	
년 4월 12일 정리		능산리 동 제 1호분	
No. 1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동제 순가락	봉토 내 (4월 5일 조사일지 참조)	
출토상태	②의 천발 내부에 포함되어 봉토 안에 매몰된 채 출토		
형상크기	길이 28.5cm의 얇은 순가락		
구조특색	 <p>출토 시에 손잡이 부분이 절단됨 순가락 부분이 녹슬어 반질 이상이 결실됨</p>		
현상 및 보존 방법	출토 시에 손잡이 부분이 절단됨 순가락 부분이 녹슬어 반질 이상이 결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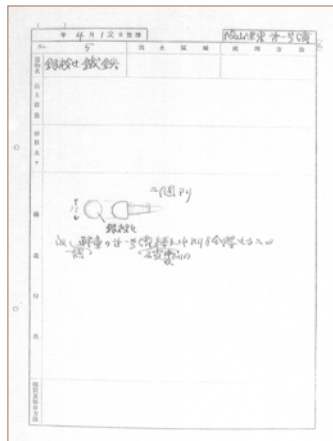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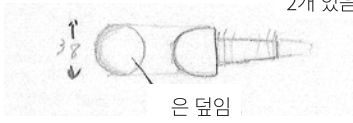
()		08463-014	
년 4월 7일 정리		능산리 동 제 1호분	
No. 3		출토구역	
유물명	철제 뼈기 2개	현문 문비석과 천장 및 벽의 틈에 사용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현상 및 보존 방법	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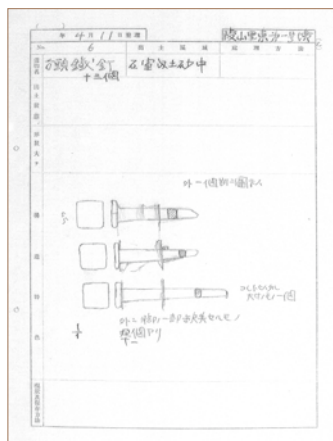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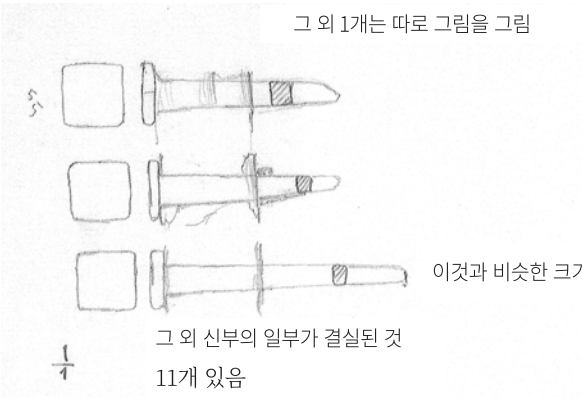
()		08463-015	
년 4월 11일 정리			능산리 동 제 1호분
No. 4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철지금장 관정 [鐵製金被鉗]10개	석실 내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p>철제 관정</p> <p>소화 13년(1938) 4월 11일 제토한 흙에서 조선 아이가 습득한 것</p> <p>같은 형태가 이외에도 8개 있음 다만 모두 신부의 절반이 결실</p> <p>이 면에 금박이 붙어 있음</p>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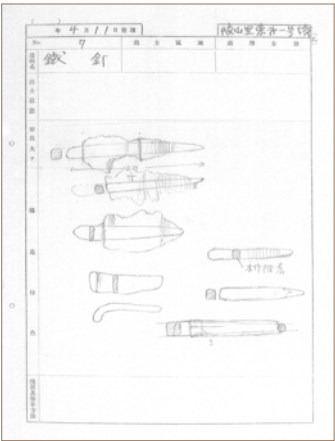
능산리 동고분군 1호분 출토품 기록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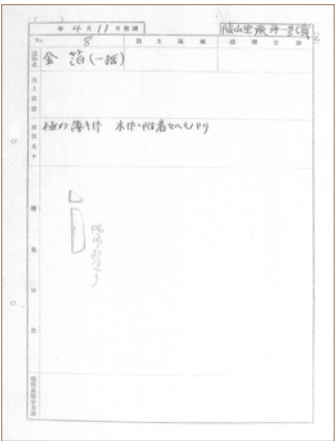
()		08463-016	
년 4월 12일 정리		능산리 동 제 1호분	
No. 5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철지은장 관정 [銀被鐵鉞]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p>2개 있음</p> <p>은 덮임</p> <p>그중 1개는 조선아이가 1호분 석실 내 제토 중에 습득한 것</p>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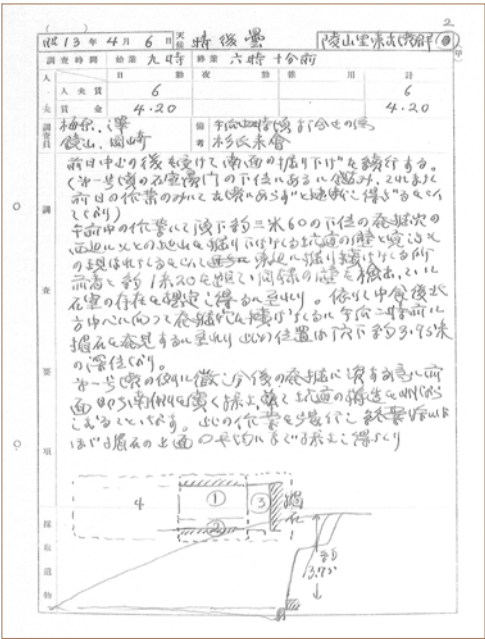
()		08463-017	
년 4월 11일 정리		능산리 동 제 1호분	
No. 6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두부 방형 철제 관정 [方頭鐵釘] 13개	석실 내 토사 안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p>그 외 1개는 따로 그림을 그림</p> <p>이것과 비슷한 크기 1개</p> <p>그 외 신부의 일부가 결실된 것 11개 있음</p>		
현상 및 보존 방법			



()		08463-018	
년 4월 11일 정리		능산리 동 제 1호분	
No. 7		출토구역	
유물명	철제 관정		처리방법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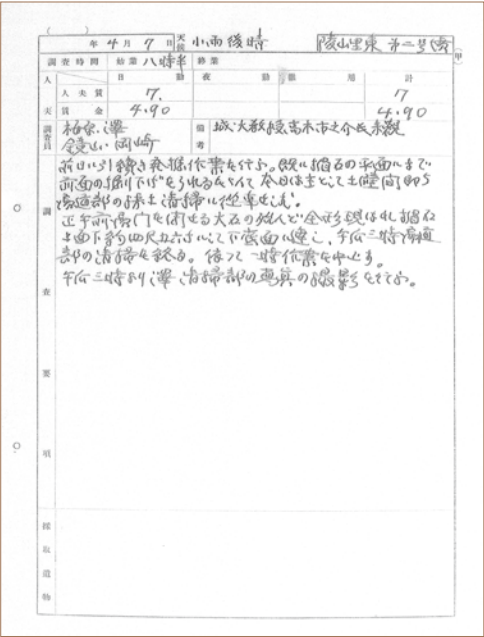


()		08463-019	
년 4월 11일 정리		능산리 동 제 1호분	
No. 8		출토구역	
유물명	금박(일괄)		처리방법
출토상태			
형상크기	매우 얇은 편, 목관 편에 부착된 것 있음		
구조특색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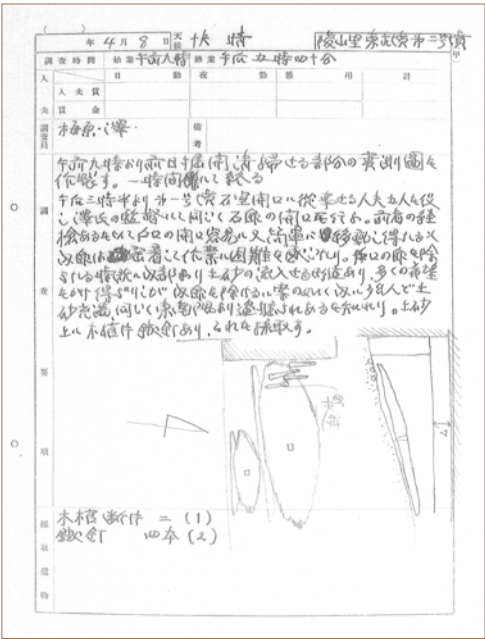
()		08463-020				
소화13년 4월 6일			날씨 : 맑은 후 흐림		능산리 동고분군 2	
조사시간		시작 9시		종료 6시 10분전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6			6	
	대 금	4.20			4.20	
조 사 원	우메하라, 사와 카가미야마, 오카자키		비 고	오후 4시쯤 회의를 위해 스기杉씨가 모임에 옴		

조사 사항	<p>전날 중단된 것에 이어서 남쪽 방향의 제토작업을 속행하였다.</p> <p>(1호분 석실의 연문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되어, 이 또한 전날 작업을 통하여 고분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p> <p>오전 작업에서 정상으로부터 약 3.6m 아래 지점의 서쪽에서 생토를 파낸 묘도의 벽으로 여겨지는 것이 나타났고, 동쪽으로 넓혀 파 약 1.2m의 거리에서 같은 벽을 확인하여, 석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점심 식사 후 북쪽의 중심부를 향해 조사 범위를 넓혀 오후 2시 전에 문미석을 발견하였다. 그 위치는 정상에서 아래로 약 3.75m의 깊이에 해당한다.</p> <p>1호분의 예를 참고하여 앞으로의 발굴에 도움이 되도록 앞쪽 즉, 남측을 넓게 제토하여 묘도의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 작업을 속행하고 작업 종료 시에는 거의 문미석 상단 높이까지 제토하였다.</p>
채취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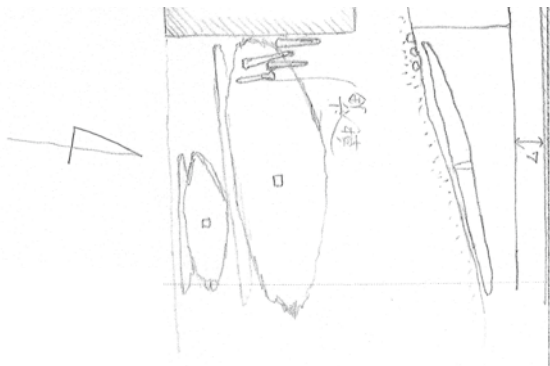


()		08463-021			
년 4월 7일		날씨 : 비 온 후 맑음		능산리 동 제 2호분	
조사시간		시작 8시 반	종료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7			7
	대 금	4.90			4.90
조 사 원	우메하라, 사와 카가미야마, 오카자키		비 고	시로 히로시城大교수, 다카키 이치노스케高木市之介씨 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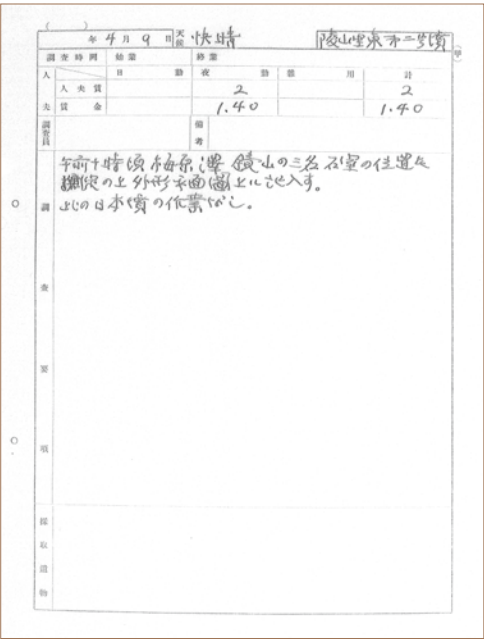
조사 사항	<p>전날에 이어 발굴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미 문미석 높이까지 앞부분을 파내었고, 오늘은 주로 토벽 사이 즉 묘도부를 정리하였다.</p> <p>정오 전에 연문을 막은 문비석의 대부분이 모습을 드러냈고, 문미석 상면으로부터 약 138cm 아래 바닥면에 도달하였다. 오후 3시 묘도부의 정리를 끝냈다. 이에 일단 작업을 중지하였다.</p> <p>오후 3시부터 사와는 정리한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p>
채취 유물	



()		08463-022			
년 4월 8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고분 제 2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5시 40분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대 금				
조 사 원	우메하라, 사와		비 고		

조사 사항	<p>오전 9시부터 전날 제토하고 정리한 부분의 실측도를 작성하였다. 1시간 만에 종료하였다.</p> <p>오후 3시 반부터 1호분 석실 연문 문비석 제거작업을 한 인부 5명을 데리고 사와씨의 감독 아래 1호분과 똑같이 연문 문비석의 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 1호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문 문비석을 쉽게 제거하고 간단하게 이동시켰으나, 현문 문비석은 밀착되어 있어 작업이 곤란하였다. 현문 문비석을 제거해보니 이미 내부는 토사가 유입된 흔적이 있었다. 많은 희망을 걸었으나 문비석을 제거하자 아니나 다를까 내부에는 대부분 토사가 가득 차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동남쪽 모서리에서 도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토사 위에 목관 편, 철제 관정이 있어 수습하였다.</p> 
채취 유물	목관 단편 2 (1) ⁸ 철정 4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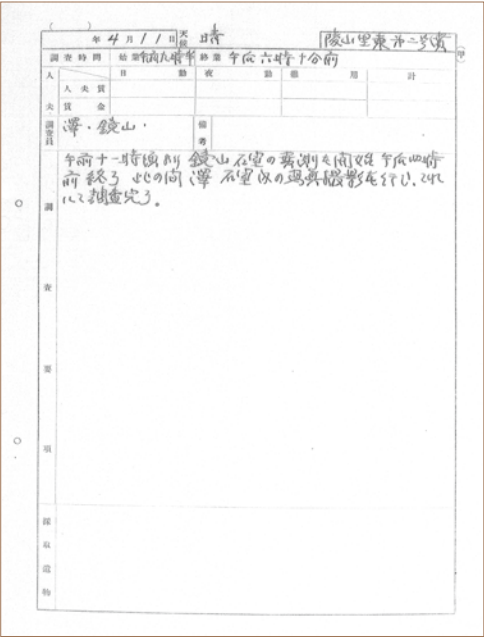
8. 출토품 기록카드 번호를 표시하였다.



()		08463-023			
년 4월 9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2호분	
조사시간		시작		종료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2		2
	대 금		1.40		1.40
조 사 원			비 고		

조사 사항	오전 10시쯤 우메하라, 사와, 카가미야마 등 3명이 석실의 위치를 측정하고, 외형평면도에 기입함. 이날은 이 고분의 작업은 없었음.
채취 유물	

		() 08463-024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년 4월 10일</th><th colspan="2">날씨 : 맑음</th><th colspan="2">능산리 동 제 2호분</th></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조사시간</td><td colspan="2">시작 오전 9시</td><td colspan="2">종료 오후 3시 반</td></tr> <tr> <td rowspan="3">인 부</td><td></td><td>일일근무</td><td>야근</td><td>잡용</td><td>계</td></tr> <tr> <td>인 부</td><td>5</td><td></td><td></td><td>5</td></tr> <tr> <td>대 금</td><td>3.50</td><td></td><td></td><td>3.50</td></tr> <tr> <td>조 사 원</td><td colspan="2">사와, 오카자키</td><td>비 고</td><td colspan="2"></td></tr> </tbody> </table>	년 4월 10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2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3시 반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5			5	대 금	3.50			3.50	조 사 원	사와, 오카자키		비 고			
년 4월 10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2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3시 반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5			5																															
	대 금	3.50			3.50																															
조 사 원	사와, 오카자키		비 고																																	
조사 사항	<p>작업 시작과 동시에 현실 내부의 토사를 반출함. 1호분 석실과 같이 작업이 어려웠으나, 인부들이 일을 잘하여 정오에는 거의 반출이 끝났다. 소형 동제품 편, 목관재, 철정 외 주목할만한 유물은 없었다.</p> <p>3시 반에 이르러 정리를 완료하였다. 도굴 구멍은 1호분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남동쪽 모서리에 있다. 바닥부에 관대 등은 없었고 생토면 위에 약간의 할석을 깔았을 뿐이었다.</p> <p>현실의 구조는 1호분의 석실과 완전히 동일한 형식이다.</p>																																			
채취 유물	목관 편 철제 관정 소형 동제품 편																																			



()		08463-025			
년 4월 11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2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반	종료 오후 6시 10분 전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대 금				
조 사 원	사와, 카가미야마		비 고		

조사 사항	오전 11시경부터 카가미야마가 석실 내부 실측 작업을 실시, 오후 4시 전에 종료하였다. 이 사이 사와는 석실 내 사진 촬영을 실시, 이로써 조사 완료함.
채취 유물	

年 4月 12日 時 0時

陵山東高冢群ニツキ

調査時間 午前9時

作業 午前9時半

人 夫 費 半日 4人

計 2


先 賃 金 1.40

1.40

調査員 澤・金丸

備考

澤氏の監督にて後田工事の第一号として石室の改修工事を
なすに付佐田の傍に設けし。此の作業午前中に終る
午後四時半より人夫四人を以て戸口の築込及び造るに
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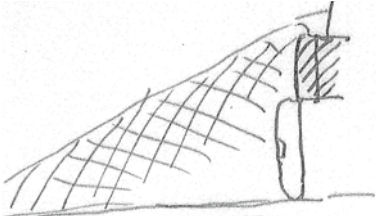


4.13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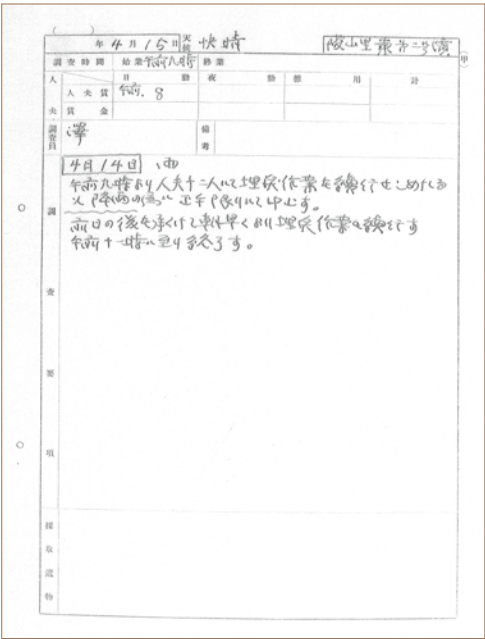
午後四時半より人夫六人を以て土室の修繕及び改修
終る作業に就く。

午前中の作業中に澤氏の金丸一本を以て

()		08463-026			
年 4월 12일		날씨 : 맑음		능산리 제 2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5시 반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반일 4인			2
	대 금	1.40			1.40
조 사 원	사와, 카가미야마		비 고		

조사 사항	<p>사와씨의 감독 아래에 복구 중인 1호분처럼 석실의 현문·연문 문비석을 원래의 위치에 돌려놓았다. 이 작업이 오전 중에 끝났다.</p> <p>오후 4시 반부터 인부 4명을 데리고 연문 부분을 파묻었다.</p> <div></div>
	<div>4월 13일</div> <p>오후 4시 반부터 인부 6명을 데리고 복토작업을 속행하여 작업 종료 시각에 이르렀다.</p>
채취 유물	<p>오전 작업 중에 사와씨 철제 관정 1점 발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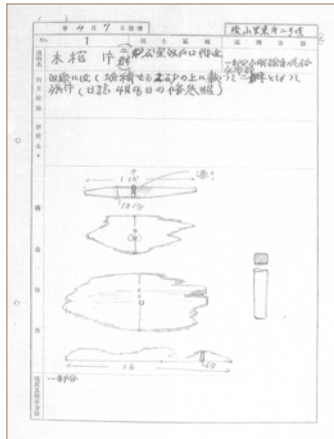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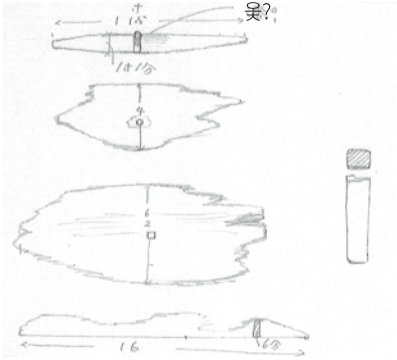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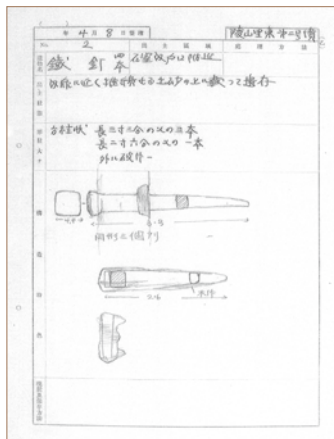
()		08463-027			
년 4월 15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2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오전 8			
	대 금				
조 사 원	사와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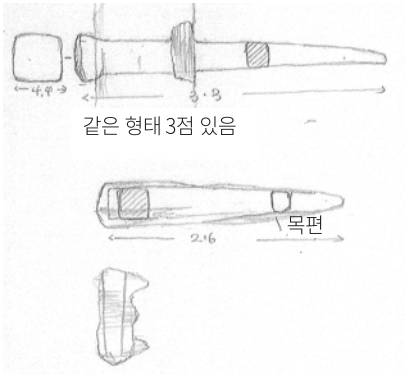
조사 사항	<div>4월 14일 비</div> <p>오전 9시부터 인부 12명을 데리고 복토작업을 속행하였으나, 비가 내려 정오에 중지하였다.</p> <hr/> <p>전날에 이어 아침 일찍부터 복토작업을 속행하였다. 오전 11시에 이르러 종료하였다.</p>
	채취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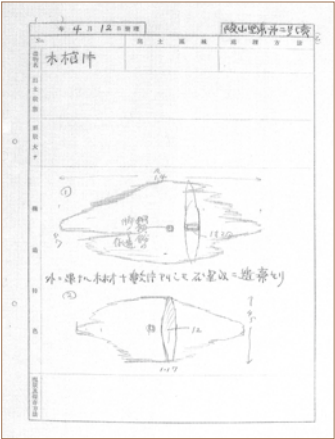
능산리 동고분군 2호분 출토품 기록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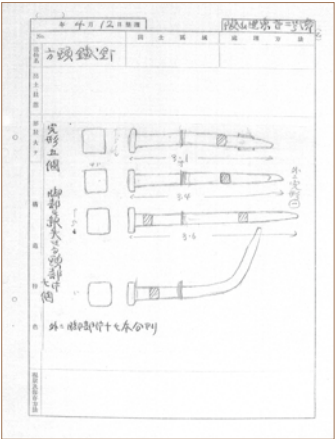
()		08463-030	
년 4월 7일 정리		능산리 동 제2호분	
No. 1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목관 편(2묶음)	석실 내 현문 부근	일부분 목질 검사를 위해 우메하라가 가지고 돌아감
출토상태	현문 근처의 퇴적된 토사 위에 놓인 돌로 나뉘어진 잔편 (일지 4월 8일 참조)		
형상크기			
구조특색			
현상 및 보존 방법	일부분		



()		08463-029	
년 4월 8일 정리		능산리 동 제2호분	
No. 2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철제 관정 4점	석실 내 현문 부근	
출토상태	현문 문비석 근처에 퇴적된 토사 위에 놓여 있었음		
형상크기	(관정) 신부 방형 길이 9.9cm 3점 길이 7.8cm 1점 그 외 파편 1		
구조특색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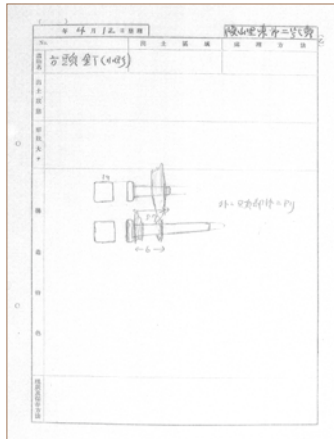


()		08463-031	
년 4월 12일 정리		능산리 동 제 2호분	
No.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목관 편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div><div>①</div><div>약 42cm</div><div>동제 관장식의 신부가 있음</div><div>그 외 단순한 목재 십여 점 있었으나, 석실 내에 남겨둠</div><div>②</div><div>3.6cm</div></div>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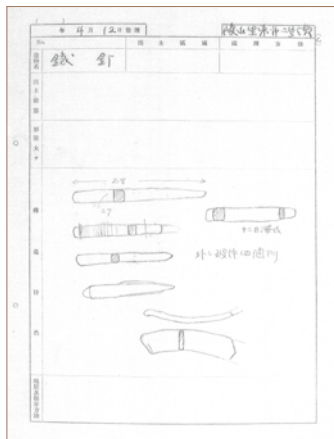


()		08463-032	
년 4월 12일 정리		능산리 동 제 2호분	
No.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두부 방형 철제 관장 [方頭鐵釘]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div><div>완형 5개</div><div>9.19cm</div><div>10.21cm</div><div>그 외 완형 1개</div><div>신부가 결실된 관장</div><div>10.27cm</div><div>두부 편 7개</div><div>그 외 신부편 17점 있음</div></div>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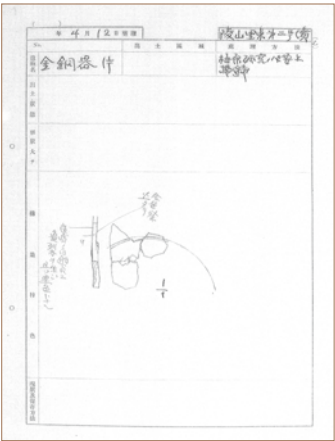
능산리 동고분군 2호분 출토품 기록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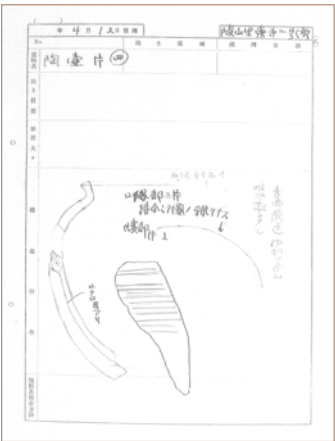
()		08463-033	
년 4월 12일 정리		능산리 동 제 2호분	
No.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두부 방형 철제 관정 [方頭鐵釘](소형)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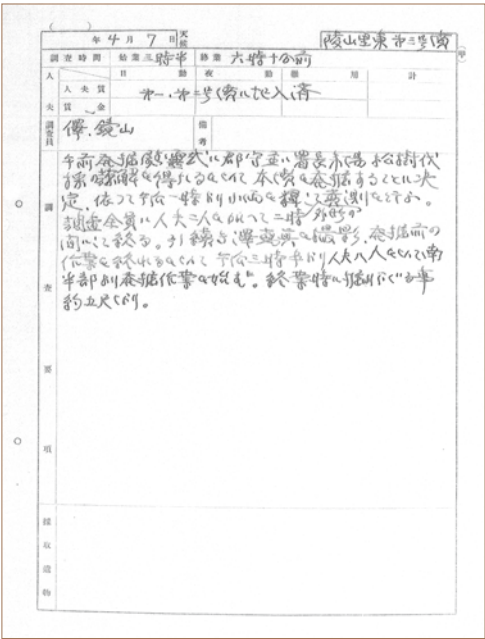
()		08463-034	
년 4월 12일 정리		능산리 동 제 2호분	
No.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철제 관정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현상 및 보존 방법			



()		08463-035	
년 4월 12일 정리		능산리 동 제2호분	
No.		출토구역	
유물명	금동기편金銅器片	처리방법 우메하라가 연구에 필요하여 가지고 감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p>양질의 백동에 균열이 생겨 검은색이 됨</p> <p>금색 봉이 끼워져 있음</p>		
현상 및 보존 방법			



()		08463-028	
년 4월 12일 정리		능산리 동 제2호분	
No.		출토구역	
유물명	토기 동체부 편 [陶壺片] ④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p>내경 약 15cm</p> <p>구연부 3편</p> <p>↓ 접합하자 원의 선이 보임</p> <p>동체부 1</p> <p>물레 흔 있음</p> <p>표면 회색 사립이 포함 흡수율 높음</p>		
현상 및 보존 방법			



()		08463-036			
년 4월 7일		날씨 :		능산리 동 제 3호분	
조사시간		시작 3시 반	종료 6시 10분 전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1, 2호분에 이미 기입함			
	대 금				
조 사 원	사와, 카가미야마		비 고		

조사 사항	<p>오전 발굴조사 위령식에 군수, 경찰서장이 방문하여 소나무 벌채를 허가받고, 본 고분의 발굴을 결정하였다. 이에 오후 1시부터 소나무를 소량 벌채하고 고분 외형을 실측하였다.</p> <p>조사원 전원에 인부 2명을 추가하여 2시간 만에 종료하였다.</p> <p>이어서 사와는 사진 촬영을 하여 발굴 전의 준비작업을 종료하였고, 오후 3시부터 인부 8명을 데리고 남쪽 부분부터 발굴을 시작하였다. 작업을 종료할 때 채굴한 깊이가 약 1.5m 정도 되었다.</p>
채취 유물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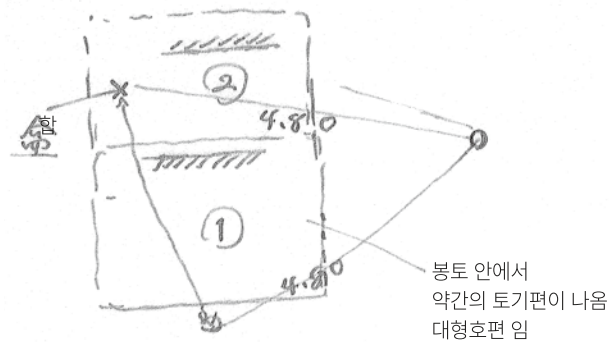
()		08463-037			
년 4월 8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3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5시 40분		
인 부		일일 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3			3
	대 금	2.10			2.10
조 사 원	카가미야마, 우메하라		비 고		

전날 시작한 고분 남쪽 부분의 채굴작업을 속행하였다. 그러나 10시 반경에 북쪽에서 묘도의 일부가 확인되어, 조사 범위가 남쪽에 편재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수정하여 조사 범위를 북쪽으로 넓혀 제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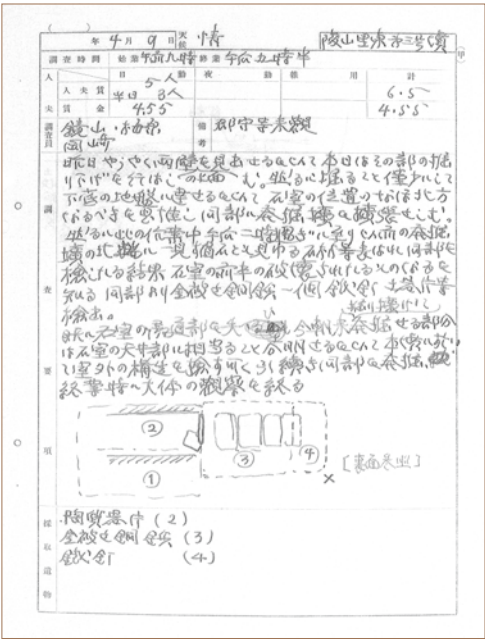
작업 중 고분 중심 부근의 표토와 가까운 곳에서 석재가 약간 매몰된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오후 2시가 지나서 중심에서 4.8m 떨어진 지점의 지표면 아래 35cm 부근에서 합솔이 옆으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부 숲꾼으로 보이는 것이 반출되었다.

발굴 속행 후 작업 종료에 이르러 겨우 묘도 양벽의 상면에 이르렀다.

조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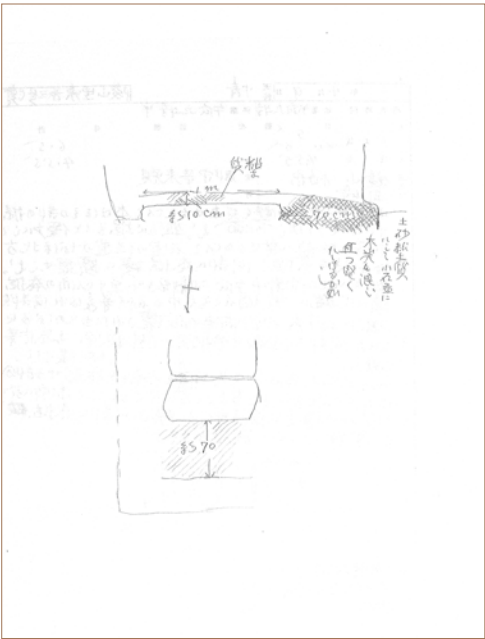
채취
유물

대부합 1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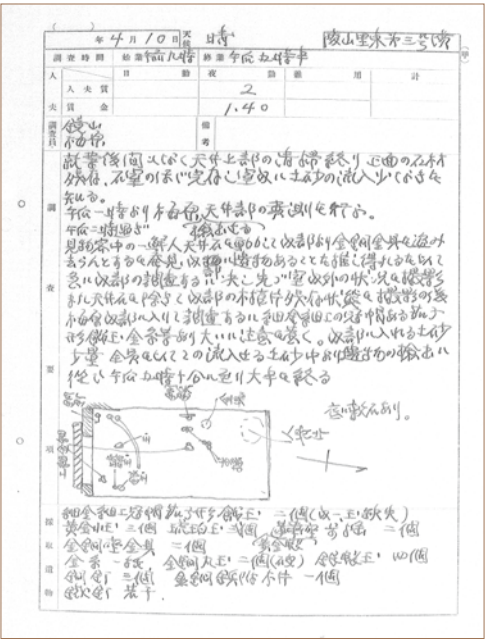
()		08463-038			
년 4월 9일		날씨 : 맑음		능산리 제 3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5시 반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5인 반일 3인			6.5
	대 금	4.55			4.55
조 사 원	카가미야마, 우메하라 오카자키		비 고	군수 등 내관	

조사 사항	<p>전날 간신히 묘도 양벽의 상부를 발견함에 따라, 오늘은 이 부분을 파 내려갔다. 그러나 제토를 시작하자마자 바닥에 도달하여, 석실의 위치는 더 북쪽으로 생각되어 해당 부분으로 조사 범위를 확장하였다.</p> <p>그러나 작업 중 오후 2시를 지나 조사 범위의 북쪽에서 문비석으로 보이는 석재 등이 확인되어 해당 부분을 조사한 결과, 석실 앞부분이 파괴된 것을 알게 되었다. 해당 부분에서 금동제 관정 1개, 철제 관정, 토기 편 등 발견.</p> <p>이미 석실의 연도부가 사라져 오늘 아침에 발굴한 부분은 현실의 천장부에 해당하는 것을 밝혔으며, 본 고분의 석실 외부 구조를 확인하고 이어서 해당 부분의 발굴을 마칠 때 대체적인 관찰을 끝냈다.</p>
채취 유물	토기 편 (2) 금동제 관정 (3) 철제 관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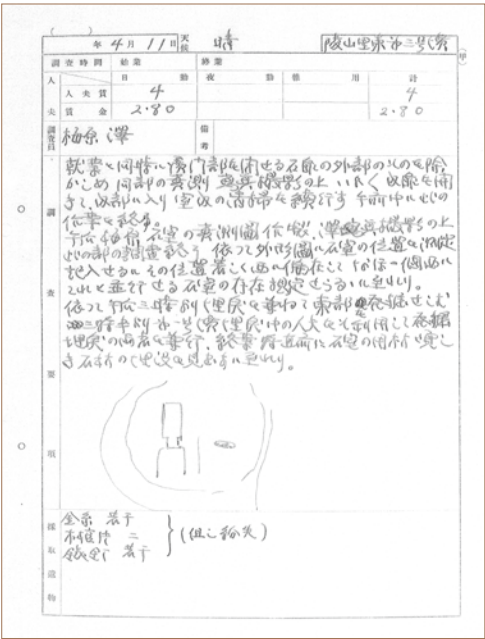
()		08463-040			
조사시간		시작	종료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대 금				
조 사 원			비 고		

조사 사항	
채취 유물	



()		08463-039				
년 4월 10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3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5시 반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2			
	대 금		1.40			
조 사 원	카가미야마 우메하라		비 고			

조사 사항	<p>작업 시작 후 곧 천장 상부의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현문의 문비석이 남아있고 석실이 거의 완전하며 현실 내에 토사가 일부 유입된 것을 알 수 있었다.</p> <p>오후 1시부터 우메하라는 확인된 천장부를 실측하였다.</p> <p>오후 2시 넘어 구경객 중 하나인 조선인이 천장석을 움직여 내부에서 금동제 금구를 훔치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내부에 유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급히 내부를 조사하기로 결정. 먼저 석실 내외의 상황을 촬영한 후 천장석을 제거하고 내부의 목판 편 잔존 상태를 촬영하기 위해 우메하라가 내부에 들어가 조사했으며, 정밀하게 세공한 관모가 있는 가지형 장식옥, 금실 등이 있어 주목되었다. 내부에 들어간 토사는 소량으로, 이 유입된 토사에서 유물을 발견하였고 5시 10분에 거의 완료했다.</p>
채취 유물	<p>세금 세공한 관모 장식이 있는 가지형 장식옥 2개(그중 1개는 옥 결실)</p> <p>황금 소옥 3개, 호박옥 3개, 황금제 연화좌(보요) 2개</p> <p>금동 좌금구 2개</p> <p>금실 일괄, 금동 환옥 2개(파손), 은제 옥 4개</p> <p>동제 관정 3개, 금동제 관정에 붙은 목재 편 1개</p> <p>철제 관정 약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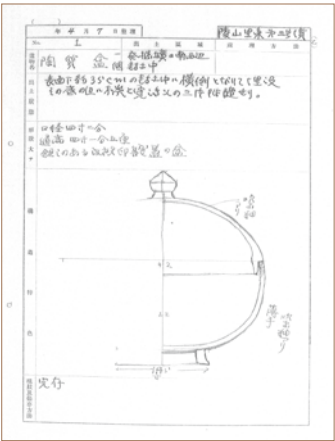
()		08463-041			
년 4월 11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3호분	
조사시간		시작	종료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4			4
	대 금	2.80			2.80
조 사 원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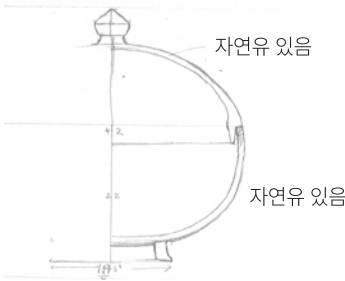
조사 사항	<p>작업 시작과 동시에 연문을 막은 문비석을 제거하고 해당 부분을 실측 및 사진 촬영 후, 본격적으로 현문 문비석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현실 내부 정리를 진행함. 오전 중에 이 작업을 종료함.</p> <p>오후에 우메하라는 석실 실측도를 작성하고 사와는 사진 촬영을 한 후, 조사를 종료함. 외형도에 석실의 위치를 측정하여 넣었는데, 그 위치가 현저하게 서쪽으로 편재하고 있으며, 이 석실과 병행하는 또 다른 석실의 존재를 가정하기에 이름.</p> <p>이에 따라 오후 3시부터 복토를 겸하여 석실의 동쪽 부분을 발굴함. 3시 반에 1호분 복토 중인 인부를 이용하여 발굴과 복토를 병행. 작업 종료 직전에 석실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석재가 매몰된 것을 발견.</p>
채취 유물	<div>금실 약간</div> <div>목관 편 2</div> <div>철제 관정 약간</div> <div>(다만 분실)</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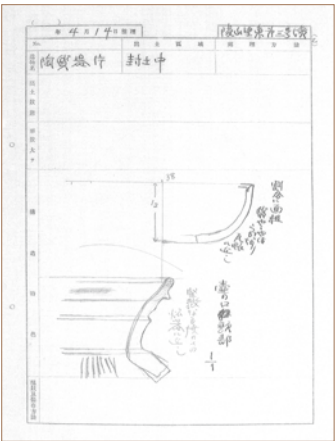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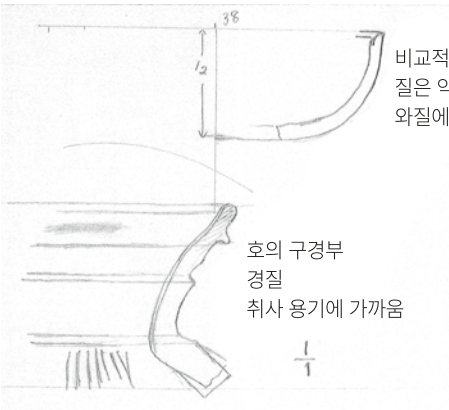
()		08463-042							
년 4월 12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3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5시 반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5인							
	대 금	3.50							
조 사 원	사와, 카가미야마			비 고					

<div>조사 사항</div>	<p>전날 확대 발굴한 부분 바닥에서 석재가 발견되어 더 제토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그 아래에서 바로 지반이 나왔고 매장시설은 없었다. 오른쪽 돌은 호석의 일부인 듯하다.</p> <p>이것보다 상부의 봉토에 목탄이 포함되어 있다.</p> <div data-bbox="672 1037 1009 1181"> </div> <p>오후에 인부를 데리고 복토작업을 실시하였다. 오후 4시부터 4·2·1호분 석실 앞부분의 복토를 완료하였고, 거의 옛 형태를 복원했다.</p> <hr/> <div data-bbox="376 1399 465 1433"> <div>4월 13일</div> </div> <p>5호분 조사 인부 가운데 남은 인력과 함께 1호분 복토공사 종료 후 오후 4시 반부터 3호분 복토에 힘써 오후 5시 반에 종료하였다.</p> <p>착수 이래 7일이 소요되었고, 투입된 인부는 총 23인(이 가운데 야근 2인)이었다.</p>
<div>채취 유물</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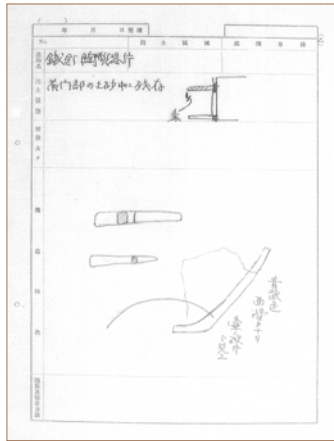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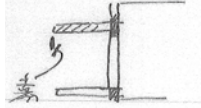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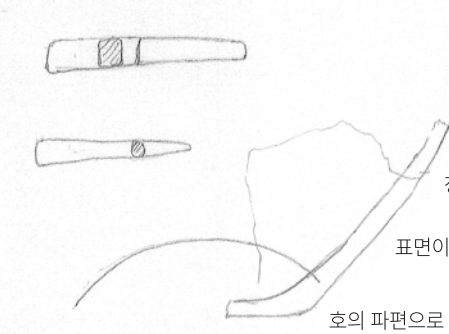
()		08463-043	
년 4월 7일 정리		능산리 동 제 3호분	
No. 1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대부합 1개	발굴 광의 남서쪽 봉토 내	
출토상태	표면에서 약 35cm의 아래 봉토 내에 횡치되어 매몰 그 바닥 부근에 목탄으로 생각되는 것이 3편 부착되어 있음		
형상크기	구경 12.6cm 높이 12.45cm 손잡이가 있는 합		
구조특색	 자연유 있음 자연유 있음		
현상 및 보존 방법	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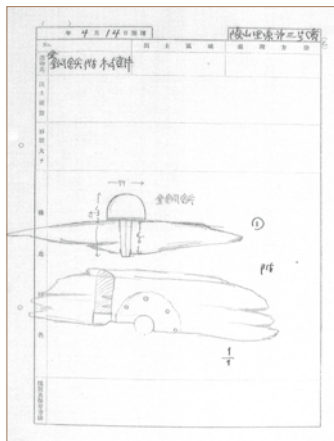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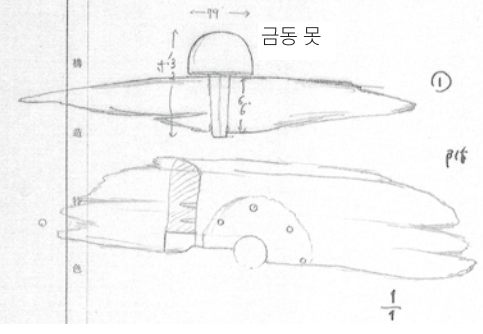
()		08463-044	
년 4월 14일 정리		능산리 동 제 3호분	
No.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토기 편	봉토 내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비교적 면이 거칠고, 질은 약간 무르다. 와질에 가깝다 호의 구경부 경질 취사 용기에 가까움 1/1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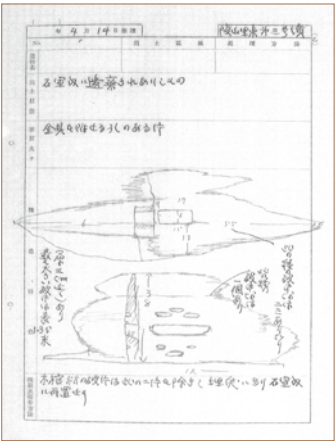
능산리 동고분군 3호분 출토품 기록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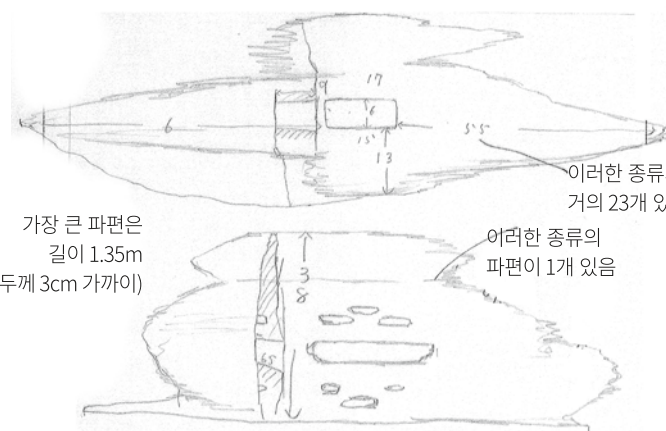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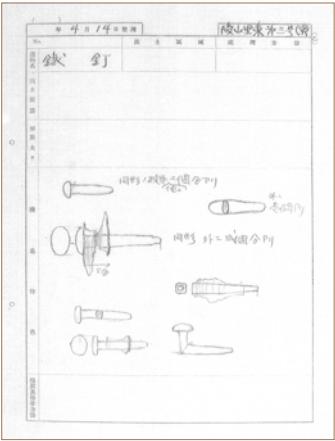
()		08463-046	
년 월 일 정리			
No.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철제 관정 토기 편		
출토상태	연문쪽의 토사 내에 잔존		
형상크기			
구조특색	 <p>청서색靑鼠色 표면이 매끈함 호의 파편으로 보임</p>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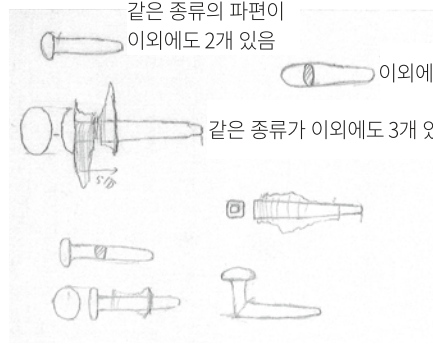


()		08463-047	
년 4월 14일 정리		능산리 동 제3호분	
No.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금동 관정이 부착된 목관 편 [金銅鉸附木棺片]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p>금동 못</p>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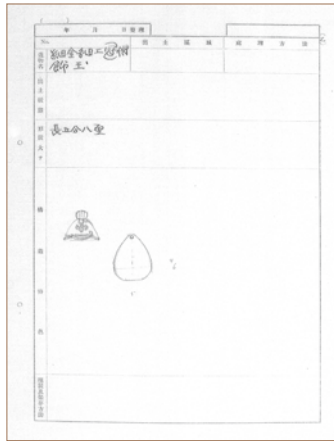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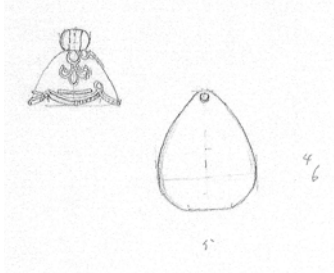
()		08463-048	
년 4월 14일 정리		능산리 동 제3호분	
No.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출토상태	석실 내에 유기되어 있던 것		
형상크기	금구金具를 부착한 구멍이 있는 조각		
구조특색	 <p>가장 큰 파편은 길이 1.35m (두께 3cm 가까이)</p> <p>이러한 종류의 파편이 거의 23개 있음</p> <p>여러한 종류의 파편이 1개 있음</p>		
현상 및 보존 방법	목관 재 파편은 이 두 편을 제외하고 복토 때 석실 내에 다시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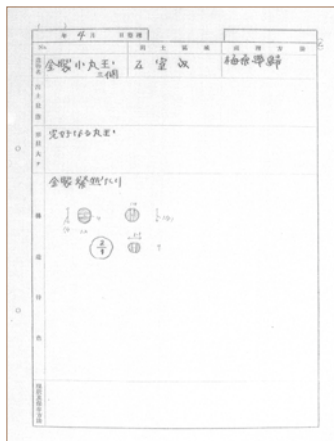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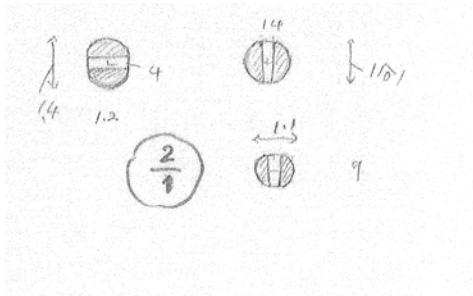
()		08463-049	
년 4월 14일 정리		능산리 동 제3호분	
No.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철제 관정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p>같은 종류의 파편이 이외에도 2개 있음</p> <p>이외에도 1개 있음</p> <p>같은 종류가 이외에도 3개 있음</p>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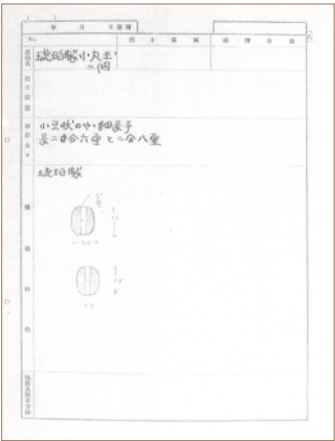
능산리 동고분군 3호분 출토품 기록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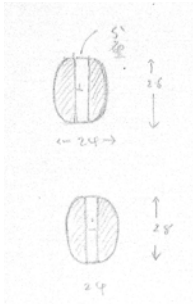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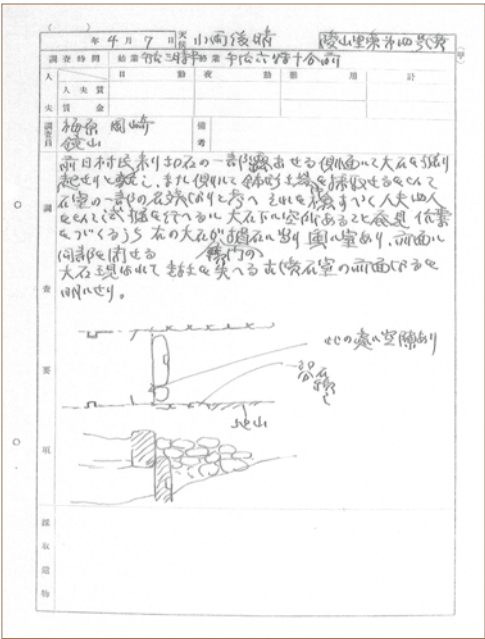
()		08463-050	
년 월 일 정리			
No.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세금세공한 관모장식이 있는 장식옥 [細金細工冠帽飾玉]		
출토상태			
형상크기	길이 3.9cm		
구조특색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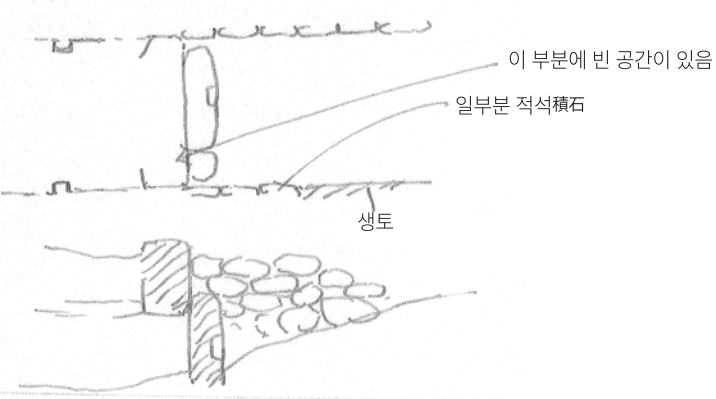
()		08463-053	
년 4월 일 정리			
No.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금제 소환옥 3개	석실 내	우메하라 가지고 돌아감
출토상태			
형상크기	완전하고 양호한 환옥		
구조특색	<p>금제 찬연한 것</p>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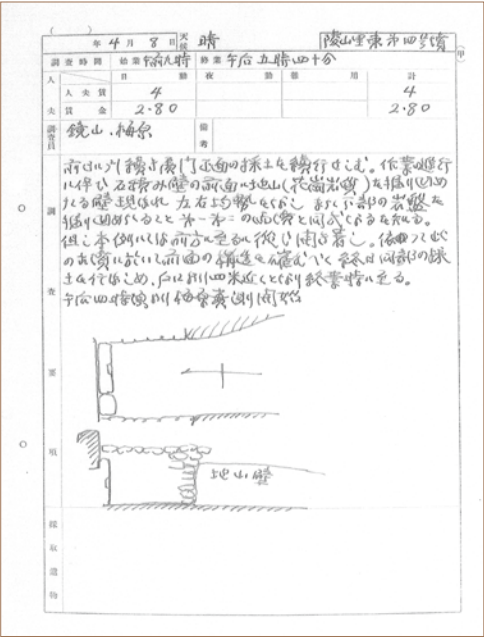


()		08463-054	
년 월 일 정리			
No.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호박제 소환옥 2개		
출토상태			
형상크기	소두상小豆狀으로 약간 세장하다 길이 0.78cm와 0.86cm		
구조특색	호박제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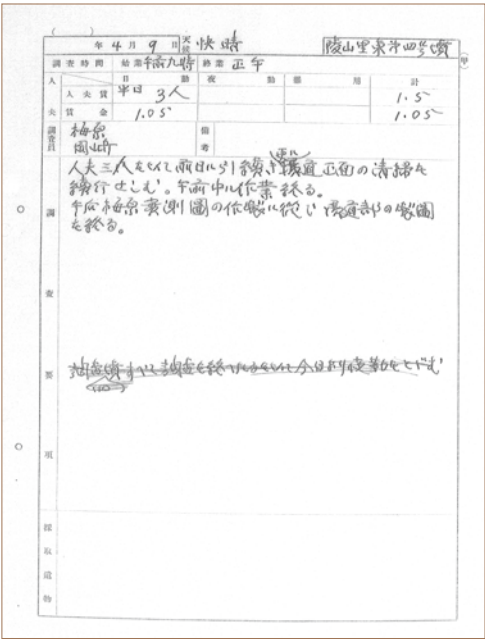
()		08463-060			
년 4월 7일		날씨 : 비 온 후 맑음		능산리 동 제 4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후 3시 반	종료 오후 6시 10분 전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대 금				
조 사 원	우메하라, 오카자키 카가미야마		비 고		

조사 사항	<p>전날 마을주민이 와서 석재 일부가 노출된 부근에서 대형 석재를 파냈다고 이야기함. 또한 이 부근에서 발형 토기를 수습하여 석실 흔적일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인부 4명을 데리고 시굴 조사하였고, 대형 석재 아래 빈 공간을 발견하였다. 작업을 계속하다 오른쪽의 대형 석재가 연문의 문미석에 해당하고, 안쪽에 현실이 있으며 앞쪽에서 연문을 막은 문비석이 확인되어, 봉토가 유실된 석실분의 앞부분임을 확인.</p> 
채취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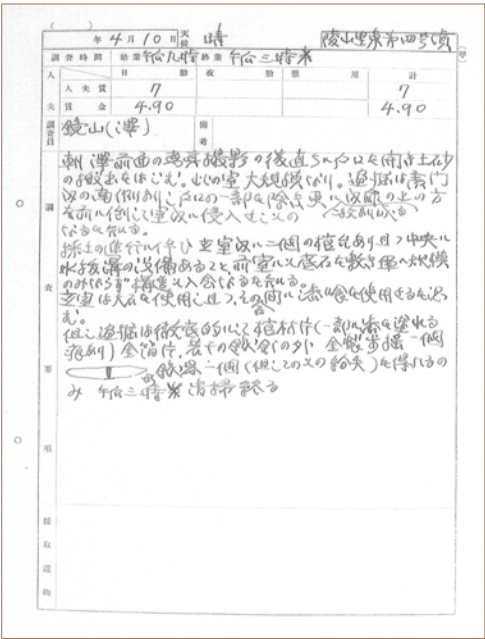
()		08463-061			
년 4월 8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4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5시 40분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4			4
	대 금	2.80			2.80
조 사 원	카가미야마, 우메하라		비 고		

조사 사항	<p>전날에 이어 연문 앞부분의 제토를 속행하였다.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돌을 쌓은 벽의 앞부분에서 생토(화강암질)를 파낸 벽이 나타났으며, 좌우 균등하게 암반을 파낸 것은 1·2호분과 동일한 형식임을 알 수 있다.</p> <p>다만 4호분은 앞쪽으로 갈수록 현저하게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고분에서는 묘도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종일 이 부분의 제토를 실시하고, 연문 입구로부터 4m 부근에서 작업이 종료되었다.</p> <p>오후 4시경부터 우메하라 실측 개시.</p>
채취 유물	




()		08463-062			
년 4월 9일		날씨 : 쾌청		능산리 동 제 4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정오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반일 3인			1.5
	대 금	1.05			1.05
조 사 원	우메하라 오카자키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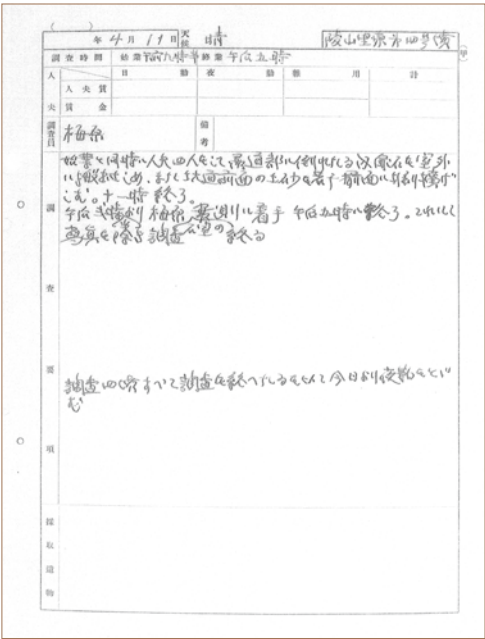
조사 사항	<p>인부 3명을 데리고 전날에 이어 연도 앞쪽의 정리작업을 속행하였다. 오전 중에 작업 종료. 오후 우메하라가 실측도를 작성함에 따라 묘도부의 제도를 완료했다.</p>
채취 유물	



()		08463-063			
년 4월 10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4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3시 반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7			7
	대 금	4.90			4.90
조 사 원	카가미야마, (사와)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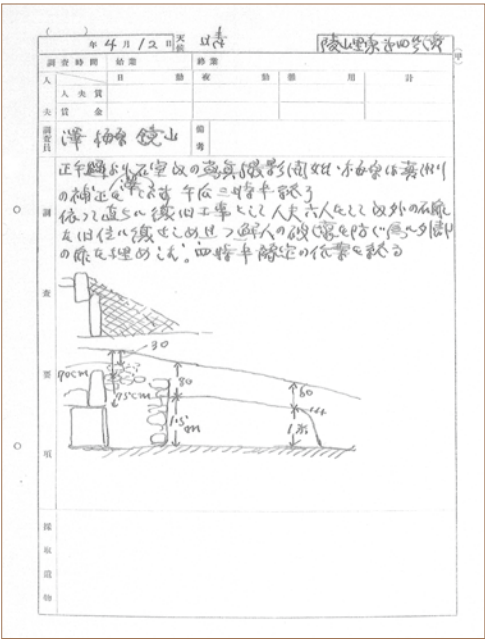
조사 사항	<p>아침에 사와가 묘도의 사진을 촬영한 후, 바로 연문을 열고 토사 반출을 실시하였다. 이 석실은 규모가 컸다. 도굴은 연도 내의 남측에서 연문의 일부를 제거하고 다시 2매로 된 현문 문비석의 윗부분을 앞으로 넘어뜨린 후 현실 내부로 침입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p> <p>제도가 진행됨에 따라 현실 내부에서 2개의 관대를 확인하였고⁹, 또한 중앙에 배수구 시설이 있으며, 연도에도 바닥석이 깔려있어 단순히 규모뿐 아니라 구조도 정연한 것을 알 수 있었다.</p> <p>현실은 대석을 사용하였고, 그 석재 사이에 회반죽을 사용하였다.</p> <p>하지만 도굴이 철저히 이루어져 관재 편(일부에 옷칠한 흔적 있음), 금박 편, 약간의 철제 관정 외에 금제 보요步搖 1개,  형 철기 1개(다만 이것은 분실)만을 수습하였다. 오후 3시 정리 종료.</p>
채취 유물	

9. 우메하라 스에지는 조사 당시 현실 바닥 중앙에 난 배수로를 경계로 2개의 관대가 구획된 것으로 인식한 듯하다.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수정하여 배수로 위에 1열로 놓은 판상석을 관대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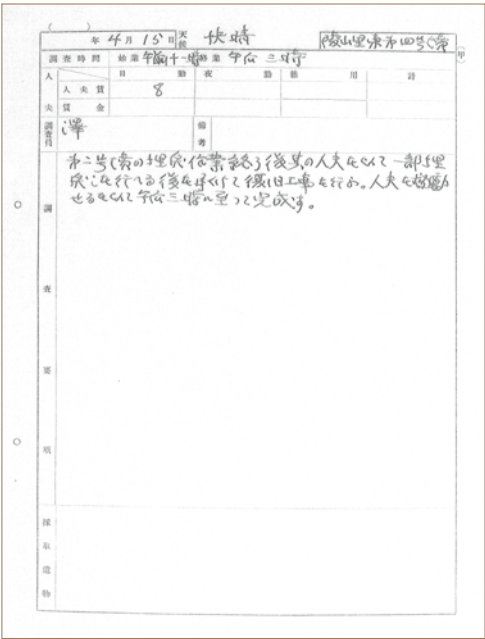
()		08463-064			
년 4월 11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4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9시 반	종료 오후 5시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대 금				
조 사 원	우메하라		비 고		

조사 사항	<p>작업 시작과 동시에 인부 4명을 데리고, 연도부에 쓰러져 있던 현문 문비석을 외부로 반출하였다. 또한 묘도 앞쪽을 조금 더 파서 넓혔다. 11시 종료.</p> <p>오후 2시 반부터 석실 실측에 착수하여 오후 5시에 종료하였다. 이로써 사진을 제외하고 조사를 종료하였다.</p>
	<p>조사한 4개 고분 모두 완료되었기에 오늘부터 야근하지 않게 되었다.</p>
채취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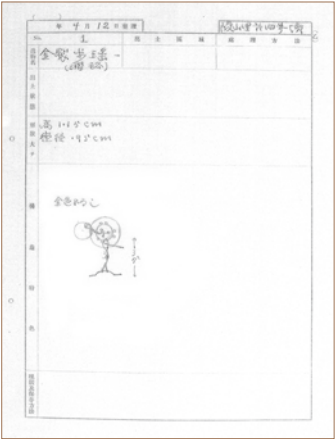
()		08463-065			
년 4월 12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4호분	
조사시간		시작		종료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대 금				
조 사 원	사와, 우메하라, 카가미야마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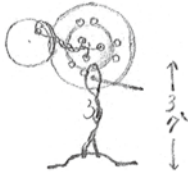
조사 사항	<p>정오를 지나 사와는 석실 내 사진 촬영을 시작하고, 우메하라는 실측을 보정한 후 오후 3시 반에 종료하였다.</p> <p>이에 따라 바로 복구공사를 위해 인부 6명을 데리고 현문과 연문의 문비석을 원래 위치에 놓고, 조선인이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문의 문비석을 복토하였다. 4시 반에 예정된 작업을 종료하였다.</p>
채취 유물	



()		08463-066			
년 4월 15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4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11시	종료 오후 3시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8			
	대 금				
조 사 원	사와		비 고		

조사 사항	2호분의 복토작업 종료 후 그 인부를 데리고 복토작업을 실시한 후, 이어서 복구공사를 실시하였다. 인부를 독려하여 오후 3시에 완료하였다.
채취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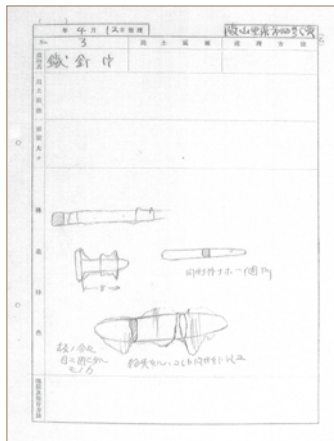
()		08463-067	
년 4월 12일 정리		능산리 동 제 4호분	
No. 1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금제 보요金製步搖 1개(영락)		
출토상태			
형상크기	높이 1.15cm 지름 0.95cm		
구조특색	금색이 양호함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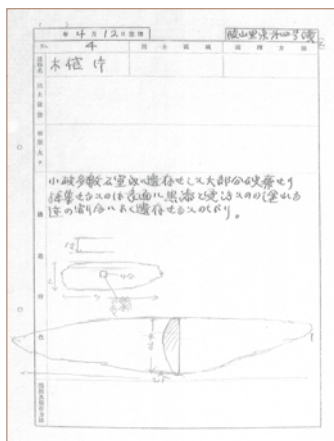
()		08463-068	
년 4월 12일 정리		능산리 동 제 4호분	
No. 2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금박 편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금박 편 의 상태는 1호분 출토품과 완전히 동일하다. 박은 매우 얇고 칠박漆箔 ¹⁰ 으로 목관 편 위에 부착되어 있다.		
현상 및 보존 방법			

10. 표면에 옷을 바르고 그 위에 금박을 입히는 기법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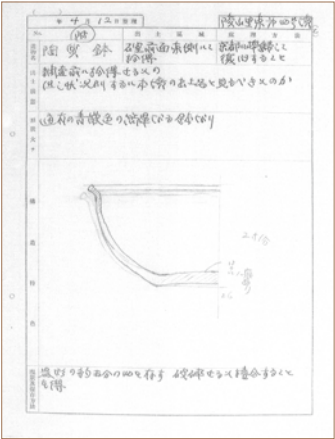
능산리 동고분군 4호분 출토품 기록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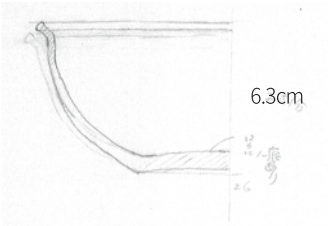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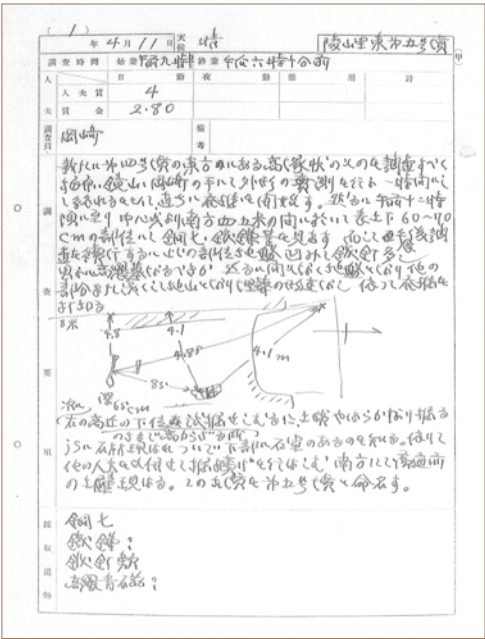
()		08463-070	
년 4월 12일 정리		능산리 동 제4호분	
No. 3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철제 관정 편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p>같은 형태의 편이 1개 있음</p> <p>판 연결 부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p> <p>분실한 것은 이것과 같은 모양</p>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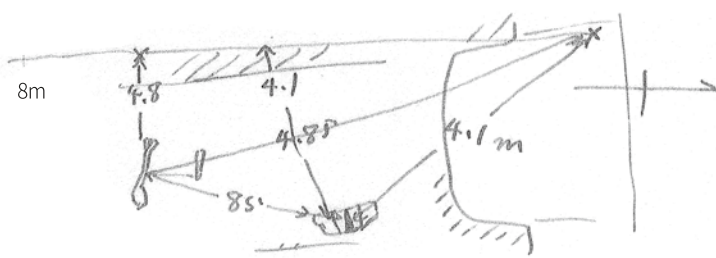
()		08463-069	
년 4월 12일 정리		능산리 동 제4호분	
No. 4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목관 편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p>작은 파편 다수가 석실 내에 남아 있었으나 대부분 그대로 두었고, 수습한 것은 표면에 흑철 흔적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것이다.</p>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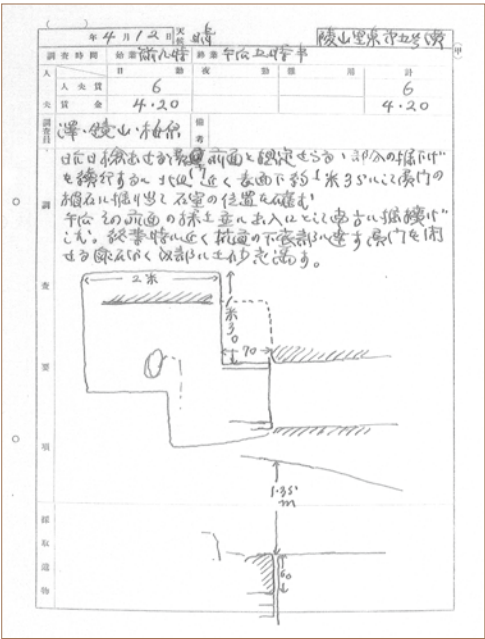


()		08463-071	
년 4월 12일 정리		능산리 동 제 4호분	
No. 부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발	석실 앞부분의 동쪽에서 수습	교토로 가지고 돌아가 복구함
출토상태	조사 전에 수습한 것 다만 출토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고분의 출토품으로 볼 수 있을지		
형상크기	일반적인 청서색靑鼠色の 단순한 발		
구조특색			
현상 및 보존 방법	기형의 약 4/5가 남아 있음. 파손됐지만 접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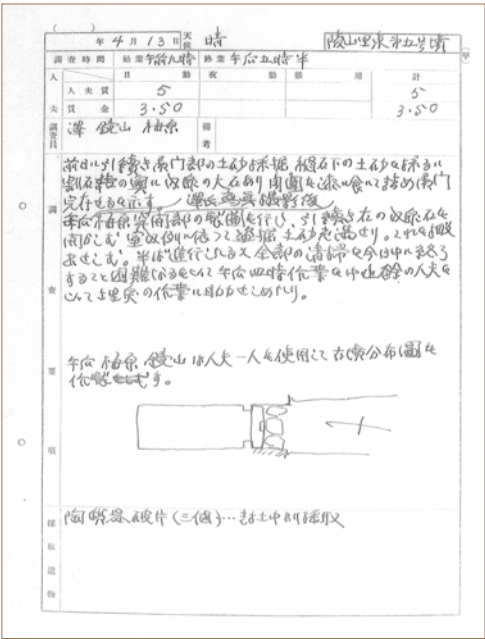
()		08463-072			
년 4월 11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5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6시 10분 전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4			
	대 금	2.80			
조 사 원	오카자키		비 고		

조사 사항	<p>4호분 동쪽에 있는 고총高塚 형태의 고분을 조사하기 위해 우메하라, 카가미야마, 오카자키가 외형을 실측하였다. 1시간 만에 완료하고 바로 발굴을 개시하였다. 12시경, 고분 중심에서 남쪽으로 4~5m 사이 지점의 표토 아래 60~70cm 부근에서 동제 손가락, 철검 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오후 조사를 수행하자 이 부위의 지반이 패인 곳에서 철제 관정이 많이 나왔다.</p> <p>고려묘로 추정된다. 바로 지반이 나타났고 다른 부분 또한 얇은 곳에서 생토가 나왔으며 매장의 흔적은 없었다. 따라서 발굴을 중단하였다.</p> 
채취 유물	<p>동제 손가락 철검? 철제 관정류 고려청자?</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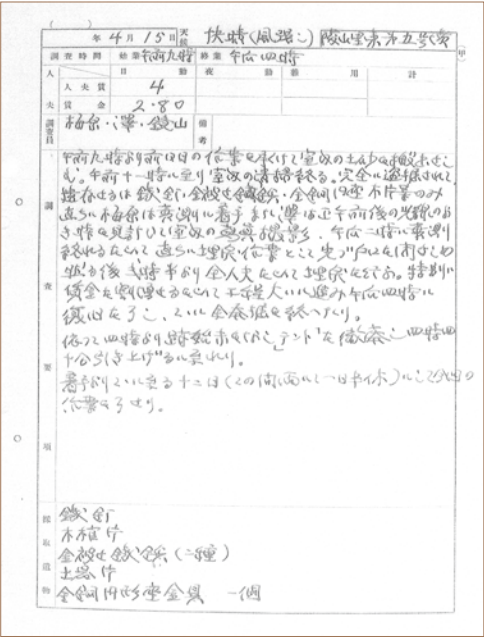
()		08463-077			
년 4월 12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5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5시 반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6			6
	대 금	4.20			4.20
조 사 원	사와, 카가미야마, 우메하라		비 고		

조사 사항	<p>어제 발견한 연문 앞부분으로 추정되는 지점의 하강 작업을 실시하였고, 북쪽 근처 표면 아래 1.35m 지점에서 연문의 문미석을 발견하여 석실의 위치를 확인하였다.</p> <p>오후 그 앞부분을 제토하고 출입구로 생각되는 남쪽을 확대해서 파냈다. 작업 종료 시간에 가까워 묘도의 바닥면에 도달하였고, 연문을 막은 문비석이 없어 내부에 토사가 가득 차 있었다.</p>
채취 유물	



()		08463-078			
년 4월 13 일		날씨 : 맑음		능산리 동 제 5호분	
조사시간		시작	종료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5			5
	대 금	3.50			3.50
조 사 원	사와, 카가미야마, 우메하라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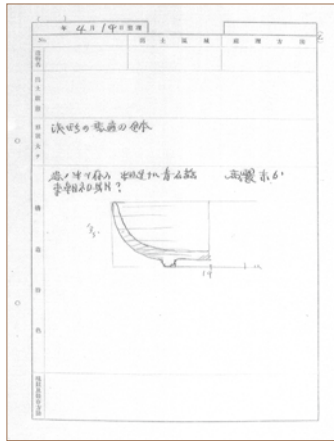
조사 사항	<p>전날에 이어 연도의 토사를 제거하였다. 문미석 아래의 토사를 걷어내자 할석의 안쪽에 현문 문비석이 있었고, 주위를 회반죽으로 채워 현문을 온전히 보존한 것으로 보인다.</p> <p>오후 사와씨의 사진 촬영 후 우메하라가 천장부의 실측을 하였고, 이어서 현문 문비석을 열자 다른 고분처럼 현실 내부에 토사가 가득 차 있었다. 이를 반출하였다. 절반 정도 진행하였으나 정리를 전부 완료하기에 오늘 중으로는 곤란하다고 보고, 오후 4시에 작업을 중지한 후 남은 인부를 데리고 복토작업을 도왔다.</p> 
	<p>오후 우메하라, 카가미야마는 인부 1인을 데리고 고분 분포도를 작성하였다.</p>
채취 유물	토기 파편 (3개) - 봉토 내에서 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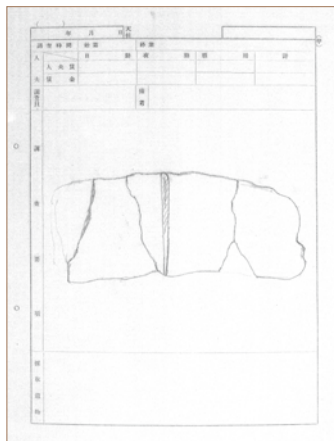
()		08463-079			
년 4월 15일		날씨 : 맑음(바람이 썸)		능산리 동 제 5호분	
조사시간		시작 오전 9시	종료 오후 4시		
인 부		일일근무	야근	잡용	계
	인 부	4			
	대 금	2.80			
조 사 원	우메하라, 사와, 카가미야마		비 고		

조사 사항	<p>오전 9시부터 그제 작업에 이어 현실 내 토사를 반출하였다. 오전 11시에 현실 내부의 정리가 종료되었다. 완전히 도굴되어 철제 관정, 철지금장 관정, 금동제 좌금구, 목관 편 등만 남아 있었다.</p> <p>바로 우메하라는 실측을 시작하였고 사와는 정오 전후의 광선이 좋을 때를 가늠해 현실 내의 사진을 촬영한 후, 오후 2시 실측이 끝남과 함께 복토작업으로 우선 현실 문비석을 담은 후 2시 반부터 모든 인부를 데리고 복토를 실시하였다. 특별히 임금을 추가한다고 하자 공정이 빨리 진행되어 오후 4시에 복토가 끝났다. 이로써 모든 발굴이 종료되었다.</p> <p>이에 따라 4시부터 뒷정리와 텐트 철거를 하고 4시 40분에 끝냈다.</p> <p>착수한지 12일(이 동안 비 때문에 하루 반을 쉬었다.) 만에 작업을 종료했다.</p>
채취 유물	<p>철제 관정</p> <p>목관 편</p> <p>철지금장 관정(2종)</p> <p>토기 편</p> <p>금동제 원형좌금구 1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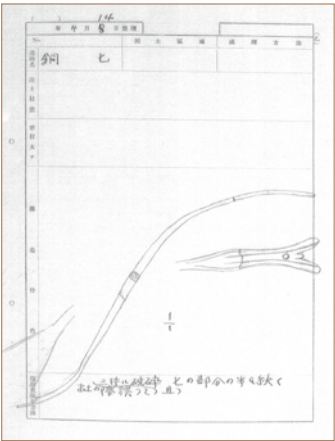
능산리 동고분군 5호분 출토품 기록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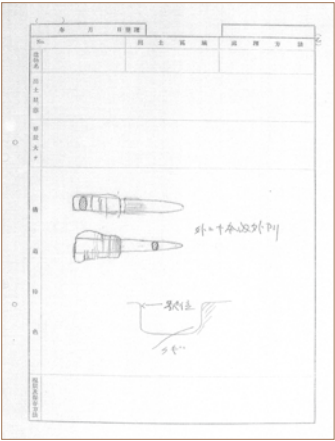
()		08463-073	
년 4월 14일 정리			
No.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출토상태			
형상크기	얇은 형태의 일반적인 발		
구조특색	<p>그릇의 절반이 남아 있다. 조잡한 청자. 고려말? 조선 초?</p>		
현상 및 보존 방법			



()		08463-074	
년 월 일 정리			
No. 3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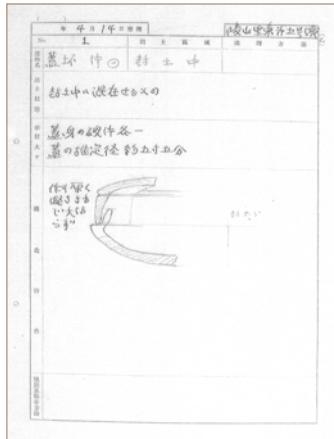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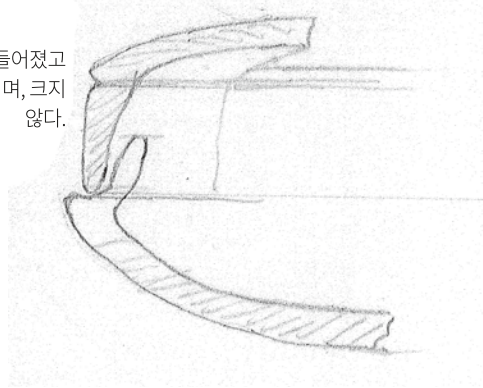
()		08463-075	
년 4월 14 일			
No.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동제 순가락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현상 및 보존 방법	출토 시 잘못하여 세 조각으로 파손됨. 거기에 순가락 부분의 반이 결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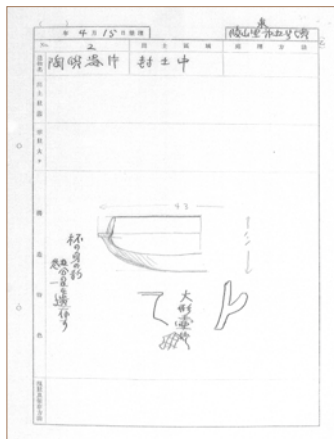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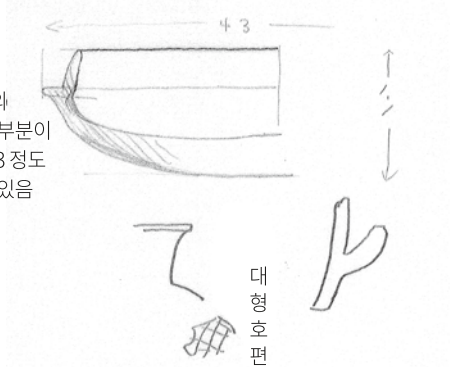
()		08463-076	
년 월 일 정리			
No.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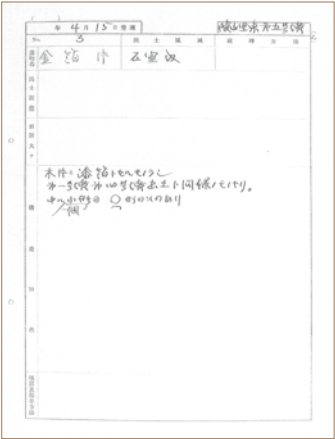
능산리 동고분군 5호분 출토품 기록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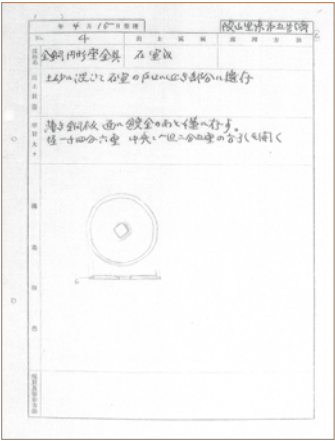
()		08463-080	
년 4월 14일 정리		능산리 동 제5호분	
No. 1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개배 편	봉토 내	
출토상태	봉토 내에 혼재되어있던 것		
형상크기	뚜껑과 접시 파편 각 1개 뚜껑의 추정 지름 약 16.5cm		
구조특색	<div> <p>두껍게 만들어졌고 경질은 아니며, 크지 않다.</p>  </div>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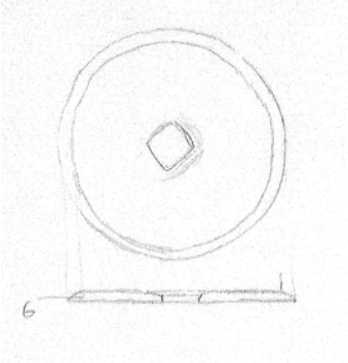


()		08463-081	
년 4월 15일 정리		능산리동 제5호분	
No. 2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토기 편	봉토 내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div> <p>배杯의 몸체 부분이 약 1/3 정도 남아 있음</p>  </div>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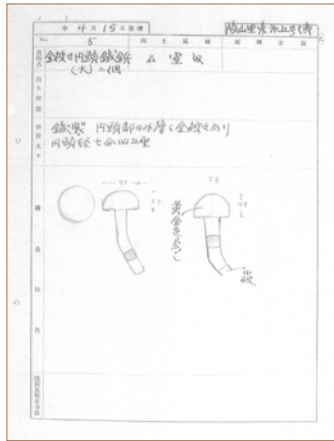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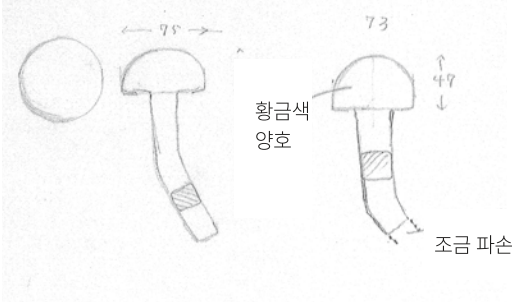
()		08463-082	
년 4월 15일 정리		능산리 동 제 5호분	
No. 3		출토구역	
유물명	금박 편	석실 내	처리방법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목관 편에 칠박漆箔으로 보이는 것이 있음 1·4호분 출토품과 같은 것임 이 가운데 한 개는 작은 원형임		
현상 및 보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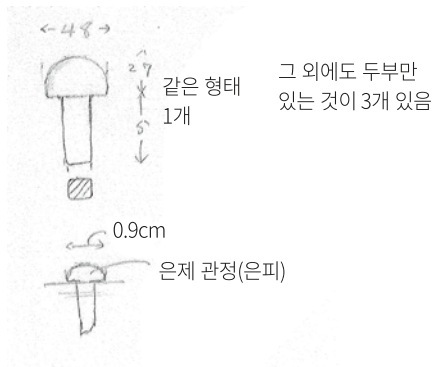
()		08463-083	
년 4월 15일 정리		능산리 동 제 5호분	
No. 4		출토구역	
유물명	금동제 원형좌금구	석실 내	처리방법
출토상태	토사에 섞여 석실의 현문 가까운 곳에 있었음		
형상크기	얇은 동판에 도금 흔적이 일부 남아 있음. 지름 약 4.38cm, 중앙에 한 변이 7.5mm 되는 네모난 구멍이 있음		
구조특색			
현상 및 보존 방법			

능산리 동고분군 5호분 출토품 기록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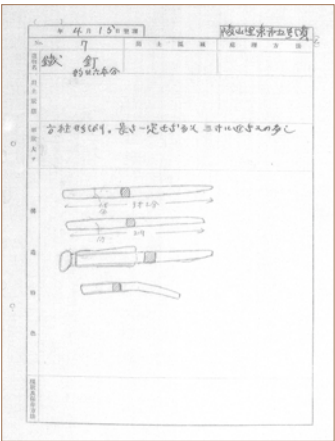
()		08463-084	
년 4월 15일 정리		능산리 동 제 5호분	
No.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두부 원형 철지금장 관정 [金被圓頭鐵鉞] (대) 2개	석실 내	
출토상태			
형상크기	철제의 원형 두부에 두껍게 금피金被가 있음 원형 두부 지름 2.25cm		
구조특색			
현상 및 보존 방법			



()		08463-085	
년 4월 15일 정리		능산리 동 제 5호분	
No. 6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두부 원형 철지금장 관정 [金被圓頭鐵鉞] 5개	석실 내	
출토상태			
형상크기	앞에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이나 소형 금색이 양호하며 원형 두부의 지름은 약 1.5cm		
구조특색			
현상 및 보존 방법			



()		08463-086	
년 4월 15일 정리		능산리 동 제 5호분	
No. 8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철제 관정류		
출토상태			
형상크기			
구조특색			
현상 및 보존 방법			



()		08463-087	
년 4월 15일 정리		능산리 동 제 5호분	
No. 7		출토구역	처리방법
유물명	철제 관정 약 6개분		
출토상태			
형상크기	신부는 방형이다. 길이는 일정하며 9cm에 가까운 것이 많다.		
구조특색			
현상 및 보존 방법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32집

부여 능산리 동고분군

扶餘 陵山里 東古墳群

The Neungsan-ri Dong(East) Ancient Tombs, Buyeo

총괄

윤형원

기획

윤형원

윤태영

정현

진행

윤태영

정현

김소현

유가람

원고

정현

신용비

실측·전자도면

김소현

김도현 동양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편집

윤태영

정현

일문번역

이택구 조선문화재연구원

사진촬영

한정엽 한국문화재사진연구소

보존

황현성

신용비

신연홍

이민희

김선영

분석

신용비

복디자인

한국디자인테크연구소

발행

국립부여박물관

33156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Tel. 041-833-8563

<http://buyeo.museum.go.kr>

제작

한국디자인테크연구소

17370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87번길31-0(창전동)

Tel. 070-5008-9265

인쇄

두성프린트

초판 발행

2019년 12월

© 2019 국립부여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부여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ISBN 979-11-86567-17-3

